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문학석사 학위논문

커머닝으로서의 문학 - 문학의 정치성과 공통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비교문학전공 이 민 주

2022년 2월

커머닝으로서의 문학

- 문학의 정치성과 공통성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서 영 채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비교문학전공 이 민 주

이민주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u>이 경 진 (인)</u> 부위원장 <u>황 정 아 (인)</u> 위 원 <u>서 영</u> 채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커먼즈론의 관점에서 문학의 정치적·사회적 필요성과 가능성을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문학이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서의 언어를 활성화하는 언어적 커머닝 작업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삶의 고유한 감각을 일깨우는 '서정적 영역'을 재구축하여 자본중심적 질서와 '다를수 있는' 삶을 누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회문화적 커먼즈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심화되면서 일상적 삶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자본의 재생산'에 경합할 수 있는 '사회적 재생산'을 강조하는 커먼즈론은 기존의 자본 중심적 가치 질서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대안 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커먼즈(commons)는 공유지나 공공재 등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커먼즈는 단순히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의 개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 관리 체계 수립 활동 전반을 의미하고,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및 공동자원의 성격 또한 재규정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공동자원-공동체-실천 행위'의세 요소가 결합된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커먼즈를 유지하는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커머닝(commoning)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공유하는 수동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자원을 재생산하는 능동적인 행위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적 질서 또한 재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먼즈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커머닝에 기반한 커먼즈는 공(公)과 사(私)의 이분화된 구조를 넘나들며 사회경제적 질서뿐만 아니라, 커머닝의 과정에서 커먼즈적 주체로서의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의 출현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적(公共的)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커먼즈론은 이러한 커먼즈의 가능성에 대한 담론으로, 본고에서는 커먼즈론이 일상성에 기반하여 현실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수행적 실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비판적 대안성'과 '가치적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유토피스틱스적 실천 (the practice of utopistics)'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커먼즈인 언어와 이에 기반한 문학은 가장 주관적인 언어를 통해 사회 질서 전반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는 객관적 가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커먼즈라 할 수 있다. 테오도르 아도르 노에 따르면 '서정시'는 주체의 고유한 목소리로 발화함으로써 사회와 소통하고, 또한 사회는 그러한 주관적 목소리를 하나의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상품화된 가치에 기반한 '유용한 소통'이 아닌 인간적 가치에기반한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는 '만남의 장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서정(the lyric)'이라는 '의미의 영역'을 구축하는 문학은 언어적 커머닝이자 그자체가 하나의 커먼즈로 사회 속에서 기능하며, 새로운 커먼즈적 주체로서의 '서정적 주체'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풍요로운 세계에서삶의 빈곤함이 더 커져가는 오늘날, '삶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가치의보루로서 문학의 의미를 '커머닝으로서의 문학'이라는 관점을 통해 재발견해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자본주의적 질서의 심화 속에서 사회경제적·정치적 환경 또한 악화된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 장에 나타난 변화를 짚어본다. '부드러운 자본주의'와 함께 문학의 상품화 현상 또한 가속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논의와 '참여적 문학'의 증가 등 문학이 시민과 함께 공공적 공간을 재구성하는 사회적 매개로 역할하기 시작한 최근의 변화를 살펴본다.

2장에서는 커먼즈론의 주요 개념과 등장 배경을 통해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략의 이론적 흐름을 정리한다. 특히, 커먼즈론이 단지 자본주의적 현실을 부인하는 '유토피아적' 담론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의 수행적 개입을 통해 자본독점적 가치 질서를 변형해나가고자 하는 '유토피스틱스적(utopistics) 실천'임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경합할 수 있는 '커먼즈적 생산양식'의 가능성으로서 사회문화적 커먼즈의 중요성을 검토해본다. 언어 및 각종 지식 정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억 전반을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커먼즈는 '관계성의 강화'를 강조하는 커먼즈론에서 이를 추동할 수 있는 핵심적 커먼즈가 될 수 있다. 그중 소통의 매체로서의 언어는 이미 커먼즈이지만, 이를 활성화시키는 '커머닝으로서의 문학'은 '서정(the lyric)'이라는 '의미의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더 본질적이고 진정성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커먼즈 중의 커먼즈'임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커먼즈로서 문학에 내재한 정치성과 공통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함께-쓰기'로서의 문학적 커머닝이 함축하는 문학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의 가능성을 짚어본다. 특히 자크 랑시에르가 문학에는 기존의 공동체적 질서에 '불화'할 수 있는 '정치성'이 내재하며 이를 통해 '몫 없는 자들의

몫'을 현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면, 본고에서는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화해' 개념을 통해 불화적 관계는 물론 이를 포괄하는 새로운 관계를 사회 속에 구축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의 '공통성'이 문학에 있다고 본다. 기존의 문학 행위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 <불킨 낭독회>와 <칠곡 할매들>의 낯선 문학적 시도를 통해 '함께-쓰기'로서의 문학적 커머닝이 실현할 공통성의 모습과 새롭게 도래할 '서정적 주체'의 모습을 전망해본다.

5장에서는 커먼즈로서의 문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문학의 '사회적 전환'의 관점에서 정리해보고, '서정적 영역'으로서의 문학의 중요성과 향후 한국문학의 새로운 커머닝적 실험들과 커먼즈적 주체로서의 '서정적 주체'의 탄생을 그려본다.

주요어 : 커먼즈, 커머닝, 문학, 정치성, 공통성, 유토피스틱스, 서정, 수

행성, 함께-쓰기, 사회적 전환

학 번: 2010-20068

목 차

I. 서론 :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변화 ···································	1
Ⅱ. 커먼즈론의 흐름	10
Ⅱ.1. 주요 개념 및 배경	10
Ⅱ.2. 이론적 논의들	20
Ⅱ.3. '유토피스틱스적 실천'으로서의 커먼즈론	25
Ⅲ. 사회문화적 커먼즈로서의 언어와 문학	34
Ⅲ.1. '생산양식'과 사회문화적 커먼즈	34
Ⅲ.2. 사회문화적 커먼즈로서의 언어	47
Ⅲ.3. 커머닝으로서의 문학: '서정적 영역의 구축'	56
Ⅳ. 문학의 정치성과 공통성	65
IV.1. 자크 랑시에르의 '문학의 정치' ······	65
Ⅳ.2. 문학의 '불화적' 정치성과 '화해적' 공통성 ·············	73
Ⅳ.3. '함께-쓰기'로서의 문학적 커머닝	82
V. 결론 : '문학'이라는 커먼즈의 도래 ···································	91
참고문헌	
Abstract	gg

I. 서론: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변화

오늘날 문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소규모 독립서점이 활성화되고 1인 출판물이 증가하는 등 '작은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게 등장하고, 전통적 의미에서의 '소설'은 게임산업이나 유통산업에서 중요한 '콘텐츠'로활용된다.1) 이러한 현실은 문학이 넘쳐흐르는 속에서 오히려 지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시장에서도 '문학적인 것'의효용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로서의 대중 역시 '더 문학적인 것' 을 일상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처럼 '사회의 미학화'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학을 포함한 예술 자체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소비와 미디어, 다국적 기업, 탈산업 등이 중심이 되는 현시대의 자본주의적 경향을 "전지구적 후기자본주의"로 정의하며, 이러한 체제의 지배적 문화 논리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제시한 바 있다.2) 그에 따르면, 역사적 상황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은 "모더니즘적 시적 소설 이후의 스토리텔링의 귀환"으로, 단지 부정적 속성만을 띠는 것은 아니다.3) 이러한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실험'들은 이전의 모더니즘적 언어가 지닌 '폐쇄성', 즉 특유의 난해성으로 인해일부 교양있는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었던 한계를 넘어, 언어 스스로의 '저급화'를 무릅쓰고 일반 대중에게 문학을 비롯한 예술을 '개방'하는 시도일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형식들에 함축된 대중적 성격과 상대적으로 민주화된 점"을 생각해볼 것을 강조한다.4) 즉, 중요한 것은 현재의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의 일면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향을 문화와 사회 사이

¹⁾ 한 기사에 따르면, 대형 백화점에서 식품을 판매할 때 그 식품을 소재로 한 짧은 소설을 먼저 노출하고 그 끝에 해당 식품의 구입 링크를 제시하기도 한다. (참조: 한소범, <게임회사, 유통회사는 왜 '소설'에 꽂혔을까?> (2021-07-15, 한국일보))

²⁾ 프레드릭 제임슨, 신현욱 역, 『문화적 맑스주의와 제임슨: 세계 지성 16인과의 대화』 (파주: 창비, 2014), 396~399쪽.

³⁾ 같은 책, 102쪽.

⁴⁾ 같은 곳.

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 더 나아가 "포 스트모더니즘의 진리의 계기(the moment of truth)"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확장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5)

이에 기반하여 볼 때, 문학을 비롯한 예술 전반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하나의 '역사적 상황'으로 마주함으로써 최근의 경향이 합의하는 바를 더욱 풍부하게 짚어볼 수 있다. 요컨대 시장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공통적으로 '문학적인 것'이 하나의 효용 가치로사용되는 동시에, 여러 종류의 '문학적 실험' 또한 시도되고 있는 현 상황은 '문학적 진리의 계기'가 발현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문학적 현상'을 단순히 '사회의 미학화'의 한양상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문학적인 것'을 재정의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문학들'로 가득한 지금은 문학과 삶의 관계, 문학과 사회의 관계, 나아가 문학과 문학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을 통해 문학을 비롯한 예술 전반이 담지해 온 '인간됨'이라는 오랜 가치를다시 쓸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며, 또한 이처럼 문학과 예술의 경계(境界)를 '함께-쓰는' 과정 속에서 문학과 예술의 자기 변화는 물론 이 과정에 참여한 우리 역시 '삶다운 삶'을 누리는 '문학적 주체'로 거듭나는 잠재적 가능성 또한 지난다.

실제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 장 내의 여러 움직임은 문학이 공공적(公共的) 공간을 재구성하는 사회적 매개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초·중반의 '문학의 정치론'과 2010년대 중·후반의 '작은 이야기들'의 활성화가 그러하며, 이와 같은 '문학의 사회화' 현상은 문학적 실천을 통하여 공동체의 경계에 질문을 던지고 공동체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미학적 생산이 일상의 삶으로 넘쳐 들어가서 그 삶을 재조직"할 수있는 문학 고유의 힘을 문학 스스로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6)

먼저 2010년대 초·중반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한국문학 장 내에

⁵⁾ 같은 책, $104^{\sim}106$ 쪽. 프레드릭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정말 다국적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한, 거기에는 어떤 인식적인 내용이 있다"고 평가한다. 즉, 만일 후기자본주의 하에서 주체가 탈중심화되고 소외되어 온 '현실'을 예술이 "충실하고 진정성있게 기록"한다면, 바로 이 점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진리의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⁶⁾ 프레드릭 제임슨, 같은 책, 268쪽

서 '문학의 정치론'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문학에 기반한 미학적 실험들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이러한 시도들은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가 제기한 '문학의 정치론'와 더불어 문학을 통한 '정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졌다.7) 용산 참사 등 일반 시민들의 생존권이 안전하게 보장되지 못했던 당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작가들은 "우리의 이념은 사람이고 우리의 배후는 문학이며 우리의 무기는 문장입니다"라고 선언했고(<6·9 작가선언>(2009. 6. 9.))8), 용산과 두리반 등 사회적 폐허의 장소에서 "행복, 천사들의 도시, 집, 태양, 밥, 노래"등의 주제들과 관련된 시나소설, 때로는 각 예술가의 작품들을 낭독하거나 공연하는 방식으로 그 장소를 점유하기도 했으며(<불킨낭독회>(두리반, 2010~2011))9), 세월호 희생자

⁷⁾ 이와 관련한 당시 주요 논의들을 박준(2013)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한국 문학계의 중요한 논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수록한다; 진은영. 「감각적인 것 의 분배 - 2000년대 시에 대하여」(『창작과비평』, 2008년 겨울호); 김행숙·서 동욱·심보선·신형철 좌담, 「감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에서 - 오늘날의 시 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학동네』, 2009년 봄호); 이장욱, 「시, 정치 그리 고 성애학」(『창작과비평』, 2009년 봄호); 서동욱, 「시와 비진리 - 이미지의 논리」(『세계의문학』, 2009년 여름호); 이성혁, 「'정치적인 것'과 아방가르드 - 랑시에르의 예술론에 대한 아방가르드의 입장에서의 비판」(『시와사람』 2009년 여름호); 김형중. 「문학과 정치 2009 - 유리에 대한 단상들」 (『문학과 사회』, 2009년 가을호); 강계숙, 「시의 정치성을 말할 때 물어야 할 것들」 (『문학과사회』, 2009년 가을호); 강동호, 「존재론적 비명으로서의 시적인 것 -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에 대한 단상」(『창작과비평』, 2009년 가을호); 조 연정, 「무심코 그린 얼굴 -시와 정치에 대한 단상」(『문학수첩』, 2009년 가 을호); 백낙청, 「현대시와 근대성 그리고 대중의 삶」 (『창작과비평』, 2009년 겨울호); 함돈균, 「잉여와 초과로 도래하는 시들 - 주체 과정으로서의 시 그리고 (『창작과비평』, 2009년 겨울호); 김춘식·서동욱·조강석·진은영 좌담, 「우리 문학의 이전과 이후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우리 시」(『문장 웹 진』, 2010년 1월호); 신형철, 「가능한 불가능 -최근 시와 정치 논의에 부쳐」 (『창작과비평』, 2010년 봄호); 심보선, 「천사-되기에서 무식한 시인-되기로 -평론가, 시인, 문맹자의 문학적 정치들 (『창작과비평』, 2011년 여름호) (참조: 박준, 「용산, 두리반 그리고 희망 버스 이후 작가들—시인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 나」(『실천문학』, 2013년 봄호), 63쪽. 각주1) 보완하여 재인용)

⁸⁾ 전문은 http://www.hanjak.or.kr/2012/idx.html?Qy=board&nid=428 참조. 선언문의 제목은 <이것은 사람의 말>. 6·9 작가선언에는 188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용산 참사 및 과도한 시위탄압 등 당시 시국을 비판했다.

^{9) 6·9} 작가선언의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시인, 소설가, 평론가, 가수, 북디자이너 등이 결성한 '잡소한 사춘기 문화집단 1월11일(1월11일 동인)'이 주축이 되어 강제 철거로 인해 전기가 끊어진 홍대 칼국수집 '두리반'에서 '불킨(불을 밝힌)낭독회'를 개최했다. 사태가 해결되어 '드디어 불킨 낭독회'(2011.6.)를 개최할 때까지 8개월간 매달 진행되었고, 그동안 낭독회에서는 다양한 작품 경향을 지닌 작가들이

304명을 기억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4시 16분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로 시작하는 낭독회(<304낭독회>(2014. 9. 20.~))를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열었다.10) 이러한 '문학적 시도들'을 통하여 작가들은 작가 자신의 '시인에서 시민으로'의 정체성의 변화를 고백하거나,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된 작품들을 제출했다.

한편,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소규모 독립서점에서의 낭독회나 개인적 서사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 출판물이 증가하는 동시에, 소규모 모임 및 마을·지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글쓰기 강좌도 활성화되고 있다.11) 그중 한 사례로 경북 칠곡군 <인문학도시조성사업>에서 진행된 '성인문예반'의 경우를 들수 있다. 마을 단위 공동체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한글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직접 시를 쓰거나 영화를 찍고 (시집『시가 뭐고?』(강금연 외 88명, 2015), 다큐멘터리 《칠곡가시나들》(김재환, 2019)), 2021년 3월에는 직접 쓴 글씨로 '칠곡할때글꼴'을 만들어 무료로배포해 사회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다.12) 이들은 단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의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학부모님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시적 언어'로 응답하기도 했다.13)

각자 자유롭게 골라온 작품들을 낭송하였으며, 시민 낭독자도 있었다. 낭독회는 무료로 진행되었지만,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을 두리반 투쟁 기금으로 사용했다. (참조: 진은영, 「문학의 아토포스: 문학, 정치, 장소」, 『문학의 아토포스』 (서울: 그린비, 2015) 172~173쪽. 각주16), 17))

^{10)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인해 304명이 희생된 이후, 같은 해 9월 20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과 작가가 함께 참여하여 각자 써온 문장 306개를 읽는 것으로 시작된 이 낭독회는 304회 개최를 목표로 시내 곳곳에서 매월 마지막 주토요일 4시 16분 작가 및 평론가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참조: 임지영, <돌아오지 못한 304명의 이름을 부르다> (2016-04-15, 시사IN 448호))

¹¹⁾ 심보선, 「천사-되기에서 무식한 시인-되기로 - 평론가, 시인, 문맹자의 문학적 정치들」, 『창작과비평』, 2011년 여름호, 257~266쪽; 「예술 동호회의 정치: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주체화의 무대」, 『東方學志』 2013년 12월, 319~344쪽.

¹²⁾ 박명규, <'삐뚤빼뚤' 칠곡할매 손글씨로 만든 글꼴 일냈다> (2021-03-23, 경북도 민일보)

¹³⁾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한 일/온 국민의 마음이 괴로워요./아픈 것은 학부모님보다 덜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차란, <세월호>), (참조: 강금연 외 88명, 『시가 뭐고? -칠곡 할매들, 시를 쓰다』 (서울: 삶창, 2021), 74쪽)

특히 후자의 사례는 랑시에르가 '문학의 정치론'에서 강조했던 바의 감성적 배분 능력의 "평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¹⁴⁾ 종전의 '문학의 정치론'이 문학적 생산 주체를 중심으로 문학의 미학적 실천 영역을확장시켜 나갔다는 일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시를 쓴다는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 '자기 갱신'으로서의 문학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인지, 또한 이들이 쓴 시가 과연 어떤 층위에서 '시'로 의미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언어의 실험"을 초과하는 "문학의 실험"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고할 수 있다.¹⁵⁾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생산자로서의 작가(Der Autor als Produzent) (1934)에서 "어떤 문학이 시대의 생산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 에 서 있는가 하고 질문하기에 앞서. 그것이 생산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물으며, 오직 "문학적으로 올바른 경우에라야만, 정치적으로도 올 바"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16) 요컨대 '생산자로서의 작가'는 언어의 기능을 올바르게 전환할 수 있는 역량, 즉 "문학적 기술(Technik)"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이들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일차적 임무라 할 수 있는 것 이다. 이에 대해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 역시 문학을 비롯한 예술은 단지 생산관계를 모사하거나 그것과 유리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사회적) 합리성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이 합리성을 비판하는 (미학 적) 합리성"으로 사회 속에 고유하게 존재하며, 진정한 예술작품은 이러한 '미학적 긴장'을 통해 물화된 외부 세계를 탈피하여 현실의 본질을 명료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17) 이로 볼 때, 언어의 기능을 '올바르 게' 전환한다는 것, 즉 '문학의 자율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본의 확 대재생산을 향한 생산관계와 이에 기반한 사회적·정치적 상황들에 대하여 문학적 언어로 입장을 표명하는 '재현'의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질료로 주

¹⁴⁾ 심보선, 위의 앞 글. 262쪽.

¹⁵⁾ 백낙청, 「현대시와 근대성, 그리고 대중의 삶」, 『창작과비평』 (2009년 겨울호), 15~22쪽, 32~36쪽.

¹⁶⁾ 발터 벤야민, 반성완 역, 「생산자로서의 작가」,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서울: 민음사, 2006) 254~256쪽. 강조는 원저자.

¹⁷⁾ 테오도르 아도르노, 홍승용 역, 『미학 이론』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0), 95쪽. (괄호 안의 부기는 논자)

어진 언어를 통하여 그러한 생산관계 전반에 포섭된 우리의 의식 자체를 '각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미학적 개입'을 의미하며,18) 이는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까지 추동하는 '미학의 사회화'로도 이어 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미학화(Äesthetisierung)"의 과정을 통해 이에 참여하는 이들 또한 '미학적 주체'로 거듭나는 잠재적 가능성 역시 전망해볼 수 있다.19)

그런 점에서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변화는 문학이 단지 소비나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언어적 장소'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문학이 새로운 형태의 주체를 등장하게하는 사회적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1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변화를 문학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을 보여주는 한 경향이라 바라보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미학적 주체를 "서정적 주체(Lyric Subject)"로 개념화하고자 한다.20) 이는 문학의 위치를 사회 속에 다시 배치함으로써 예술로서의 문학이 지닌 고유성을 재탐색하고, 이를 통해 '너머의 삶'을 향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문학의 역할과 잠재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공통성(commonality)의 회복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 질서 전반의 재구성을 꾀하는 '커먼즈론'의 관점에서 언어와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쓰기'로서의 문학이 어떻게 기존의 사회 질서를 다시 쓸 수 있는지 그려볼 것이다.

"세계의 자본주의"에 경합할 수 있는 "삶의 비자본주의"를 강조하는 커먼

¹⁸⁾ 이러한 예술의 '기능전환(Umfunktionierung)'과 관련하여 벤야민은 '영화'를 기술복제시대 하의 중요한 예술적 성취로 본다. 그에 따르면, 영화는 복제라는 제2의기술을 통해 탄생할 수 있었지만, 대중들로 하여금 산업화·기계화된 삶의 조건속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지각구조와 반응양식을 '연습'할 수 있는 중요한 혁명적이며 미학적인 성취이다. (참조: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발터 벤야민 선집 2』 (서울: 도서출판 길, 2009), 86~92쪽.)

¹⁹⁾ 크리스토프 멘케, 김동규 역, 『미학적 힘: 미학적 인간학의 근본개념』 (서울: 그린비, 2013), 107~110쪽, 172~173쪽.

²⁰⁾ Claire Bishop, 「The Social Turn: Collaboration and Its Discontents」,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London/New York: Verso, 2012), pp.4~8.; Theodor Adorno, Edited and Translated by Rolf Tiedemann·Shierry Weber Nicholson, 「On Lyric Poetry and Society」, 『Notes to Literature (Volume On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p.45.

즈론은 일상 속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를 일종의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삼으며, 이를 통해 자본중심적 질서 속에서도 그것과 다를 수 있는 삶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이다. 21) 이들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양극화의 심화등 생존 자체의 위기가 자본주의적 질서의 심화로 인한 것이라 진단하고, 각자의 일상 속에서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개입을 통해 자본에 '독점'된 삶의고유한 가치를 회복해나갈 때 이러한 위기 역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커먼즈론 내에서도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입장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들은 자본 역시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바라보기에 이러한 사회적관계 자체를 활성화하는 실천 행위로서의 '커머닝(commoning)'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메커니즘에 포섭된 삶에서 벗어나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커먼즈론이 단지 반(反)자본주의적 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프레드릭 제임슨이 강조했던 바처럼 자본주의 자체가 초래한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하나의 '역사적 상황'으로바라보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행적 담론'이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때, 언어와 문학을 비롯한 예술을 하나의 사회문화적 커먼즈로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소가 지닌 '비판적 합리성'을 통해 커먼즈 전반의 방향을 보다 선명하게 조망하고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할 수 있다. 즉,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공자산으로서의 언어와 이에 기반한 문학은 공적(公的) 영역과 사적(私的) 영역 전반을 넘나드는 대표적인 공공(公共)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미 사회문화적 커먼즈라 볼 수 있으며, 특히문학을 비롯한 예술은 가장 주관적인 언어를 통해 사회 질서 전반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객관적 가치 질서를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커먼즈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커먼즈적 관점을 통해 언어와 문학 나아가 예술을 바라볼 때, 문학을 비롯한 예술의 고유성 역시 새롭게 포착할 수 있다. 언어 및 문학의 의미와 가치 구축 과정 자체가 우리 모두의 "협동적 창조(collaborative creation)"라는 점에서 이미 커먼즈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협동적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일은 문학의 커먼즈적 성격은 물론 이를 통해 문학의 의미와 경계 자체를 다시 정초

²¹⁾ 맛시모 데 안젤리스, 권범철 역, 『역사의 시작: 가치 투쟁과 전 지구적 자본』 (서울: 갈무리, 2019), 81쪽.

하는 것이기도 하다.22)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우리 시대 문학이 언어라는 커먼즈를 활성화시키며 새로운 가치 질서를 구축하고, 나아가 문학 자체에 내재한 공통적 가치 (commonality)를 더욱 확장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커머닝으로서의 문학'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문학은 '함께-쓰기'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문학은 커먼즈적 주체로서의 '서정적 주체'를 탄생시키는 사회적 '장소'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문학이 자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보다 '삶다운 삶'을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의미'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핵심적 커먼즈임을 확인할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커먼즈론의 주요 개념과 등장 배경을 통해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략의 이론적 흐름을 살펴본다. 특히, 커먼즈론이 단지 자본주의적 현실을 부인하는 '유토피아적' 담론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의 수행적 개입을 통해 자본독점적 가치 질서를 변형해나가고자 하는 '유토피스틱스적(utopistics) 실천'임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경합할 수 있는 '커먼즈적 생산양식'의 가능성으로서 사회문화적 커먼즈의 중요성을 검토해본다. 언어 및 각종 지식 정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억 전반을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커먼즈는 '관계성의 강화'를 강조하는 커먼즈론에서 이를 추동할 수 있는 핵심적 커먼즈가 될 수 있다. 그중 소통의 매체로서의 언어는 이미 커먼즈이지만, 이를 활성화시키는 '커머닝으로서의 문학'은 '서정(the lyric)'이라는 '의미의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더 본질적이고 진정성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커먼즈 중의 커먼즈'임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커먼즈로서 문학에 내재한 정치성과 공통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함께-쓰기'로서의 문학적 커머닝이 함축하는 문학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의 가능성을 짚어본다. 특히 자크 랑시에르가 문학에는 기존의 공동체적 질서에 '불화'할 수 있는 '정치성'이 내재하며 이를 통해 '몫 없는 자들의 몫'을 현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면, 본고에서는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화해' 개념을 통해 불화적 관계는 물론 이를 포괄하는 새로운 관계를 사회 속에

²²⁾ 황정아, 「문학성과 커먼즈」, 『창작과비평』 (2018년 여름호), 20~23쪽.

구축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의 '공통성'이 문학에 있다고 본다. 기존의 문학행위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 <불킨 낭독회>와 <칠곡 할매들>의 낯선문학적 시도를 통해 '함께-쓰기'로서의 문학적 커머닝이 실현할 공통성의 모습과 새롭게 도래할 '서정적 주체'의 모습을 전망해본다.

5장에서는 커먼즈로서의 문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문학의 '사회적 전환'의 관점에서 정리해보고, '서정적 영역'으로서의 문학의 중요성과 향후 한국문학의 새로운 커머닝적 실험들과 커먼즈적 주체로서의 '서정적 주체'의 탄생을 그려본다.

Ⅱ. 커먼즈론의 흐름

Ⅱ.1. 주요 개념 및 배경

커먼즈(commons)는 공동의 자산을 일컫는다. 즉, 커먼즈는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에 그치는 것이아니라,²³⁾ 이러한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실행하는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각종 재생산 행위까지 포괄하는 실천적이며 대안적인 시스템 전반을 의미한다.

다수의 커먼즈 이론가 역시 커먼즈의 범위가 물, 공기, 토지 및 문화 등의유·무형적 공동자원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 2015[2018])는 커먼즈를 '자원·공동체·사회적 규약'의세 요소가 상호의존적으로 통합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으로 정의하며,24)가이 스탠딩(Guy Standing, 2019[2021]) 또한 공동자원은 공동체의 참여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이 가능한 일종의 '배경'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공동자원을 매개로 한 자율적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질서가 새롭게 생성되는 하나의 "유기체"로 커먼즈를 설명한다.25) 맛시모 데 안젤리스(Massimo De Angelis, 2006[2019]) 역시 커먼즈를 공동체의 재생산 행위에 의해 공동자원의 성격 자체 역시 재규정될 수 있는 "공통장"으로 본다.26)

최근 커먼즈론이 사회경제 질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론장의 재구성을 위

^{23) &#}x27;commons'의 번역어는 '공유지, 공동자원, 공유재'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commons가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 CPRs)'을 매개로형성되는 공동체 차원의 관리 체계 전반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커먼즈'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백영경(2017) 역시 'commons'에는 자원에 한정되지 않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차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자원의 의미만으로 국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백영경, 「복지와 커먼즈 - 돌봄의 위기와 공공성의 재구성」, 『창작과비평』 (2017년 가을호), 25쪽, 각주 5) 참조)

²⁴⁾ 데이비드 볼리어, 배수현 역,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서울: 갈무리, 2018), 39~40쪽.

²⁵⁾ 가이 스탠딩, 안효상 역, 『공유지의 약탈』 (파주: 창비, 2021), 60~61쪽, 80쪽. 이 책에서 'commons'는 '공유지'로 번역되었다.

²⁶⁾ 맛시모 데 안젤리스, 권범철 역, 『역사의 시작: 가치 투쟁과 전 지구적 자본』 (서울: 갈무리, 2019), 439~443쪽.

한 대안 담론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기존의 자본 중심적 질서의 한계 신호가 더욱 심화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백영경, 2017; 권범철, 2020; 안새롬, 2020; 이광석, 2020).27) 실제로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같은 생태 환경적 위기뿐만 아니라 절대적 빈곤층의 급증 및 의료·돌봄 격차의 심화 등 사회적 재생산 체계 전반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차원이 아닌 '삶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of life)'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지구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인식은 시장 영역에서도 동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예컨대 전세계 금융자본을 향해 "빈곤과의 투쟁"을 요청하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다급한 움직임이나²⁸⁾ 대다수 기업들이 IT 기술 발전에 의한 공유 시스템을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각종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발전²⁹⁾ 등이 그러하다. 이는 시장에서도 기존의 자본 중심적 시스템에서 노출되는 한계를 여실히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막론하고 현재의 '위기 국면'에서 자본의 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시장이나 개별 국가의 단위에서는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이는 자본의 재생산 체계의 존속마저도 위협할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내·외부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²⁷⁾ 백영경, 같은 글; 권범철,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2020년 101호); 안새롬,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대기 커먼즈를 위한 시론」, 『환경사회학연구 ECO』 (2020년 24(1)호); 이광석, 「커먼즈, 다른 삶의 직조를 위하여: '피지털'로부터 읽기」, 『문화/과학』 (2020년 101호)

²⁸⁾ 맛시모 데 안젤리스, 같은 책, 414~416쪽; "우리는 오늘날 역사상 비상한 시기를 겪고 있다. 빈곤과의 싸움의 성과가 이보다 더 긴급하게 필요했던 적은 없었다. 전 지구적 공동체의 행동이 이보다 더 강하게 요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같은 책, 414~415쪽에서 재인용. 원글의 출처는 2005년 9월 세계은행 총재 Wolfowitz의 연례회의 첫 연설문임.)

²⁹⁾ 요차이 벤클러, 이현주 역, 『펭귄과 리바이어던』 (서울: 반비, 2018). 이 책에서는 IT 기업들의 성공 요인은 민주적인 의사소통에 기반한 '협력 시스템'의 구성에 있으며, 이는 이기심에 기반한 기존 시장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본다. 하지만 이광석(2020)은 최근 플랫폼 시장의 발달에 따른 노동 구조의 불평등 심화(플랫폼 노동)에서 볼 수 있듯, 이는 '피지털(physital) 자본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적 실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커먼즈론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자본의 확대재생산만을 위한, 즉 자본의 축적만을 위한 생산양식의 발전 및 가치 체계의 구축에 기인했다고 본다(데이비드 볼리어, 2015[2018]; 맛시모 데 안젤리스, 2006[2019]; 가이 스탠딩, 2019[2021] 등). 맛시모 데 안젤리스(2019)는 사물에 대한 객관적 척도로 상정된 자본의 확대재생산이 "자본의 (고유한) 가치실천"이지만, 이 과정에서 자본은 공통적인 것으로서의 사회적 생산물 전반을 "오로지 사적인 것으로, 전유 가능한 것으로, 축적 수단으로, 어떤 생산자 공동체가 다른 생산자공동체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만 인지하기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30) 요컨대 자본 역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여러 가치 중 하나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스템 강화와 함께 자본은 자신의 축적을 유일한 가치로 설정하는 '독점적 가치 체계'로 군림하며 사회적 재생산을 포함한 여타의 재생산 체계를 '포섭(subsumption)'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데 안젤리스를 포함한 커먼즈 이론가들은 자본의 '가치적 독점'에 경합할 수 있는 다른 가치 체계의 구축을 모색하는 하나의 대안 담론으로 커먼즈론을 제시한다.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자본의 '독점(종획, enclosure)'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상품화에 기반한 사유화 (privatization)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기후변화 및 양극화의 심화, 의료 및 돌봄 체계의 위기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원인을 찾을수 있다. 즉, 자연과 같은 공유자원뿐만 아니라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재생산 체계에 이르기까지 공동자산(commonwealth)으로서의 커먼즈가단지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자본화되거나 배타적 소유의 대상으로 전유되면서 커먼즈에 내재한 자율적 체계가 훼손된 것이다.

이러한 사유화의 확장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公的) 주체로서의 국가 개입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장 중심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국가 역시 시장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가 또한 법과 제도를 통해 '자원의 관리'라는 명목으로 커먼즈의 배타적 소유를 보장해 왔기에 국가에 기반한 '관리모델'역시 현 위기 상황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백영경, 2017; 안새롬, 2020). 그런 점에서 커먼즈론에서는 근대 사유재산제에 기원한 자본주의 하의 시장적 사유(私有)와 국가적 공유(公有)로 이분화된 소유 질서 자체에 대

³⁰⁾ 맛시모 데 안젤리스, 같은 책, 422쪽, 436쪽, 444쪽.

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소유의 다른 질서를 모색하고자하는 것이다(이광석, 2020). 이는 커먼즈론의 지향이 국가와 시장 시스템이나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양상으로 획일화된 기존의 소유 질서를 공유(共有)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관계 맺기'로서의 공유(共有)의 질서는 새롭게 만들어져야하는 것만은 아니다. 커먼즈론에서는 커먼즈의 역사적 기원으로 영국에서 1215년 최초 선포된 <자유대헌장(Magna Carta)>과 특히 그 일부인 <삼림 헌장(Carta de Foresta)>(1217)을 들고 있다(피터 라인보우, 2008[2012]; 데이비드 볼리어, 2015[2018]; 가이 스탠딩, 2019[2021]). 가이 스탠딩(2021)에 따르면, <삼림헌장>은 "자유민(common man)에게 생계수단에 대한 권리, 원자재에 대한 권리,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수준의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한 최초의 문서이다.31) 피터 라인보우(2012) 역시 <삼림헌장>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 이전에 '숲'이라는 공동자원(공유지)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실제로 존속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문헌학적 근거이며, 나아가 이러한 자율적 자기통치에 기반한 정치적 체제의 구성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 말한다.32)

<삼림헌장>에 따르면, 당시 공유지로서의 '숲'은 누구에게도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없었으며, 평민(commoner)들이 이곳에서의 산물 채취를 통해 생 계를 꾸릴 수 있는 생계자급 권한(estovers)이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공동의 영역'이었다.

"에스토버스"란 무엇인가? (중략) "에스토버스가 숲에 한정될 때 그것은 집수리권, 산울타리권, 쟁기권을 의미한다." 여기서 '권'은 일반적인 목재하고만 연관된 것이 아니다. 밭이나 산울타리에도 해당된다. 땔감권이나산울타리권은 땔감 및 담 구축에 들어갈 몫이다. 집수리권과 마차권은 집을 짓고 도구를 만들 권리이다. 코크는 에스토버스가 생계자급, 영양섭취

³¹⁾ 가이 스탠딩, 같은 책, 32쪽.

³²⁾ 피터 라인보우, 정남영 역,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 즈』 (서울: 갈무리, 2012), 29~49쪽.

및 섭생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해서 **에스토 버스란 관습에 따라 숲에서 채취하는 것을 가리키며 종종은 생계자급 일반을 가리킨다.**³³⁾ <피터 라인보우, 『마그나카르타 선언』> (강조는 논자)

이때, '관습에 따라' 숲에서 산물을 채취하는 권리로서의 '에스토버스'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생존에 적합한 양만큼을 취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소유권과 더불어 소유에 대한 제한권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유지로서의 숲이 커먼즈일 수 있었던 것은 이를 매개로 공동체 차원의 자치적인 호혜 관계가 수립되며, 이를 통해 구성원 모두의 생계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인 동시에 물질적 사물"이었기 때문이다.34) 그러므로 숲은 단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치된 공간'으로서의 공유지가 아니라 소규모 공동체들이 자율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공동자산'의 공간으로, 당시 국가규모의 전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35) 국가 역시 이러한 소규모 공동체의 자립권을 보장함으로써 공적(公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삼림현장>의 사례는 평민 계급과 국가체제 간 권력 관계의 긴장이 생산적으로 성립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의미도 갖는다(가이 스탠딩, 2021). 이처럼 공(公)과 사(私)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된 공공적(公共的) 영역으로서의 커먼즈는 이미 실현된 바 있는 대안적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커먼즈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³³⁾ 같은 책, 70쪽.

³⁴⁾ 같은 책, 22쪽.

³⁵⁾ 데이비드 볼리어(2018)는 "비극"이라는 잘못된 통념(같은 책 2장)이라는 제목으로 '공유지의 비극'의 오류를 지적한다. 하딘이 제시하고 있는 '공유지'는 "진입이 개방된 열린 접근(오픈 액세스 혹은 자유이용) 체제"로 소위 '주인 없는 땅'일 뿐,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는 공동자원으로서의 공유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50~51쪽). 가이 스탠딩(2021) 또한 "공유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합의한 규칙과 실천이 공유지의 본질"이라며, 하딘 역시 죽기 얼마 전 자신의 논문을 "관리되지 않은 공유지의 비극"으로 불렀어야 한다는 고백을 했다고 지적한다(65쪽). 이들 모두 '합리적 개인의 효율적 이익 추구'를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에서의 "호모 에코노미쿠스 Homo Economicus" 중심적 인간관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은 합리적 개인에 의해 초래되는 '정말로 심각한 비극'은 "공유재의 비극이 아니라, 시장의 비극"이라고 강조한다(데이비드 볼리어, 같은 책, 54쪽 참조).

노스탤지어적 움직임과는 구분된다. 오히려 공공적 영역으로서의 커먼즈를 되살리는 것은 근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시장이나 국가에 의한 '관리'에 익숙해진 '수동적 삶'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능동적 삶'으로 향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커먼즈론은 기존의 자본 중심적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하나의 "전환 담론"의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안새롬, 2020).

최근 한국에서는 자본에 의해 훼손된 일상을 보다 '삶다운 삶'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험과 실천으로서 커먼즈 운동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차원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나 재개발로 인해 폐허가 된 장소의 일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각종 공간 점유 운동(squatting)의 형태로 예술 활동과 결합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자연자원을 매개로 한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지역적 정체성(locality) 자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박배균 외, 2021; 심소미, 2020; 백영경, 2017; 윤여일, 2017).36) 이러한 커먼즈 운동은 반(反)자본주의적 '투쟁'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공동체 내의 일상적이고 자생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³⁶⁾ 박배균·이승원·김상철·정기황 편. 『커먼즈의 도전: 경의선공유지운동의 탄생. 전 환, 상상』 (서울: 빨간소금, 2021); 심소미, 「'더힐'을 흠모하는 세계에서: 아트 커먼즈와 도시 커먼즈」, 『문화/과학 101호』 (2020년 3월호); 백영경, 같은 글; 유여일, 「강정, 마을에 대한 세 가지 시선: 커먼즈에서 커머닝으로」, 『환경사회 학연구 ECO 21(1)』 (2017년 6월호) 참조. 도시를 기반으로 한 커먼즈 운동은 주 로 도시 공간에서 '내부적으로 쫓겨난(internally displaced)' 장소와 시민들과 연 대하며, "사회적으로 단절된 공유 영역"을 점진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 추 활동으로 이뤄지는 경향을 보인다(박배균 외, 196쪽), 공공미술 및 공공건축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이러한 시도들이 활발한 편이며, 2010년 이후 "소셜 커먼즈, 아트 커먼즈, 커먼즈로 작업하기, 퍼블릭에서 커먼즈로, 커먼즈의 집, 커먼 프랙티 스, 공통의 시간, 공통의 장소들, 커먼 길드, 커먼즈를 창조하기, 공유도시, 집합도 시, 공유 도서관, 커먼즈 컬렉션"등의 전시 및 예술 행사가 열린 것으로 나타난 다(심소미, 2020). 반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커먼즈 운동은 마을공 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적 정체성과 공동체적 유대의 강화를 꾀하며, 특히 제주 지역에서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백영경(2017)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서는 마을숲인 '동백동산'의 공동 관리를 통해 아이와 노인 간의 돌봄 관계 구축 등 마을 내의 공동체적 관계를 강화하고,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는 마을 주 민이 공동 소유한 공동목장을 풍력발전사업에 임대하여 그 수익을 생태자원의 보존에 재사용하고 있다. 또한 윤여일(2017)에 따르면, 서귀포시 강정동에서는 해 군기지 건설로 인한 '구럼비바위'의 훼손 등 공동 자연자원의 파괴 및 주민 간 입 장 차로 인한 갈등을 마을 내 소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의 유대를 재구성 해나가고 있다.

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커먼즈 운동이 현재 우리의 일상을 '긍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커먼즈론이 자본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 삶의 현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 일상 속에는 커먼즈적 요소(the common)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확장해나가는 '시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커먼즈 운동'은 '자본의 운동'에 "틈"을 만들고 벌려 자본의 '자동적' 질서를 안에서부터 새롭게 "구상"하려는 시도로, 그동안 "배제되거나 주변화된 가치들을 가시화하고 포착"하여 자본이 독점한 가치 중심의 질서 너머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해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37)

이러한 커먼즈론 내의 여러 움직임은 단지 개인적·집단적 차원에서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운동' 역시 보다 더 윤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동하고, 궁극적으로는 '커먼즈로서의 자본'으로 자본 및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까지 변화시켜나가자는 데까지 닿아있다.38) 그런 점에서 커먼즈에 기반한 사회경제 및 정치적 담론의 재구성은전(前)자본주의적 시스템으로의 회귀나 반(反)자본주의적 영역의 새로운 구축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커먼즈론은 고도화된 자본 중심적 시스템 한가운데에서 현재 시점의 한계를 포착하고, 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비판 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커머닝(commoning)은 이러한 커먼즈를 활성화하고 재생산하는 실천적 행위를 의미한다. 일차적으로 커머닝은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commoner)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실행함으로써 공동의 자원을 재생산하는 조직 활동이자, 이를 통해 커먼즈를 확보하는 실천으로 정의된다(정영신, 2020; 이광석, 2020 등).39) 그러나 커머닝은 단지 주어진 기존의 자원을 분배하는 것으

³⁷⁾ 이광석, 같은 글, 57쪽; 박배균 외, 같은 책, 196쪽.

³⁸⁾ 데이비드 볼리어, 같은 책, 201~207쪽. 그는 "사실상 모든 공유재(커먼즈)는 어느 정도는 국가나 시장에 의존하는 이중적인 존재"라고 보며, 이러한 현실적 조건속에서 커먼즈가 시장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이 꼭 자본주의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그는 "시장이 사회적 관계와 지역적 책임을 갖게 됨으로써, 공동체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탐욕스러운 윤리에 휘말리지 않고 많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고 보며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커먼즈로서의 시장'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³⁹⁾ 정영신,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23(4)』 (2020년 11월)

로서의 '수동적 공유(sharing)'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것을 함께 구축해가는 '능동적 재생산 활동(commons-making)'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데이비드 볼리어, 2018). 즉, 커먼즈를 선험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공동자원을 유지하고 확장해가는 '사회적 산물'이라 정의한다면, 커머닝은 이러한 사회적 산물로서의 커먼즈를 (재)생산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이러한 커머닝은 커먼즈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관리 행위'임은 물론 일상속에서 커먼즈적인 요소(the common)를 발견하고 확장해가는 '재생산 행위'로서의 양 측면을 모두 가지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공동체 질서 또한 재구성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커머닝은 경제적으로는 커먼즈, 즉 자본 중심의독점적 가치 질서에 경합할 수 있는 다른 가치를 생산하는 장(場)을 구성하는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이며, 이러한 커머닝 과정을 통해 "집합적주체(collective subject)를 창출"하는 정치적 행위로서의 의미도 갖는다.40)이에 대해 백영경(2017)은 커머닝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커먼즈를 통해자원을 얻고 주체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원즉 커먼즈를 확보하고, 공동체를 능동적으로 구성 및 재구성하는 전 과정"으로 요약한다.41)즉, 커머닝은 커먼즈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커먼즈 자체를생산하는 행위 전반을 이르는 '커먼즈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이러한 커머닝없이 커먼즈는 존재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커머닝은 커먼즈를 구성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의 독점적 질서와 경합하며 커먼즈의 경계를 계속 확장해나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수행적 (performative)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1990[2008])에 따르면, 수행성(performativity)이란 하나의 "의미화 실천"이다. 42) 그는 '행위하다'를 뜻하는 동사 '수행하다(to perform)'는 "사회적으로 이미 설정된 일련의 의미들을 재실행하는 동시에 재경험하는 것"을 의

⁴⁰⁾ Massimo De Angelis·Stavros Stavrides, <On the Commons: A Public Interview with Massimo De Angelis and Stavros Stavrides> 《An Architektu r》 (June 2010),

https://www.e-flux.com/journal/17/67351/on-the-commons-a-public-interview-with-massimo-de-angelis-and-stavros-stavrides/; 권범철, 같은 글, 44쪽.

⁴¹⁾ 백영경, 같은 글, 28쪽.

⁴²⁾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서울: 문학동네, 2008), 330쪽.

미하며, 수행적 행위를 통해 규범으로 제도화된 질서에 개입하고 나아가 기존의 질서 자체를 변형하는 효과까지 산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43) 즉, 수행적 행위란 단지 사회적으로 주어진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재실행과 재경험 등의 재연을 통해 기존의 질서에 개입하고 나아가 그 질서속에서 형성된 정체성 자체를 '재구성'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행적 행위는 기존의 질서를 재연한다는 점에서 "자기지시적"인 동시에 바로 이 행위를 통해 현실이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현실구성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에리카 피셔-리히테(Erika Fischer-Lichte, 2017[2019])에 따르면, 이 둘 사이의 경계는 행위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재설정되며, 이를 통해 기존 제도 및 질서에 변화가 촉발될 수 있다는 데 '수행성' 개념의 역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44)

'수행적 행위'로서의 커머닝 역시 커먼즈 자체의 영역을 보존하고 그 질서를 강화해나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자기지시적'인 동시에, 규범화된 자본의질서 속에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적 재생산 질서를 발굴하고확장해나가는 개입 행위라는 점에서 '현실구성적'이라는 특징도 갖는다. 그러나 이에 멈춘다면, 커머닝은 단지 커먼즈의 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체성 표현'행위에 그치고 만다. 중요한 것은 '수행으로서의 커머닝'이 자기지시성과 현실구성성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지점에서 역동적 힘을 발할 수 있다는 점. 즉 기존의 자본 중심적 시스템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⁴³⁾ 같은 책, 348~350쪽. 버틀러는 특히 '젠더'를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수행적 행위의 결과물로 본다: "젠더는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작인의 장소나 안정된 정체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시간속에 희미하게 구성되고, 외부공간에 제도화되는 어떤 정체성이다."(349쪽)

⁴⁴⁾ 에리카 피셔-리히테, 김정숙 역, 『수행성의 미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9), 43~56쪽. 그는 J.오스틴의 '수행성'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스틴에게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다. 언어철학적 의미에서 거의 혁명적일 정도로 새로운 발견을 했기 때문이다. 이 발견이란 바로 언어가 사실관계를 묘사하거나 한 가지 사실을 주장할 뿐 아니라, 행위를 이행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 (이) 문장은 발화된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기지시적이며, (이) 문장이 말하는 사회적 현실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현실구성적이다. (…) 발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며 변환을 불러일으킨다."(44~45쪽) 특히 그는 오스틴과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지시성'과 '현실구성성' 사이의 "이분법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각 개인은 사회적·제도적 질서속에서 그것을 감수하면서 수행적 행위를 이행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지배적질서와 변별되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라, 바로 이 시스템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그것과 길항관계를 맺으며 커먼즈의 정체성을 재구성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수행으로서의 커머닝이란 자본 및 자본의 운동 자체에 대한 부정이기보다 그것의 '방향'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이며, 커머닝의 과정을 통해 자본의 정체성까지도 커먼즈로 재형성해나가는 구체적 실천들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커머닝을 단지 커먼즈론의 '이념'을 재연하는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조건에 의문을 제기하고이를 커먼즈적 관점으로 재구성해나가는 이행 과정, 즉 수행적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할 때, 커머닝에 기반한 커먼즈론 역시 반(反)자본주의적 대항 및 대안 담론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본 중심적 질서에 포섭된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를 재구성하고 변환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행적 기획'으로 볼 수 있다.45)

이처럼 커먼즈가 수행으로서의 커머닝을 통해 재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하면, 공동체(community) 역시 커먼즈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동질적 (homogeneous) 주체들의 집단으로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동체는 커머닝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총칭하며, 그런 점에서 이질적(heterogeneous) 객체들의 집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를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 정의하는 데 안젤리스(2019)는 인간이 사회적 신체의 일부라는 실존적 조건을 자각하고, 이 조건과 더불어 자기의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능동적인 상호 관계 양식'이 공동체의핵심적 의미라고 말한다.46) 즉, 공동체는 이미 주어진 유·무형적 공동자원의관리를 위해서만 기능하는 '자생적 이익 집단'이나 특정 이념의 실현을 위해형성되는 '정치적 이념 집단'이 아니라, 기존에 주어진 질서에 대해 의문을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가운데 커먼즈의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연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脫)커먼즈화' 현상(decommoning, gated commons)은 공동자산으로서의 커먼즈의 의미를 단순히 '집단적 소유물 (common property)'로 왜곡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때 공동체의 역할 역시

⁴⁵⁾ Stavros Stavrides는 본고 각주 40)의 인터뷰에서 커먼즈론의 성격을 "담론적 몸짓(discursive gesture)"일 뿐만 아니라 담론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수행적 몸짓(performative gesture)"이라고 강조한다.

⁴⁶⁾ 맛시모 데 안젤리스, 같은 책, 437~443쪽.

'이익 집단'으로 축소되어 단지 사적 이익이 대규모화된 집단적 이익을 유지하는 데 그칠 수 있어 문제적이다.47)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공동체는 커머닝을 수행하는 주체이자 커머닝을 통해 형성되는 객체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공동체는 단순히 동질성이나 유사성에 기반하여 '우리의 커먼즈'를 지키는 폐쇄적 '집단(group)'만이 아닌, '모두의 커먼즈'를 확장해가는 시도 속에서 개별 주체들의 차이가 고유한 정체성으로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집합적 주체(collective subject)'에 더 가깝다. 또한 공동체의 의미가 능동적이고 생성적으로 이해될 때, 커먼즈 역시 개별 주체들의 차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적 질서가 도출될 수 있는 "공통적 장소(common ground)"로 그 외연이확장될 수 있다.48) 그러므로 '커먼즈(commons)-커머닝(commoning)-공동체(community)'는 수행적 행위로서의 커머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자본 중심적 질서 속에서 야기된 현재의 위기 국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적이며 유기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Ⅱ.2. 이론적 논의들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부(富)"로서의 커먼즈는 종전의 시장중심주의나 국유화라는 두 갈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길'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커먼즈가 지닌 공공자산으로서의 가치자체보다는 그러한 가치가 생성될 수 있는 메커니즘, 즉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커먼즈를 관리하고 나아가 자본의 질서 속에서 그 영역을 점차 확장해나가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49) 그런 점에서 커

⁴⁷⁾ 많은 커먼즈 이론가와 활동가들은 커먼즈가 시장의 상품화 전략으로 전유되거나 '폐쇄성을 띤 공유재'로 의미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 이를 '탈(脫)커먼 즈화 현상', '빗장 커먼즈(gated commons)', '인클로저된 커먼즈'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안새롬, 2020; 권범철, 2020; 심소미, 2020)

⁴⁸⁾ Stavros Stavrides는 위 인터뷰에서 '공통적 장소(common ground)'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Conceptualizing commons on the basis of the public, however, does not focus on similarities or commonalities but on the very differences between people that can possibly meet on a purposefully instituted common ground."

⁴⁹⁾ 사이토 고헤이, 김영현 역,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

먼즈는 기후변화 및 양극화의 심화 등 자본의 질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최근 커먼즈론은 학계뿐만 아니라 도시 및 지역의 생활공동체 강화,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경제조직 활성화, 환경운동 및 커뮤니티 기반 예술활동 등 시민의 '참여'와 이를 통한 구체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영역에서도 IT 기술 발전에 힘입은 커먼즈 영역의 확장이 각종 플랫폼 공유경제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있다. 이처럼 커먼즈론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으로 정영신(2020)은 "이론적·학술적 원천, 기술혁신과 인터넷의 확대, 사회적·정치적 조건의 변화"로 제시한 바 있다.50)

대다수 커먼즈론 연구자들은 1990년 엘리너 오스트롬(Eliner Ostrom)이소규모 공동체에 의한 공동자원의 합리적 관리 가능성을 증명한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 of the Commons)』을 통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시작했다고 말한다(데이비드 하비, 2011[2017]; 데이비드 볼리어, 2018; 정영신, 2020 등).51)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는 1968년 게릿 하딘(Garrett Hardin)이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52)에 대하여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 반론(反論)을 제기하며, 집합행동의 실현 가능성을 비관한 주류경제학적 관점을 극복한 이론이다. 주지하듯이,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가설의 주요 내용은 모두에게 열린 목초지는 합리적인 개별 목동들에 의해 황폐화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며, 이 가설은 시장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강화 또는 국가 개입을 통한 공유자원 관리의 강화를 옹호하는 주요 근거로 오랫동안 활용되었다.

엘리너 오스트롬(1990[2020])은 '공유지의 비극' 가설이 이후 「죄수의 딜 레마(The Prisoner's Dilemma)」, 「집합행동의 논리(The Logic of

⁽고양: 다다서재, 2021), 144~145쪽.

⁵⁰⁾ 정영신, 같은 글, 239쪽.

⁵¹⁾ 데이비드 볼리어, 같은 책, 48~67쪽; 데이비드 하비, 한서린 역, 「커먼즈의 미래: 사유재산권을 다시 생각한다(The Future of the Commons)」 『창작과비평』 (2017년 가을호), 54~64쪽; 정영신, 같은 글, 239~240쪽.

⁵²⁾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968), pp. 1243~1248. 커먼즈론자들의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에 대한 오류 지적에 관해서는 본고 각주 35)를 참조할 것.

Collective Action)」로 이어지면서,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집합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말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회적 딜레마로서의 '무임승차자 문제 (Free-rider problem)'로 다루어졌다고 지적한다.53) 이와 같은 주류적 관점에 반해 오스트롬은 장기간의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공동자원의 이용에 참여하는 이들이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공동자원 관리규범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사유재산권 강화나 정부 규제라는 이분화된 해결책을 넘어 제3영역에서도 실행 가능한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후 경제학과 행정학, 인류학 등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집합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연구로도 이어졌다(정영신, 2020).

그러나 커먼즈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기술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인터넷망의 사용자들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 크다 (데이비드 볼리어, 2018; 정영신, 2020). 웹상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 (sharing)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저작권 및 특허권 설정 등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 '커먼즈'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커먼즈'는 오픈 액세스 및 파일 공유 시스템, 위키피디아 및 각종 아카이브 구축 등 대안적 생산양식(peer to peer(P2P), 동료생산)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정치적 변화까지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이 흐름 속에서 커먼즈론은 "자유주의적 커먼즈론"과 "개혁주의적 관점"으로 발전하기도 했다.54)

즉, 자유주의적 커먼즈론(David Bollier 등)에서는 시장이나 국가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환경적 문제 등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개인들의 연대에 기반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 반면, 개혁주의적 커먼즈론 (Michel Bauwens 등)에서는 P2P 생산양식을 활성화함으로써 협력적 거버년스(governance)의 구축, 즉 "시장의 윤리적 전환(ethical market)과 국가의파트너십 강화(partner state)"를 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데이비드 볼리어, 2018; 정영신, 2020; 안새롬, 2020)55).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관리론'이 오히려 커먼즈를 '제도화'함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⁵³⁾ 엘리너 오스트롬, 윤홍근·안도경 역,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20), 21~65쪽.

⁵⁴⁾ 정영신, 같은 글, 241쪽.

⁵⁵⁾ 데이비드 볼리어, 232~240쪽; 정영신, 같은 곳; 안새롬, 같은 글, 346쪽.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으며, 디지털 커먼즈 및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통해 일상 속 실천과 창의적인 실험으로 커먼즈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질서 또한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이라 전망한다.

이처럼 "자유주의 및 개혁주의적 커먼즈론"(또는 "수정적 커먼즈론")에서는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커먼즈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이탈리아 자율주의 맑시즘 및 페미니즘 진영에서의 "급진주의적 커먼즈론"(또는 "변혁적 커먼즈론")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커먼즈의구축과 심화가 필요하다고 본다(정영신, 2020; 안새롬, 2020; 권범철, 2020).56) 이들은 이미 커먼즈로서의 물과 공기가 상품으로 판매되는 '탈(脫)커먼즈화'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볼 수 있듯, 신자유주의가 심화될수록 커먼즈가 오히려 자본의 생산력 강화 수단으로 전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진단한다. 이에 '급진주의적(변혁적) 커먼즈론'에서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이나 생산의 기계화에 의존하는 것이아니라 지역 특유의 지식과 기술을 재가치화하면서 좀 더 협력적으로 재생산 노동 형태를 창출"할 것, 즉 자율적 생산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확장해나가는 보다 급진적인 대항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57)

이 중 자율주의 맑시즘 진영(Antonio Negri, Michael Hardt, Massimo De Angelis 등)에서는 커먼즈의 생산 과정을 통해 삶 속에서 "자율적 자기 통치"가 가능하다고 보며⁵⁸⁾, 이것이 '자본의 종획(독점, enclosure)'에 맞서는 '삶정치'(마이클 하트·안토니오 네그리, 2014[2020])이자 '자본과 다른 것이

⁵⁶⁾ 커먼즈론의 구분에 대한 기준 및 용어는 논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다. 정영신 (2020)은 커먼즈 운동의 갈래를 "자유주의적·개혁주의적·급진주의적 관점"으로 분류하며(241~242쪽), 안새롬(2020)은 이론적 관점의 발달 양상을 기술적 (descriptive) 커먼즈론·수정적 커먼즈론·변혁적 커먼즈론으로 정리한다(339~352쪽). 권범철(2020)은 자원관리 제도로서의 커먼즈론(오스트롬)·P2P 생산모델에 기반한 대안운동으로서의 커먼즈론(데이비드 볼리어, 미셀 바우웬스, 실케 헬프리히)·자율주의 및 페미니즘에 기반한 급진적 반(反)자본운동으로서의 커먼즈론(조지 카펜치스, 실비아 페데리치 등)으로 분류한다.

⁵⁷⁾ 권범철, 같은 글, 32~39쪽.

⁵⁸⁾ 안새롬, 같은 글, 350쪽. 안새롬(2020)은 게릿 하딘과 오스트롬을 비롯한 커먼즈론 전반에 대해 이론적 관점으로 정리한다. 특히 '변혁적 커먼즈론' 내 자율주의 맑시즘 및 맑시스트 페미니즘에 기반한 상이한 입장 차에 대해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급진적·변혁적 커먼즈론의 관점을 정리했다.

되기'로서의 고유한 '가치실천'(맛시모 데 안젤리스, 2019)이라고 정의한다. 하트와 네그리는 다중(multitude)의 창조적 역량이 출구 없는 자본의 '제국'을 돌파하는 힘이며, 이들이 실행할 '삶정치'의 가능성을 "사회적 생산의 결과물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차후의 생산에 필요한 것들 - 지식, 언어, 코드, 정보, 정동(affect) 등 - "의 '비물질 커먼즈'에 기반하여 "공통적인 것 (the common)"을 재생산하는 '수평적 소통 네트워크'에서 찾는다.59) 반면 데 안젤리스는 이러한 네그리·하트의 '비물질 노동' 역시 임금을 받는 노동인한 "자본의 척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하며,60) 자본의 '이해관계' 만을 위한 가치실천과 다른 '사회적 관계맺기'로서의 가치실천을 통해 "자본주의에도 불구하고 구성적인 과정으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61)

자율주의 페미니즘 진영(Silvia Federici, George Caffenzis 등)에서는 보다더 급진적으로 자본 축적의 시발점 자체를 커먼즈 영역으로 재편하기를 시도한다. 이들은 자유주의나 개혁주의적 커먼즈론의 입장, 즉 시장과 국가의파트너십 강화나 P2P 생산양식에 의한 커먼즈의 활성화 등의 대안은 언제든지 커먼즈 영역이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전유될 위험이 있음을 경계한다. 그중 실비아 페데리치(2013[2020])는 '시초 축적'이라고 불리는 자본 축적의영점(ground zero)이 가정에서의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있다고 본다. 근대산업자본주의 형성 과정에서 남성들은 토지에 대한 '인클로저'로 생산수단을상실했지만, 이는 동시에 여성에게 가사노동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재생산 노동에 대한 억압(독점)을 동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의축적 구조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젠더화된 일상의 구조물을 해체하고집과 일상을 커먼즈로 재구축"하는 한편, 일상 속에서 협력 및 돌봄 등과같은 비임금 재생산 노동을 활성화하여 "관계와 활동을 (임금)노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62) 조지 카펜치스 역시 오스트롬이 제시

⁵⁹⁾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정남영·윤영광 역, 『공통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서울: 사월의책, 2020), 9~25쪽. 네그리와 하트는 '커먼즈'와 '공통적인 것'을 구분하며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개념을 사용한다. 커먼즈는 전(前)자본 주의나 비(非)자본주의적인 과거 '공유지'로의 회귀적 뉘앙스를 띤다고 지적하며, 이에 반해 '공통적인 것'은 "커먼즈의 새로운 구성주의적 발전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광석(2020), 각주 3) 참조)

⁶⁰⁾ 맛시모 데 안젤리스, 같은 책, 421쪽.

⁶¹⁾ 같은 책, 436~437쪽.

한 '커먼즈의 제도화'나 미쉘 바우웬스가 대안으로 제시한 'P2P 생산양식'도 자본의 축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친(親)자본주의적 커먼즈'와 '반(反)자본주의적 커먼즈'를 구분하고, 전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권범철, 2020).

이처럼 커먼즈론에서는 집합행동의 합리적 가능성에 기반한 커먼즈의 자율적 관리제도의 활성화, 기술 발전에 따른 대안적 생산양식(P2P)에 기반한 기존 시스템의 점진적 변화, 자본과의 길항관계 속 커먼즈 영역의 확장을 통한 자본주의의 극복 등 커먼즈를 둘러싼 기존 질서와의 관계 양상과 커먼즈를 통한 개입의 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근대 자본주의와 함께 고착된 시장과 정부, 나아가 시장국가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지형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이 해결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커먼즈론에서는 공(公)과 사(私)의 영역 모두에 걸쳐있는 공공적(公共的) 영역으로서의 커먼즈는 단지 또다른 제3의 방안으로서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공성(公共性)을 통해 기존 질서 전반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가진다고 강조한다.

Ⅱ.3. '유토피스틱스적 실천'으로서의 커먼즈론

커먼즈는 자본 중심적 질서와 '뒤얽힌' 채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서 자본 혹은 국가와 커먼즈의 경계가 따로 나뉘어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자본이나 국가 역시 '사회적 관계'라는 점에서커먼즈의 한 종류로도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Massimo De Angelis & Stavros Stavrides, 2010). 다만 문제는 자본의 자기 축적, 즉 이윤의 확대재생산이라는 자본 고유의 가치실천이 다른 모든 영역의 삶을 지배하는 동질적 가치 척도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본 자체가 문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 중심적 질서를 유일한 가치 체계로 인식하도록 포섭하고 있는

⁶²⁾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 역, 『혁명의 영점』 (서울: 갈무리, 2020), 17쪽, 251~252쪽.

자본주의 하에서의 '가치적 독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해 데 안젤리스는 "자본은 인간 및 비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스며들기를 열망하며 그 모든 영역을 자신의 행위 양식으로, 따라서특유의 사회적 관계로, 즉 사물을 가치화하고 그 결과 사물의 질서를 만드는 자신의 방식으로 식민화한다"고 비판한다.63) 예컨대 일상 속 '좋음'과 '나쁨'이라는 가치 선택은 많은 부분 시장적 가치 척도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게 '훈육'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커먼즈 영역의 확장은 단지 반(反)자본주의 진영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커먼즈 확장의 핵심은 자본중심적 질서와 '협상(negotiation)'할 수 있는 비(非)자본적 질서의 영역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Massimo De Angelis & Stavros Stavrides, 2010; Stavros Stavrides, 2015).

우리의 외부는 자본과 다른 것이 되기의 과정이며 따라서 무한한 축적 과정과 그중에서도 종획 과정들이 극복해야 하는 장벽으로 나타난다. 이외부가 구체적인 투쟁들과 주체성들의 구체적인 관계 맺기에서 출현하기때문에 우발적이고 맥락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외부의 출현이 그것의 지속과 재생산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내가 말하는 요점은 간단히 다음과 같다. '우리의 외부'는 공통장의 생산 영역이다.64) <맛시모 데 안젤리스, 『역사의 시작』> (강조는 논자)

데 안젤리스는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자본주의'라고 부를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비자본주의'를 잊고 있다"고 지적한다.⁶⁵⁾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맑스가 '공장(factory)'을 "자본주의적 축적의 공간인 동시에 노동자 간의 사회적 협력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분석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공장의 "상품 생산 과정에는 '노동력(labor power)'과 '노동(labor)'이 공존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⁶⁶⁾ 즉, 상품 생산 과정 일반에는 사회적 활동으로서

⁶³⁾ 맛시모 데 안젤리스, 같은 책, 88쪽.

⁶⁴⁾ 같은 책, 418쪽.

⁶⁵⁾ 같은 책, 81쪽.

⁶⁶⁾ Massimo De Angelis·Stavros Stavrides, <On the Commons: A Public Interview with Massimo De Angelis and Stavros Stavrides> 《An Architektu

노동이 투여되지만, 통상적으로 이 활동은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노동력'으로 인지될 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호혜적 관계 등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행위, 즉 커머닝으로서의 '노동'으로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일상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관계 맺기 행위, 즉 사회적 재생산 행위들이 '자본의 재생산'의 시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때, '자본과 다른 것이 되기의 과정'으로서의 '외부'의 생성은 단지 "시장적 메커니즘에 의한 맹목적인 상호작용"만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들의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절합, 즉 의미, 가치를 생산하고 궁극적으로는 공통장을 (중략) 창출하면서 타인과 능동적으로 교류하는 일"로부터 시작할수 있다.67) 즉, 자본 중심적 관계에 종속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와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발할 수 있는 개개인의 주체적이고 집합적인 역량에 따라 하나의 '공통장'으로서의 커먼즈는 자본과 경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영역으로 '우연적이고 맥락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외부'는 어떤 공동체적 이념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자각한 주체들의 "살아있는 관계적 실천"에 의해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68) 그렇기에 커먼즈의 속성으로서 '외부성'은 타자를 향해 열린 마음, 즉 '타자에 대한 환대'도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다. 즉, 외부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타자성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는 국가와 시장을 포함한 기존의 사회적 관계 질서 전반의 재구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사회적 관계들이 마주치는 장으로서의 커먼즈는 "어디에도 없지만(no-where), 지금 여기(now-here)"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유토피아(utopia)"라고도 할 수 있다.⁶⁹⁾ 하지만 이러한 '유토피아'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만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자본과 다르게 되기'로서의 커먼즈적 외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일체의 자본중심적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질서의 한가운데에서 자본의 자기 재생산 질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자각'하고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주체로서 '개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r》 (June 2010)

⁶⁷⁾ 맛시모 데 안젤리스, 같은 책, 438~439쪽.

⁶⁸⁾ 같은 책, 417쪽.

⁶⁹⁾ 같은 책, 440쪽.

점에서 커먼즈론의 잠재적 가능성은 커먼즈가 새로 발명되거나 구축되어야하는 '비현실적' 상상 내지 환상으로서의 '유토피아적' 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커먼즈를 발굴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현재의 자본주의가 초래한 위기들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보는 '현실적' 방법론이라는 데 있다. 자본주의 팽창과 이로 인한위기에 대한 대안적 담론으로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유토피스틱스 (Utopistics)'를 제시한 바 있다(Immanuel Wallerstein, 1998).

유토피스틱스(Utopistics)는 역사적 대안(historical alternatives)들의 진지한 평가이며, 가능한 역사적 체제들의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을 향한 우리의 판단 행위이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체제들과 이러한 체제들의 가능성에 대한 한계, 그리고 인간의 창조성에 허용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완벽한 (그리고 불가피한) 미래의 모습이 아니며,하나의 대안이자 신뢰할 만큼 더 낫고, 역사적으로도 가능한 (그러나 확실함과는 거리가 먼) 미래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것은 과학과 정치학, 도덕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강조는 논자)

Utopistics is the serious assessment of historical alternatives, the exercise of our judgement as to the substantive rationality of alternative possible historical systems. It is sober, rational, and realistic evaluation of human social systems, the constraints on what they can be, and the zones open to human creativity. Not the face of the perfect (and inevitable) future, but the face of an alternative, credibly better, and historically possible (but far from certain) future. It is thus an exercise simultaneously in science, in politics, and in morality.⁷⁰⁾ <Immanuel Wallerstein, 『Utopistics』>

맑스와 엥겔스가 "유토피아주의"를 "사회주의 사상의 유아기적 단계로 규정"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과학적'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서 볼수 있듯, 오랫동안 '유토피아'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담론, 즉 미래에 대

⁷⁰⁾ Immanuel Wallerstein, "Utopistics: Or Historical Choic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The New Press, 1998), pp.1~2.

한 무비판적 낙관 혹은 가상적 환영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반(反)유토피아론에서는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은 당위적이고 추상적인 논리의 한계 내지 위험성을 강조하며, "유토피아의 원리 자체가 곧 전체주의적"이라고까지 주장한다.71) 이에 대해 자본주의에 대한 '가치비판론(Wertkritik)'을 진행하는 안젤름 야페(Anselm Jappe, 2017[2021])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역시 그 자체로 전체주의적"이며, 나아가지난 역사에서 실제로 실현된 유일한 유토피아가 바로 "자본주의 유토피아"라고 비판한다.72) 그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유토피아론 혹은 반(反)유토피아론이 아니라, 자본중심적 가치 질서에 대한 비판적 인식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볼 때, '유토피아'는 단지 특정한 이념적 지향이라는 축소된 의미만이 아니라 현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뜻하는 의미로 확장해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손철성(2001)에 따르면, 유토피아는 현 사회에 대한 한계 인식 속에서 더불어 미래의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적 동기부여 기제로 활용되거나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해 온 측면도 있으며, 안젤름 야페(2021) 또한실제 정통 맑스주의가 붕괴한 1990년대 이후, 좌파 진영에서 '유토피아'가다시 관심을 받았던 것에 주목한다. 그중 특히 월러스틴은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증식 속에서 이러한 '유토피아'에 담긴 긍정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확장해갈 필요를 주장하며, '유토피스틱스'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유토피스틱스(Utopistics)란 'utopia'에 '-istics'를 붙인 단어로, "본격적으로 개선을 이룰 대안들에 대한 지식 활동"을 의미한다.73) 위에서 볼 수 있듯, 현실에 대한 비판 담론이자 대안 담론으로서의 유토피스틱스는 역사성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대안의 제시(비판적 대안성)와 이 대안들에 대하여 실질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에 기반한 가치적 평가(가치적 합리성)를 포함하는, 삶의 지속을 위한 미래지향적 담론이라 볼 수 있다.74) 즉, '유토피

⁷¹⁾ 안젤름 야페, 강수돌 역, 『파국이 온다: 낭떠러지 끝에 선 자본주의』 (용인: 천년의상상, 2021), 228~235쪽.

⁷²⁾ 같은 책, 232쪽.

⁷³⁾ 월러스틴·백낙청, 「21세기의 시련과 역사적 선택」, 『유토피스틱스』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9), 194쪽; 손철성, 「마르크스의 유토피아론에 대한 비판: 월러스틴의 '유토피스틱스'관점에서」, 제13회 한국철학자연합대회 분과학문 발표회발표논문, 각주 4)에서 출처 재인용.

⁷⁴⁾ 손철성, 「유토피아와 유토피스틱스: 만하임과 월러스틴의 유토피아론 비교」,

스틱스'는 단지 미래를 유토피아적 관점으로 예측하는 '미래학'이 아니라, 현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위기를 역사에 기반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비판 담론'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실천적 지식 활동으로서의 유토피스틱스는 단지방법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대안들이 궁극적 목표와 가치를 판단하는 '실질적 합리성' 차원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토피스틱스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과학, 도덕 그리고 정치학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을 조화시키는 일, 즉, 우리가 수단이라 부르는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결말들이 아닌 우리의 전반적인 목표들에 관한 것이다.

Utopistics is about reconciling what we learn from science, morality, and politics about what our goals should be — our overall goals, not those secondary subordinate ends we call means.⁷⁵⁾

주지하듯이, '실질적 합리성'은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경제와 사회(Wirtschaft und Gesellschaft)』(1908~1913)에서 제시한 중요한 개념으로, '형식적 합리성(formal rationality)'에 대비된다. 베버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이성(rationality)'에 기반한 활동이지만, 이 중 형식적 합리성은 효율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계산적 능력(formal calculability)이라 할수 있는 반면, 실질적 합리성은 경제 활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위로서의 경제 활동의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해 도덕적 가치에 기반하여 평가할수 있는 이성적 역량(value-rational)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베버는 "실질적 합리성은 형식적 합리성을 포함하지만, 이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 놓여있다(Substantive is thus here also a formal, that is, an abstract, generic concept.)"고 말한다.⁷⁶⁾ 월

[『]철학(67)』 (한국철학회, 2001), 171~194쪽. 그는 이 글에서 "월러스틴의 '유토피스틱스'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상의 주요 특징은 1) 대안성, 2) 현실 비판성, 3) 실현 가능성, 4) 진보성"에 있다고 분석한다(185~188쪽).

⁷⁵⁾ I. Wallerstein(1998), Ibid., p.2

⁷⁶⁾ Max Weber, Translated by Keith Tribe, 『Economy and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pp.172~173 §9 참조.

러스틴이 '유토피스틱스'에서 베버를 인용하여 '실질적 합리성에 기반한 대안의 마련'을 강조하는 것은 과학과 정치만으로는 현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모두의 삶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과학적·정치적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궁극적 가치에 기반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즉 '실질적 합리성'까지 유토피스틱스에 포함한 것이다(손철성, 2001).

『Utopistics』(1998)의 마지막 장에서 월러스틴은 유토피스틱스는 결국이러한 실질적 합리성에 대한 탐구이자, 더 나은 사회(the better society)를 위한 노력이라고 역설한다.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world economy)의 발전은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의 세계 체제(world systems)의 고착화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화'가 더 심화되고 이로 인해 인간 삶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한 그는 바로 그 반대편에 "인간의 창조성(human creativity)" 과 "인간성의 역사(history of humanity)"가 있어왔다고 강조한다.77)

그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모순이 현실의 여러 국면에서 실제 삶과 죽음을 가르기도 하는 위기로 드러나는 현시대를 역사적인 "체제 이행기(the period of transition)"로 진단하며, 바로 지금 "더 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체제(more substantively rational historical social system)" 마련을 위한 정치와 과학, 도덕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78) 나아가이 협력은 세계 역사에 관해 축적된 지식에 기반하여 "보다 더 지성적인 성찰(more intelligent reflection)과 보다 더 의식적인 의사 결정(more conscious decision making)" 과정을 통해 "신속하게(not only what but when)"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다.79) 이러한 '유토피스틱스적 실천'에 대하여 월러스틴은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유토피스틱스에 대한) 이 분석은 앞으로의 결과가 더 좋을지 혹은 더 나 쁠지에 대한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

⁷⁷⁾ I.Wallerstein, Ibid., p.82; '외부화'의 심화가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이행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월러스틴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이토 고혜이, 『지속 불가능자본주의』, 53~55쪽 참조.

⁷⁸⁾ Ibid., p.82.

⁷⁹⁾ Ibid., pp.83~84.

게 더 좋은 구조들과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전략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시도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그러니, 동아프리카 사람들이 말하듯, '단결하라(*harambee*)!' (강조는 논자)

This analysis is neither optimistic nor pessimistic, in the sense that I do not and cannot predict whether the outcome will be better or worse. It is, however, realistic in trying to stimulate discussion about the kinds of structure that might actually serve us all better and the kinds of strategies that might move us in those directions. So, as they say in East Africa, *harambee!* 80)

이처럼 월러스틴의 유토피스틱스론은 분석적 지식 활동을 통한 신속한 대안의 마련, 이러한 대안의 지향에 대한 이성적 검토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섣부른 낙관이나 비관이 아닌, 그 너머를 모색하는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위기 국면의 극복을 향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일 수 있지만, 간학문적 현실 분석이라는 협력적 지식 활동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유토피스틱스론은 자본주의적 질서하에 놓인 일상 속에서의 실천을 통해 자본의 확대재생산 질서를 점차 사회적 재생산 관계로 변환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커먼즈론과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첫째, 커먼즈의 역사적·문헌학적 기원을 추적한 데서 볼 수 있듯, 커먼즈론은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사례에 근거하여 자본주의의 독점적 질서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비판적 대안성), 둘째, 대다수커먼즈 이론가들이 「공유지의 비극」의 오류와 종전의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적 인간관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커먼즈론에서는 각 개인의 이성적 역량을 '계산적 합리성'에 한정하기보다 모두의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합리성'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가치적 합리성).

또한 커먼즈론에서 강조하는 '일상성(everydayness)'은 커먼즈론이 단지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학문적 담론 중 하나가 아니라, 누구나 바로 지금

⁸⁰⁾ Ibid., p.90.

이곳에서 실천할 수 있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만 커먼즈의 영역을 현실화시 켜나갈 수 있는 '참여적이고 수행적인 방법론'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즉, '유 토피스틱스적 실천'으로서의 커먼즈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상 낙원으로서 의 유토피아론이나 소규모 자족적 공동체만을 위한 노스탤지어적 담론이 아 닌, 자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도 그러한 현 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수행적 개입 행위를 통해 자본중심적 질서에 포섭 되지 않고서도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천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사회문화적 커먼즈로서의 언어와 문학

Ⅲ.1. '생산양식'과 사회문화적 커먼즈

커먼즈 이론가 데이비드 볼리어(2015[2018])는 커먼즈의 유형을 자연자원과 같은 '자급 커먼즈', 씨앗은행 및 감자공원 등의 '토착민 커먼즈', 시간은행, 혈액 및 장기기증 시스템 등의 '사회 및 시민 커먼즈', 해양·대기·전파등의 '국가신탁 및 전지구적 커먼즈' 등 커먼즈의 관리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한다.81) 또한 네그리와 하트(2014[2020])가 '비물질 커먼즈'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서 볼 수 있듯 커먼즈의 물질적 속성에 따라 '물질적 커먼즈'와 '비물질 커먼즈'로 분류가 가능하며, 커먼즈 운동이 이뤄지는 영역에 따라 '자연 커먼즈', '사회 커먼즈', '지식 및 디지털 커먼즈', '도시 커먼즈' 등으로도 나눠볼 수 있다.82)

이처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자원이자 이를 매개로 한 공동체적 실천까지 함의하는 커먼즈는 단지 자연자원을 둘러싼 실천에 국한되지 않으 며,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하나의 생활 방식이자 문화로 경험되고 있 다. 중요한 것은 커먼즈의 종류에 대한 엄밀한 분류라기보다는 이러한 커먼 즈 전반이 선물경제 및 비공식적 협업 등의 "비시장적 사회 교환"과 "새로 운 형태의 집합행동", 즉 사회적 재생산 관계망의 강화를 통해 자본 중심적 질서의 심화를 경계하고자 한다는 점이다.⁸³⁾ 특히 커먼즈의 핵심 메커니즘 이 공동자산과의 '다른 방식의 관계 맺기'라는 커머닝의 수행에 있다고 할 때, 사회문화적 관계망을 통해 비시장적 형태의 사회적 재생산을 추동하는 '사회문화적 커먼즈'는 커먼즈 자체를 추동하는 핵심 커먼즈라고도 볼 수 있

⁸¹⁾ 데이비드 볼리어,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188~214쪽.

⁸²⁾ 이광석, 「커먼즈, 다른 삶의 직조를 위하여: '피지털'로부터 읽기」, 58~59쪽. 이 광석은 커먼즈의 분류를 요약하고, 커먼즈의 영역 층위에 따라 물질/비물질계 및 사이 영역인 "피지털(physics+digital)계" 커먼즈도 제시한다. 이는 IT 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플랫폼(platform) 기반 공유경제 시장의 확산을 지칭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는 공유경제 시장에서의 탈커먼즈화 현상이라할 수 있는 '피지털 자본주의'의 확산에 대해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⁸³⁾ 데이비드 볼리어, 같은 책, 166쪽.

다.

정보·코드·지식·이미지·정동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배적 생산 형태에서는 생산자들이 공통적인 것 — 특히 그 사회적 형태인 소통네트워크들, 정보은행들, 문화적 회로들 — 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함께 더욱 많은 자유를 점점 더 필요로 한다. (중략)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탈중심화된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의 모든 형태는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수반하든 아니든) 자유와 공통적인 것에의 접근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생산되는 것 — 아이디어, 이미지, 정동 등 — 의 내용은 쉽게 재생산(복제)되기 때문에 이를 사유화하거나 공적 통제 아래 두려는 모든 법적·경제적 노력에 강하게 저항하는 경향, 공통적인 되는 경향이 있다.84)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공통체』>

비물질 커먼즈의 활성화를 통한 자본주의 '제국'의 돌파를 강조하는 네그리와 하트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자연자원보다 '정보, 코드, 지식, 이미지, 정동(affect)' 등의 비물질 커먼즈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결과물인동시에 앞으로의 생산의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커먼즈로 강조한다. 즉, 현대자본주의 생산에서 더 중요한 생산 토대가 되는 비물질 커먼즈는 종전의 시장의 사적 소유나 국가의 공적 관리하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감소하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현대적 형태들은 역설적으로 공통적인 것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필요로"하게 되는 상황에놓이게 된다는 것이다.85) 디지털 기술을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채택하면서더욱 발전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가 이미 비물질화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여러 자율적인 소통네트워크들을 통해기존의 폐쇄적인 자본 중심적 가치 질서를 뚫고 나아갈 다중(multitude)적주체성의 형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들의 전망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공동자원으로서 비물질 커먼즈가 지닌 가능성만큼 한계 역시 존재하기도 한다.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손쉬운 재생산(복제) 가능성을 가진 비물질 커먼즈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무한한 자원'이며, 그렇기

⁸⁴⁾ 네그리·하트, 『공통체』, 19쪽.

⁸⁵⁾ 같은 책, 11쪽, 18~20쪽.

에 유형화된 상품에 비해 사회적 파급력 또한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무한함'으로 인해 이미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탈(脫)커먼즈화현상에서처럼 비물질 커먼즈가 더욱 진화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한계도 지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디지털 기술과 수평적소통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발전한 IT 산업과 각종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발전이 오히려 '플랫폼 노동'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이광석, 2020). 그런 점에서 네그리와 하트가 주장하는 바의 '비물질 커먼즈의확장이 소통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다중 주체의 탄생, 나아가 자본주의적 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토대로서의 '공통적인 것'의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대부분 비물질 '노동'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86) 즉,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시스템이 유일한 가치 질서로 작용하는 현실 속에서는 비물질 커먼즈가 지닌 새로운 가능성이 오히려 또 다른 '생산력'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커먼즈의 속성 자체라기보다 이미 주어진 공동자원을 커먼즈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역량, 즉 '커머닝 수행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사회적 재생산을 추동할 수 있는 '커먼즈적 생산양식'으로 전유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의 커머닝 역량을 의미한다. 자본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불구하고, 자본의 질서와 다르게 기능할 수 있는 커먼즈를 생산하는 각종실천 행위를 커머닝이라고 할 때, '생산양식 전반에 대한 커머닝 역량'은 일차적으로 커먼즈의 유지 및 확장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커머닝은 단지 커먼즈를 유지하고 확장해나가는 '자기지시적' 특성이나 그를

⁸⁶⁾ 네그리와 하트 또한 이러한 '다중론'의 한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슬라보예 지젝 역시 "(다중이) 자본에 저항한다고 생각될 때조차 다중의 행동은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적 지배를 반복하고 재생산한다"고 비판한다(같은 책, 246~247쪽). 한편, 네그리·하트와 유사한 자율주의 맑시즘 계열의 데 안젤리스 또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현 국면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외부란, 즉 특정한 본성을 지닌 '내부-외부'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하트와 네그리가 자본주의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비물질 노동'역시 "임금을 받는" 노동인 한, "시장의 훈육 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맛시모 데 안젤리스, 『역사의 시작』, 421쪽).

통해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기능하는 '현실구성적' 특성만을 일면적으로 지니는 것은 아니며, 그럴 경우 커머닝은 단지 '집단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본고 Ⅱ.1에서 살펴본 바의 커머닝이지닌 수행적 특성, 즉 '수행으로서의 커머닝(commoning as performative practice)'이라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수행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커머닝의 이행 과정에서 자본과 커먼즈의 정체성 및 경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를 통해 우리가 이미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자본주의적 가치 질서를 비판적으로 자각하고 그 질서의 재구성까지도 모색해볼 수 있으며, 이때 집합적 주체로서의 '커먼즈적 주체' 역시새로운 공동체의 한 양상으로 포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커머닝이 지닌 '수행성'은 '관계망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커먼 즈론에서 자본의 확대재생산에 경합할 수 있는 사회적 재생산을 활성화시키는 핵심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기존의 자본중심적 질서를 부정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관계의 산물인 자본과도 '다른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생산양식으로서의 '커먼즈적 생산양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인(動因)이며, 이를 통해 커먼즈와 자본은 단순한 이분법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서로 경합하며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질서를 구축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노동 부담에서 인간을 해방하는 데 기계를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노동에 인간을 종속하는 데 기계를 사용한다. 자본주의는 사회적 삶을 부유한 개인들과 그런 개인들의 사회적관계의 발전에 맞추는 대신 모든 사회적 활동을 화폐의 측면에, 개인의부를 늘리기 위한 무한한 충동에 종속시킨다. 모든 상품에 내재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이의 모순은 이런 자본주의적 기계류의 모순된 성격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87) <에르네스트 만델, 『마르크스 캐피탈 리딩 인트로』>

⁸⁷⁾ 에르네스트 만델, 류현 역, 『마르크스 캐피탈 리딩 인트로』 (서울: 이매진, 2019), 46~47쪽.

맑스주의 경제학자 에르네스트 만델(Ernest Mandel)은 칼 맑스(Karl Marx)의 『자본(Das Kapital)』(1867)을 분석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상품 생산의 발전에서 역사적으로 드러난다"고 말한다.⁸⁸⁾ 즉, 『자본』에서 주로 기술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운동 법칙은 상품 생산의 발전을 핵심으로 하지만, 그 법칙 자체가 고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 체제는 사회적 결정과 역사적 제약에 따른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이 중요하며, 이에 자본주의 체제 역시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체제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맑스는 생산양식(modes of production)의 발전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하는 '역사의 이행'이 가능하고, 이러한 생산양식의 발전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적 관계에 의해 이뤄진다고 보았다. 특히, 산업자본주의 단계에서 맑스는 기계화에 따른 생산력의 비인간적 발전이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생산관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이어지리라 전망했지만,89) 이에 대해 만델은 "생산의 사회적힘을 발전시키려는 거대한 충동,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이 발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량 생산이라는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부문들을 위해 노동을 절약할 새로운 방식과 수단을 찾으려는 가차 없는 추구"로서의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은 부(富) 자체와 인간 및 생태계의 생명 전체를 위협할수 있는 '파괴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90)

『자본』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생산자 대중은 경제적 의미에서

⁸⁸⁾ 같은 책, 14~15쪽.

⁸⁹⁾ 만델에 따르면, 맑스는 『자본』 제1권 제32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성장, 이 계급을 대상으로 한 착취의 심화, 착취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한 저항의 등장이 자본주의의 전복을 위한 지렛대구실을 한다"며 자본주의적 경제적 발전 경향이 사회 세력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 묘사했다고 한다. 즉, "생산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객관적 사회화는 연합한생산자들의 집단적 소유와 자유로운 협력에 기초한 사회의 경제적 전제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델은 이러한 전제 조건의 성립이 곧바로 자본주의의 붕괴로 이어지는 단일한 원인은 아니며, 자본주의의 전복을 꾀할수 있는 '특별한 사회적 위기 국면'에서 이 전제 조건들을 의식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책, 104쪽 참조)

⁹⁰⁾ 같은 책, 46쪽.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아니며 자기의 노동력을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둘째, 이런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은 상품 판매 시장을 점유하고, 이윤이 되는 자본 투자 영역을 선점하고, 원자재 확보를 위해 서로경쟁하는 각 기업으로 조직화된다(곧 경제적 의미에서 사적 소유 제도). 셋째, 따라서 이런 생산수단의 소유자들(각 기업들)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생산자들에게서 잉여가치를 최대한 착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사실은 일반화한 상품 생산과 일반화한 소외 상황에서 노동의 기계화, 자본의 집적과 집중,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증대, 이윤율 저하 경향, 주기적인 과잉 생산 위기를 초래한다.91) <에르네스트 만델, 『마르크스 캐피탈 리딩 인트로』>

이처럼 만델이 정리한 바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잉여가치의 확대재생산 을 통한 자본의 축적이 일차적 목적이며, 이를 위해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배치되어 자본을 재생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전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반발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전복을 필 연적으로 야기할 것이라 보았던 맑스의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자 본주의의 심화와 이로 인한 각종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가치 생산 의 하락(반(半)자동화의 결과 총 노동 시간의 감소), 갈수록 가중되는 잉여 가치 실현의 어려움, 재생산 과정에 투입되지 않는 폐기물의 증가, 국가적 자원의 점진적 고갈,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 이윤율 하락"등의 자본주의 체 제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제약들이 더 빈번하고 더 높은 강도로 발 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하다.92) 앞서 살펴보았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생산력의 진화는 오히려 이는 더욱 숙련된 기술과 전문화된 수준의 임금 노동이나 플랫폼 기반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의 분화로 이어지 며 계층 간 격차를 심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하에서 환경 역시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생산 토대로 인식되었지만, 그 결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환경파괴 및 기후위기는 오히려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93)

⁹¹⁾ 같은 책. 102쪽.

⁹²⁾ 같은 책. 107쪽.

⁹³⁾ 사이토 고헤이,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155~161쪽.

그런 점에서 커먼즈론 전반에서 강조하는 '관계망의 강화'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관계망의 강화는 단순히 낭만적 차원의 인간적 관계의 구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계급적 연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개별 주체들의 맥락에 따라 우연히 발생하는 산발적이지만 호혜적인 관계망의 구축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망은 단순히 인간 차원에 머무는 것이아니라 환경, 기술, 문화, 심지어 자본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포괄하는 '사회문화적 커먼즈'의 성격을 '생산'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할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커먼즈적 관점에서의 '생산양식'은 맑스의 분석에서처럼 단지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생산력을 중심으로 생산관계가 배치되어 발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관계'에 의해 생산력이 적절하게 활용되거나 발휘될 수 있는, 즉 '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이때, 사회문화적 커먼즈는 이러한 '관계망' 자체를 통해 형성된 커먼즈인동시에,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커먼즈라는 점에서 중요한 '커먼즈적 생산양식'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같은 것이며, 그 때문에 사람들이 생산력으로부터 사회를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연적인가상이 통용되고 있는 형태이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필연적인 이유는 살아있는 인간을 포함한, 일찍이 서로 분리되었던 사회적 과정의 계기들이하나의 공통분모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물질적 생산, 분배, 소비는 함께관리된다.94) <테오도르 아도르노, 「후기자본주의 혹은 산업사회?」>(강조는 논자)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총체성(Totalität)'이 지배하는 사회라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성적 사유'를 강조했던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는 자본주의 하의 이성의 마비는 '물화(Verdinglichung, reifica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2000[2019])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물화'를 "인간관계를 물적인 관계(돈, 즉 '금전 관계')로 대체

⁹⁴⁾ Theodor Adorno, Spätkapitalismus oder Industriegesellschaft?, Soziologische Schriften I, Gesammelte Schriften Bd. 8, 1977 (Frankfurt: Suhrkamp), S.363; 이병탁. 「자유의 조건으로서 정치경제 비판 - 충동의 구제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2020년 5월), 129쪽에서 재인용.

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소위 상품물신주의라는 형태를 갖는 기이한 물질의 병리학"으로 칭하며, 사용가치에 기반한 사물 세계가 추상적인 등가관계로 치환되는, "사물들 자체보다 더 사물과 비슷한 기이하게 정신화된 대상들로 이 물질을 변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부정적 메커니즘으로평가한다.95) 위에서 볼 수 있듯, 아도르노는 오늘날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생산, 분배, 소비가 함께 관리'되고 이로 인해 '생산관계가 생산력을 매개'하는 총체적 체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같은 것'이라는 '가상'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이병탁, 2020).96) 그는 이러한 총체적 체계로서의 물신주의적 가상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구분을 '추상적인 등가관계'로 치환하며,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포섭(subsumption)'하는 데까지 이르기에 심각하다고 비판한다.

그런 점에서 아도르노는 물화된 총체적 체계로서의 자본주의 하에서는 인 간의 의식 또한 계산적 합리성에 기반한 '도구적 이성'을 중심으로 물화되기 때문에 맑스가 기대했던 바의 '계급의식'의 형성 여부 역시 불투명하며, 개 별 주체들의 깨어있는 자각, 즉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서의 변증법적 사유를 통한 참된 의미에서의 '객관적 이성'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보았다.97)

⁹⁵⁾ 프레드릭 제임슨, 김유동 역, 『후기마르크스주의』 (파주: 한길사, 2019), 354쪽.

⁹⁶⁾ 이와 관련하여 아도르노는 "해방된 사회라는 것을 그러한 총체성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구상할 경우 소실점이 시야에 포착되는데, 그러한 소실점은 생산의 증대나 그러한 증대가 인간에게 투영된 모습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것이다. 아무런 눌림도 없는 사람들이 결코 가장 안락한 자도 가장 자유로운 자도 아니라면, 족쇄가 떨어져나간 사회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궁극적 토대인 생산력보다는 상품 생산에 맞게 역사적으로 재단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내놓는 것일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테오도르 아도르노, 김유동역, 「100. 물 위에 누워」, 『미니마 모랄리아: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 (서울: 도서출판 길, 2019), 209~210쪽. 강조는 논자)

⁹⁷⁾ 맑스의 "상품물신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한 "물화"는 사회가 "계산 또는 계 산 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합리화의 원리"에 지배되는 상태로, 인간의 의식마저 교환가치에 기반한 양(量)으로 전환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루카치와 아도르노는 모두 이러한 '물화'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견지했지만,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루카치가 물화를 직접 겪고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역사 적이고 실제적인 자기인식(Selbsterkenntnis)이 역사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계급적 인식'을 견지한 집단적 주체로 발돋움할 것을 강조 했다면. 아도르노는 물화에 의해 총체화된 사회의 '동일화 워리 (Identifikationsprinzip)'가 문제의 핵심 원인이므로 부정성에 기반한 비판적 사유 를 통해 자신과의 '비동일성'으로 향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극복방안이라고 보았 다. (참조: 노성숙, 「일상의 미학과 아도르노」, 『철학(72)』 (2002년 8월),

이는 동일성의 원리로 작동하는 총체적 사회에서 '전시용 상품'처럼 '만들어진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주체로서 '대체 불가능한 개별성'을 되찾고 이에 기반한 "자유로운 협업과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이미' 인간에게 주어져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98)

주관성과 객관성의 개념은 완전히 전도되었다. 객관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현상 속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측면, 아무런 질문 없이 수락된 현상의 인상, 분류된 데이터로 이루어진 현상의 앞면, 즉 본래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 대신 그러한 것을 부수고 사물에 대한 특수한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인습적인 판단에서 벗어나는 것, 생각은커녕 보지도 않고 다수결에 의해 대상에 대해 결정을 내리려 들기보다는 대상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즉 객관적인 것은 주관적이라고 불린다.99) <테오도르 아도르노, 「43. 부당한 협박」, 『미니마 모랄리아』> (강조는 논자)

그러나 이러한 참된 '객관적'이성의 회복은 주체 단독적으로 행하는 관념적 사유에 의해서만은 불가능하다. '비판' 자체가 함의하듯, 현실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현실을 성찰하고 더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행위로서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기에 아도르노는 대상에 대한 주관의 철저한 반성적 사유에서 비롯되는 '타자와의 관계 맺기'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객관성'의 영역, 즉 '이성'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있다고 강조한다. 즉, 자본이라는 '주관'이 객관적인 질서로 군림하며 가치체계를 독점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뚫고 나아갈 해독제로서 '객관적 이성'은 오직 "특수자로서의 개인(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것, 인격의 우상이나 소유의 투영된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면

^{223~228}쪽.)

⁹⁸⁾ 테오도르 아도르노, 『미니마 모랄리아』, 175쪽. 「83. 부회장」. 이 글에서 아도르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별성'에 대한 질문은 개별성이 해체되어가는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어야 한다. '개인'은 모든 개인주의적 생산 방식처럼 기술의 발달 수준에 뒤처져 있고 역사적으로 낡은 것이 되었지만, 패자의 위치에 떨어진 자로서 개인은 다시금 진리의 파수꾼이 된다. (중략) 정신적 생산의 개인주의에 완전히 내맡기지도, 평등주의적이고 인간 경멸적인 대체 가능성에 기초한 집단주의에 마구 몸을 팔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은 공동 책임 아래 자유로운 협업과 단단한 연대에 의존해야 한다."

⁹⁹⁾ 같은 책, 99쪽.

서 밀착되는 것"으로서의 "진정한 애정"을 담은 '관계 맺기'를 통해서 힘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100) 이때, '진정한 관계 맺기'는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적 행위'가 아니라, 앞서 베버와 월러스틴 또한 강조했던 바처럼 '실질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에 기반한 '합목적적 행위'의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 볼 때,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대상과 호혜적인 관계 맺기를 핵심으로 하는 커먼즈론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전면적으로 신뢰하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실천 담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관계 맺기'라는 커머닝 행위를 통해 자본중심적 가치와 '다를 수 있는 가치의 생산'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커먼즈론은 아도르노적 의미의 '관계'에 보다 가까운 의미에서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생산력의 재구성까지 도모하는 '새로운 생산양식'을 구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커먼즈 중에서 이러한 '관계맺기'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강화를 꾀하는 사회문화적 커먼즈는 자본주의하의 총체화된 삶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고유한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이러한 '깨어있는 이성'을 지닌 주체들의 협업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선사하는 행위를 잊어버린다. 교환 원칙을 위배하면서 선물하는 행위는 사리에 어긋나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중략) 그 대신에 사람들은 자선, 즉 눈에 보이는 사회의 환부를 계획적으로 땜질하는 '관리되는' 선행을 행한다. (중략) 진정한 선물 행위는 받는 사람의 기쁨을 상상하는 기쁨이다. 그것은 자신의 길에서 빠져나와 시간을 써가면서무언가를 고르는 것, 즉 타인을 '주체'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남을 잊어버리려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중략) 물건이 넘쳐흐르고 이 물건들은 가난한 사람에게조차 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선물의 붕괴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이고 이런 현상에 대한 관찰 역시 지나친 감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선물이 넘쳐흐름 속에서 넘쳐버린 것, 즉 너무나 풍요로워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이 되었을지라도 - 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말은 거짓말인데, 그 이유는 자신을 완전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상상력을 지닌 사람은 오늘날 아무도 없기 때문이

¹⁰⁰⁾ 같은 책, 112쪽. 「49. 도덕과 시간의 질서」

다-더 이상 선물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물을 필요로 한다. (중략) 왜곡되지 않은 모든 관계, 유기체 내부에 있는 화해적 요소란 아마, 주는 행위, 선사하는 행위이다. 앞뒤를 재고 계산하는 논리에 의해 선사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인간은 스스로를 사물로 만들면서 얼어죽는다.101) (「21. 물물교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니마 모랄리아』 > (강조는 논자)

아도르노는 진정한 관계 맺기로서의 '화해'의 기원을 '선사하는 행위'에서 찾는다. 이 행위는 단지 나를 위하거나 사회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자선'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타인을 '주체'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에 기반한 '관계적인 실천'이다. 이는 넘쳐흐르는 상품들 중에서 나와 타인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 고유한 어떤 것을 선별해낼 수 있는 '인간적 감각'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그는 가판대에 널려있는 상품들의 교환가치에 기반한 '물물교환'이 아닌, 온전히 타인을 위해 공을 들여 어떤 사물을 고르고 선사하는 행위로서의 '선물교환'이 아직 우리 시대에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밀폐된 총체성 속의 비참한 삶 속에서도 그만큼 더 인간적인 삶의 감각을 찾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삶의 비자본주의'가 '세계의 자본주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원초적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산업'이 아닌 '문화'라고 불리는 인간의 문명화 과정, 즉 이미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커먼즈가 바로 이러한 대가 없는 선사의 행위로이뤄졌다는 데서 이러한 '화해적 관계맺기'의 '생산성'을 역사적으로 확인할수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마르셀 모스(Marcel Mauss)는 『증여론』(1925)에서 '선물'은 "총체적인 사회적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주기-받기-답례'의 삼각 구조로 이뤄지는 선물교환 행위는 증여와 교환, 호혜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핵심이라고 본다.102) 여러 종류의 사회집단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선물교환 행위는 시장적 교환가치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만이 아닌 다른 방식의 경제 체제도 성립 가능하다는점을 보여준다고 역설한다.

¹⁰¹⁾ 같은 책, 64~66쪽.

¹⁰²⁾ 마르셀 모스, 이상률 역, 『증여론』 (파주: 한길사, 2009), 38~39쪽.

가치 개념은 이들 (부족) 사회에서도 작용한다. 단호하게 말하면, 큰 잉여물들은 축적된다. 그것들은 비교적 엄청난 사치를 동반하면서도 이익을 노리는 성질이 전혀 없는 순수한 낭비를 위해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환되는 것들 중에는 부의 징표, 즉 일종의 화폐도 있다. (중략) 이러한 사실들은 또한 사람들이 교환이라고 잘못 부르는 것-'물물교환' 또는 유용한 물건의 '교환'(permutatio)-의 여러 형태와 원인에 관한 많은 물음에도 대답한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종하는 라틴계 학자들을 따라 역사경제학은 이러한 교환을 분업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갖가지 종류의 사회 -그 대부분은 이미 충분하게 해명되었지만- 에서 물건을 순환시키는 것은 유용성 이외의 다른 것이다. 씨족, 연령집단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별집단은 - 그들간의 접촉에서 생기는 다양한 관계 때문에- 끊임없는 경제적 홍분상태에 있으며, 게다가 이 흥분 자체에는 현실적인 것이 조금도 들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그 홍분은 우리의 판매와 구입보다도, 노무의 고용보다도, 또는 중권투기보다도 훨씬 더 활기차다.1030 <마르셀 모스, 『증여론』> (강조는 논자)

위에서 볼 수 있듯, 가치의 척도는 '유용성'에만 있지 않다. 화폐 또한 사회적 산물로 교환행위를 위한 매개로 활용되는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이윤'이라는 효용 가치를 내장한 가치적 사물로 기능한다. 하지만 모스의 분석에 따르면, 호혜성에 기반한 이들 사회에서 교환행위는 화폐를 포함해서 이뤄지지만, 화폐가치에 지배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흥분상태'라는 사회적 활기를 띤다. 이는 커먼즈론에서 주장하는바의 '비시장적 관계의 활성화'인 동시에, 비공식적 협업을 통한 생산적 집합행동의 형태가 자본주의 질서 외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 생산활동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사학자 칼 폴라니(Karl Polanyi) 또한 이러한 선물교환 행위가 지닌 사회경제적 생산성의 메커니즘을 "상호성(reciprocity)과 재분배 (redistribution)"의 원리로 설명한다.¹⁰⁴⁾ 즉,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존 을 위해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각

¹⁰³⁾ 같은 책. 262~263쪽.

¹⁰⁴⁾ 칼 폴라니,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서울: 도서출판 길, 2018), 185~188쪽.

개인이 자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성립된 '사회적 의무'의 자발적 이행은 최소한의 노동을 투입한 최대 이익의 추구라는 '효율성'에 기반한 경제적 동기 없이도 사회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으로 나타나는 '상호성의 원리'는 각 개인이미덕의 행위를 통해 '평판'이라는 사회적 신용을 얻음으로써 자신과 가족의부양 모두가 보장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재생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생산물 저장 시스템을 공동체가 관리하며 잔치나 선물교환 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분배'하는데, 이에 대해 폴라니는 "노동 분업, 대외무역, 공 공 용도의 조세, 방어 물자 조달 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기존 (경제) 체제의 필수 부분"으로서의 저장 시스템이 공동체 속에 완전히 녹아든 것으로, 이는 경제적 동기 없이도 충분히 경제적인 행동들이 사회적 체제 속에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시장적 교환행위만이 경제적합리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일상적 행위의 과정을 통해서도 경제적 생산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는 사회적 안정성 또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도할 수 있다. 이는 커먼즈론이 단지 경제적 실험으로서 '대안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 생산성까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관계의 활성화를 꾀하는 사회문화적 커먼즈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양식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볼 수 있다.

이처럼 관계 맺기를 통해 자본주의 하의 이윤중심적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다른 가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커먼즈론에서 사실상의 핵심은 '관계'라 할 수 있다. 이 관계는 특정한 이념이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주체의 깨어있는 자각 즉 '객관적 이성'에 기반한 '진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호혜적이고 인간적인 행위이다. 그런 점에서 커먼즈론에서 강조하는 바의 '관계'는 생산력도 견인할 수 있는 생산관계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는 우리 삶을 둘러싼 '세계의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가치를 생산하는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속한사회와 문화가 이러한 선물과 증여를 비롯한 대가 없이 '선사하는 행위'에의해 진보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려본다면, 사회문화적 커먼즈는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하는 커먼즈들 중에서 커먼즈적 특성을 가장 온전하게 담고 있는 커먼즈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문화적 커먼즈는 커먼즈를 추동하는 커먼즈, 즉 가장 전통적인 동시에 급진적인 '커먼즈 중의 커먼즈'라 할 수 있다.

Ⅲ.2. 사회문화적 커먼즈로서의 언어

가이 스탠딩(2021)은 커먼즈는 "사회적 기억으로 주조된 가치를 체현하며, 사회의 유대로서의 사회적 기억을 강화한다"고 말한다.105) '공유된 과거, 전 통, 관습적 기억'을 포함하는 '사회적 기억'은 각자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감각'을 구성한다. 그렇기에 공동자원으로서의 커먼즈를 지키고 보존하는 행 위의 이면에는 이러한 사회적 기억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으며, 커먼즈가 활성화될수록 사회적 기억 또한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 억에 의한 사회적 정체성의 강화는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파편화된 개인이 되어버린 우리 삶의 본질적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는 힘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106) 그런 점에서 사회적 기억의 복원과 전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 회문화적 커먼즈는 "커먼즈로서의 사회문화"와 "커먼즈에 기반한 사회문화" 가 교차하는 하나의 '문지방 공간(threshold space)'이라 할 수 있다.107)

문지방 공간성(threshold spatiality)은 폐쇄적 공동체들에 의해 고립된 세

¹⁰⁵⁾ 가이 스탠딩, 『공유지의 약탈』, 86쪽.

¹⁰⁶⁾ 이와 같은 '사회적 기억'의 필요성에 대해 가이 스탠딩은 "강건한 공동체가 없고 사회적 기억이 취약한 사회는 나르시시즘적인 개인주의를 강화하고 보편주의의 감각을 약화시킨다"며 "이는 바로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책, 87쪽)

¹⁰⁷⁾ 이원재, 「'문화 커먼즈'와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실험」, 『문화/과학』 (2020년, 101호), 156쪽. 이원재는 특히 문화 커먼즈(cultural commons)를 "시민이 공동의 가치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타자와 협력할 수 있는 공동의 자원으로 전환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 문화를 형성하는 실천이자 체계"로 정의하며, 이러한 문화 커먼즈는 "커먼즈로서의 문화"와 "커먼즈에 기반한 문화"의 관점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전자는 문화 자체를 하나의 커먼즈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후자는 문화 외의 다양한 종류의 커먼즈와 협력적 관계 속에서 기존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실험 및 실천들을 재검토하고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에 소속되지 않은 커머닝적 실천들을 표현하고 초대할 수 있다. 문지방 경계들에 난 구멍들은 (더 나은 것을 위한) 비교와 (외부인들을 위한) 번 역을 통해 커머닝의 둘레를 확장하기 위한 공유 행위들을 허용한다. 그러 나 문지방들이 단순히 허용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경계를) 건너는 사이 영역을 설립함으로써, 안을 밖으로 개방함으로써, 공유의 잠 재성을 분명하게 상징한다.

Threshold spatiality may host and express practices of commoning that are not contained in secluded worlds shared by secluded communities of commoners. The porosity of threshold boundaries permits acts of sharing to expand the circles of commoning through comparison and translation. However, thresholds do not simply permit. They explicitly symbolise the potentiality of sharing by establishing intermediary areas of crossing, by opening inside to outside. <Stavros Stavrides, 「Common Space as Threshold Space: Urban Commoning in Struggles to Re-appropriate Public Space」>108) (강조는 논자)

이처럼 문지방 공간은 안과 밖의 경계를 분리하는 동시에 연결하기도 하는 '사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자본 속에서도 자본과 다른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자본 중심적 질서를 뚫고 나가려는 실천으로서의 커머닝과 이에 기반한 커먼즈는 기본적으로 문지방 공간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지방 공간은 안과 밖의 사이에 놓여 이를 통과하는 이들로 하여금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허용하는 동시에, 그 경험을 통해 안과 밖이라는 영역 자체를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점에서 Stavros Stavrides는 이러한 문지방 경험은 "기존 공동체의 경계를 '한 걸음 더' 확장하는 과정(a process that oversteps the boundaries of any established community)"이라고 말한다.109) 이는 단지 공동체의 물리적 규모를 확장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 및 일상에서의 모든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를 넘어서는, '굳어진 모든 것을 녹이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¹⁰⁸⁾ Stavros Stavrides, 「Common Space as Threshold Space: Urban Commoning in Struggles to Re-appropriate Public Space」, 『Footprint』 (Spring, 2015), p.17.

¹⁰⁹⁾ Ibid., p.12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¹¹⁰⁾ 이러한 새로운 관계로서의 '공동체 (*communitas*)'는 표준화된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성이 '차이' 그 자체로 온전히 보존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들의 관계'를 통해 더 나은 것이 도출되는 '사후적(nachträglich)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문화적 커먼즈를 비롯한 커먼즈 일반을 하나의 '관계 맺기'의 장(場)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가 동질적 관계가 아니라이질적인, '차이들의 관계'라는 점이다. 이때, 이러한 차이들을 매개하는 관계적 행위가 바로 '소통(communication)'이며, 이 소통은 미리 상정된 어떤목적에 닿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의 경계를 넘어 세계로 기투(Entwurf)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experience of liminality)'라 할 수 있다. 또한이렇듯 '넘어서 향하기'로서의 소통 행위는 이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잠재적능력(potentiality)을 동등하게 긍정하는 것이며, 서로의 의견을 '번역'하여 함께 '더 나은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는 신뢰의 행위인 동시에 커먼즈적 주체를 탄생시키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소통은 일차적으로 안과 밖의 사이를 매개하는 문지방 공간을 설립하며, 이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커먼즈는 인류 공동의 사회적 기억에 기반한 인간적 유대의 회복을 시도하여 일상 세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나는 타자의 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은 이 세계속에서의 정향이며, (말을 최초로 터득하는 과정에서) 타자의 말을 자기화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언어 또는 다른 기호적 질료로 표현된) 인류 문화의 보고를 자기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타자의 말에 대한 반응(무한하게 다양한 반응)이다. 타자의 말은 우리에게 그 말을 이해하라는 특별한 과제를 제시한다(자신의 말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과제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다른 의미로 존재한다). 각자에게 있어 말로 표현된 모든 것이 자신의 말(자신의 것으로 지각되는 말)의 소

^{110) &#}x27;굳어진 관계'는 다음의 구절에서 떠올렸다. "굳고 녹슨 모든 관계 그리고 그산물인 오래되고 신성한 관념들과 견해들은 해체되었고 새롭게 형성된 것은 굳기도 전에 낡은 것이 되어버린다. 신분적이고 정체된 것은 모두 증발하고 신성한 것은 모두 모독당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상호 관계를 좀 더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참조: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이진우 역, 『공산당선언』 (서울: 책세상, 2020), 20쪽.

세계와 타자의 말의 거대하고도 무한한 세계로 분열된다는 것은 인간 의식과 인간 삶의 제일차적인 사실이다. (중략) 개성에게, (반복될 수 없는 유일성을 갖는) 인간의 자아에게 이것이 갖는 막중한 의미, 문화와 활동 행위의 전 영역에서 타자의 말과 맺는 복합적인 상호관계는 인간의 전 생애를 가득 채운다.¹¹¹⁾ <미하일 바흐친, 『말의 미학』> (강조는 논자)

이때, 관계적 행위로서의 '소통'은 언어(language)에 기반한 '언어적 관계' 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는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커먼즈인 동시에 언 어적 소통을 통해 모든 종류의 커머닝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 먼즈 일반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서 볼 수 있듯이,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은 우리는 '타자의 말'로 이뤄진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며, 일상적 소통 속에서 '타자의 말을 자기화'해 야 할 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의 보고를 자기화'하는 역사적이고 문명적인 지식 습득 등 '타자의 말에 대한 반응'이 곧 '삶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러 한 '반응'으로서의 소통의 범위와 깊이는 반응의 역량에 따라 무한히 다양할 수 있다. 이 역량은 물론 표준화된 척도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태도의 역량'이다. 그런 점에서 나의 세계는 고정 되거나 닫혀있는 체계가 아니라 타인의 말과 함께 운동하는 열려있는 체계 이며, '문화'와 '삶'은 바로 이러한 '상호구축적인 관계망'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말'이라는 언어에 기반한 문화와 우리 삶 자체가 다성적(多聲的) 대화의 공간, 즉 하나의 커먼즈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우리는 언어에 기반 한 소통 행위를 통해 주체인 동시에 객체로서 삶의 매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커먼즈 이론가이자 법학자 우고 마테이(Ugo Mattei) 역시 우리의 삶에는 주체-객체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질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잠 재력과 기회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커먼즈가 "질적 관계를 표현"한다고 보며, 우리는 커먼즈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커먼즈에 속한 객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커

¹¹¹⁾ 미하일 바흐친,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492~493쪽.

먼즈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개인, 공동체, 생태계까지 연결된 '하나의 세계'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¹¹²⁾

이렇듯 객체를 향해 열린 관계 맺기가 소통의 본질이라고 할 때 이는 주체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객체 우위적 관계"라 할 수 있는데,¹¹³⁾ 아도르노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화해"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¹¹⁴⁾ 나아가 그는 이러한 '화해적 소통' 속에서 개인적 주체는 왜곡되지 않은, "유적(類的) 존재로서의 인간을 대표하는 개별자로서" 행위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주체성으로서의 "자율성"을 비로소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¹¹⁵⁾ 앞 절에서 살

¹¹²⁾ 우고 마테이(Ugo Mattei)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커먼즈는 질적 관계를 표현한다. 우리가 대상으로서 커먼즈를 가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환원주의적인 발언이다. 그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커먼즈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즉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환경과, 도시나 지방 생태계의 일부인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는 객체의 일부가 된다. 이런 이유로 커먼즈는 불가분하게 연관되며, 개인, 공동체, 나아가 생태계 자체를 연결시킨다."(데이비드 볼리어, 같은 책, 238쪽에서 재인용. 강조는 논자)

¹¹³⁾ 정석현, 「아도르노 미메시스 개념의 의미」, 『철학논총(70)』 (2012년 10월), 425~432쪽. 정석현은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개념을 "객체우위 정신"으로 개념화한다. 그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미학 이론』에서 "예술은 자연미 자체를 모방한다."라고 했을 때, '모방으로서의 미메시스'는 개별 자연이나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그 자연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느끼게되는 정신적인 미적 경험"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미메시스의 본질이라고 할 때, 미메시스적 관계는 주체의 대상에 대한 경험이 핵심이 아니라 객체에 대한 주체의 "정신적인 '유사성'의 경험"이며,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물의 진리" 또한 주체 안에서 형상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메시스를 "객체우위의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물의 직접성에 대한 경험"이라고 정의한다.

¹¹⁴⁾ 테오도르 아도르노, 「66. 용광로」, 『미니마 모랄리아』, 141쪽. 아도르노에게 "화해"는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유창한 관용"과 대비된다. '관용'은 "인간의 얼굴을 한 모든 것의 평등성을 이상(理想)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죄수를 간수로, 살해된 자를 살해자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는 하나의 "집단 수용소의 기술"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도르노는 "해방된 사회는 아마 획일화한 국가가 아니라 차이들의 화해 속에서 보편성이 실현되는 것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더 나은 상태란 사람들이 불안 없이 다르게 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조는 논자)

¹¹⁵⁾ 같은 책, 59쪽. 「17. 잠정 관리」. 이 글에서 아도르노는 "예전에는 시장 관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투명한 삶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더 이상 투명하게 그려낼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은, 가장 강한 자까지도, '객체'이다. (중략) 자유는 순수한 부정성으로 응축되어버린 것이다."라고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때, '객체'와 '순수한 부정성'은 양가적

퍼보았던 바와 같이, 시장적 질서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객관적 이성의 회복'을 강조하는 아도르노는 총체적이고 기만적인 "현혹연관 (Verblendungszusammenhang)"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116) 개별성 혹은 개인성(individuality)은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개인성을 존중한다는 눈속임을 통해 전체적인 질서에 개인을 포섭하기 위한 "사회적 착취의 방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117)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성'이란 '전시용 상품'처럼 진열된 사회적 관리의 한 측면이라는 것이다.

대신 그는 이와 대비되는 선물의 선사 행위에서처럼 타자, 즉 '객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관계 맺음을 통해서 자율적 '주체성(subjectivity)'의 회복이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이때, 객체는 단순히 주체의 시점으로 '대상화된 사물적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물 및 존재 그 자체를 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118) 이는 타자를 긍정할 수 있는 주체의 자기반성적 역량을 긍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중부정'을 통해 성립하는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긍정이라 할 수 있다.119)

⁽ambivalent)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현실적 사실'에서 출발하는 아도르노 비판 담론의 특징을 보여주는 '세태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서의 '객체'와 응축되어버린 '순수한 부정성'을 의미하고, 둘째는 이미 원문에서 드러나고 있듯 사실은 '객체'와 '순수한 부정성' 자체를 아도르노는 긍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조는 논자)

¹¹⁶⁾ 아도르노에게 "현혹 상태(Verblendung)"는 "'바깥'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문화산업의 총체적 연관 관계"처럼 '절대적 부정'으로서의 사회에 의해 진리에 대한인식 및 진정한 삶을 추구하는 '객관적 이성'이"차단"된 상태를 의미한다. (같은책, 271쪽, 131쪽 각주 12) 참조)

¹¹⁷⁾ 같은 책, 199쪽, 「97. 단자」. '착취로서의 개별성'에 대하여 아도르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인이 결정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정치경제의 형식, 특히 도시의 시장 제도 덕분이다. 사회화의 압력에 저항하는 사람으로서조차 개인은 사회화의 가장 고유한 생산물이며 이것을 닮게 된다. 개인에게 저항을 허락하는 것, 독립적이려 하는 개인 내부의 성향들은 단자적인 개별 이해와 이것의 침전물인 성격에서 나온다. 개인은 바로 자신의 개별화 과정 안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사회적 착취의 법칙-아무리 매개된 것일지라도-을 반영한다." (강조는 논자)

¹¹⁸⁾ 정진범, 「현대적 조건 하에서 좋은 삶의 가능성에 대한 아도르노의 대답」, 『철학(126)』 (2016년 2월), 93쪽. 정진범은 "타자는 미메시스적 주체에게 있어, 특정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화나 사물화가 가능하지 않은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말하며, 미메시스적 행위로서의 관계맺기에서 '타자'의 우위성을 강조한다.

¹¹⁹⁾ 아도르노의 '부정'은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것"으로서의 의미와 이러한 부정

자아는 사회와 뒤엉켜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의 생존은 사회 덕분-글자그대로의 의미에서-이다. **자아의 모든 내용은 사회에서 또는 객체와의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아가 자유롭게 사회 속에서 자신을 펼치고사회를 반영할수록 자아는 풍요로워지지만, 자아를 원천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자아를 가두고 경직시키는 것은 자아를 제한하고 축소시키며 빈곤하게 만드는 것이다.120) <테오도르 아도르노, 「99. 시금(試金)」, 『미니마 모랄리아』> (강조는 논자)

아도르노에 따르면, '자아'라는 주체에 덧씌워진 고유한 관념으로서의 "순수성"은 순수한 것이 아니다. 이는 "산업에 의한 대량 생산의 반사"로, 이윤을 위해 만들어낸 상품 가치의 고유성이라는 '환영'에 대한 안티테제로 내세워진 "복제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순수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도르노는 "순수성이라는 개념은 금처럼 '물신""이며 이들은 모두 "사물들의 대체 가능성, 비교 가능성을 표현"할 뿐이라고 비판한다.121) 그러므로흔히 순수성이나 독창성(originality)으로 표상되는 '절대적 자아'로서의 주체관념은 오히려 자아의 무한한 가능성을 한낱 "사회의 단순한 객체로 퇴화"시키는 것이며, 진정으로 자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개별 주체는 사회로나아가 '사회 속에서 자신을 펼치고 사회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122)

적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비판 및 저항"의 이성적 사유 능력을 의미한다(정진범, 같은 글, 79쪽 각주 3) 참조). 특히 타자를 긍정한다는 것은 주체가타자를 대상화하는 지배적 관점을 철회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사유'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체의 재구성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체를 '부정'함으로써 '긍정'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이중부정 통한 긍정'으로 서술했다. 이와 같은 아도르노 특유의 부정적 변증법에 의한 사유는 다음의 글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가 구원을 희망할 경우 희망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음성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한순간이나마 숨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무기력하기 그지없지만 그러한 희망인 것이다. 모든 명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울의 이중성을 항상 새로운 모습과 착상 속에서 참을성 있게 추적하여 묘사해나가는 것이다. 진리란 가상의 모습에서 언젠가는 가상 없는 구원이솟아오르리라는 망상과 분리될 수 없다." (테오도르 아도르노, 같은 책, 165쪽. 「78. 산 너머」, 강조는 논자)

¹²⁰⁾ 같은 책. 206쪽.

¹²¹⁾ 같은 책, 208쪽.

¹²²⁾ 같은 책, 201쪽.

이는 곧 인간의 '고유성' 안에는 이미 사회성이 각인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미 모든 주체는 객체이지만 자본주의 속에서 오도된 개성적 주체는 이를 망각하고 철저히 주체 안으로 밀폐됨으로써 물화된 개성으로 타락해버렸다는 비판임과 동시에, 타자와의 소통 경험을 통해 그러한 주체의 폐쇄적 상황을 극복하여 '객체로서의 주체'를 온전히 재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능성의 전제 조건이 되는 타자와의 소통은 단지 형식적인 '도구적 만남'이 아니라, '나'라는 닫힌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자기반성적 행위'이며, 이때 내 앞에 등장하는 타자 또한 단순한 대상이나 사물적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경계 넘기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이러한 소통은 서로를 향하는 '미메시스적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언어는 의식만큼 오래된 것이다. **언어는 타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실천 적 의식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인해 나 개인에게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언어는 의식과 마찬가지로 오직 타인들과의 교류의 필요와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¹²³⁾ <R.Williams, 『Marxism and Literature』> (강조는 논자)

"인간은 서로 주고받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실행하고, 통제하고 그 통제의 틀 안에서 역할을 행하고 하는, 즉 몸과 몸이 부딪치는 관계 속에서만서로를 함께 묶는 정교한 그물망을 위한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며 한 인간에게 있어 그러한 바깥이 있을 때에만 안도 여무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아도르노는 "편지 대신 인사말이나 서명을 생략한 공문을 주고받는 행태는 인간관계가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라 우려한다.124) 즉, 총체화된 사회의 '강압적인'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하고 단단한 관계망을 구축하는행위로서의 소통은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속에서만 이뤄질 수 있고,이러한 '바깥의 공간'을 통해서 인간의 자율적 주체성은 왜곡되지 않고 발전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나'라는 경계 지어진 '주체'의 폐쇄된 영역을

¹²³⁾ R.Williams,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 Press, 1977), 제1부 제2장 "Language"; 테리 이글턴, 김명환·정남영·장남수 공역, 『문학이론입문』 (파주: 창비, 2010), 340~341쪽. 각주 32)에서 재인용.

¹²⁴⁾ 테오도르 아도르노, 같은 책, 63쪽. 「20. 더벅머리 페터」

'타자와 나눔'으로써 그 경계를 '함께 넘어서는' 소통 행위는 나의 삶을 온전히 보존해가기 위한 필수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때, '언어'는 이러한 소통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매체'가 된다. 맑스에 따르면, 정신은 언어라는 기호화된 물질을 통해 비로소 표현될 수 있는 의식이다. 이러한 언어는 단지 개인 내적인 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차원의 의식을 함께 고양해 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실천적 도구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즉,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고립된 개별 의식 또한 자신의 경계를 넘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아도르노가 강조한 바의 '객체적 주체'의 관점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맑스는 소통의 도구가 되는 언어에 대해 "인간의 주체적 활동성에 의해 생성·유지·변화될 수 있는 '객관적 현실의 일부"라고도 강조한다.125)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답한다. "옳고 그른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바의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일치한다. 그것은 견해의 일치가 아니라 삶형태(Lebensform)에 있어서의 일치이다." (중략) "언어를 상상한다는 것은 삶형태를 상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겐슈타인의 개념들은 한편으로는 개별적이고 우연한 경험을 벗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월적인 정체성과 진리를 벗어나서, 그것들 사이 혹은 그것들 너머에서 공통적인 것을 드러낸다. 결국 언어와 언어게임은, 삶형태 개념이 그러하듯, 공통적인 것이 조직되고 표현된 것들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삶정치는 공통적인 것의 지형 위에서 지식에서 출발하여집단적 실천을 거쳐 삶으로 나아간다.126)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공통체』 > (강조는 논자)

객관적인 현실로서의 언어는 단지 타인과의 소통에서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이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실행 가능하다는 점을 의 미하기도 한다.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역시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언어게임(Sprachspiel)"이라 개념화한 바 있다. 즉,

¹²⁵⁾ 테리 이글턴, 같은 책, 340쪽.

¹²⁶⁾ 네그리·하트, 같은 책, 184~185쪽.

언어적 행동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까지 포괄하는 인간의 행위적 실천 전반은 언어적 규칙을 따르는 행위이며, 언어 또한 이러한 실천에 의해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127) 그래서 그는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의 실천이다"라고 정의하며, "어떤 하나의 규칙을 따른다는 것, 어떤 하나의 보고를 한다는 것, 어떤 하나의 명령을 한다는 것, 어떤 하나의 장기 놀이를 한다는 것은 관습들(사용들, 제도들)이다"라고 모든 언어적 실천은 그것이 아무리 사적(私的)이라 하더라도 이미 '관습'이라는 공동체적 규칙을 수행하는 실천이라고 강조한다.128)

그런 점에서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소통이 가능한 '일치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지 '견해의 일치'가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언어적 규칙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삶형태(Lebensform)의 일치'라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그러한 언어적 규칙을 "안다(knowing)"는 인식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언어적 수행을 통해 그 규칙이 비로소 실행된다는 점에서 언어는 "한다(doing)"의 실천적 차원에 놓여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함'으로서의 언어는 근본적으로 "타자성과 맞물리는 한에서만"의미를 (재)생산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으로서의 커먼즈라 할 수 있다.129) 그런 점에서 언어는 무형의 형태로 인간의 의식과 삶을 구성하며 '관계 맺기'로서의 커머닝을 가능하게 하는 커먼즈들의 토대이기도 하다. 이때, 커먼즈로서의 언어를 보존하고 재구축하는 커머닝적 실천은 언어를 단순히 필요를 위한 도구로 '소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언어를 통해 우리 삶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수 있다.

Ⅲ.3. 커머닝으로서의 문학: '서정적 영역의 구축'

¹²⁷⁾ 이재숭, 「비트겐슈타인과 소쉬르: 랑그 언어학의 한계와 실천적 언어게임」, 『철학논총(제44집)』 (2006년 4월), 344~346쪽.

¹²⁸⁾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이영철 역, 『철학적 탐구』 (서울: 서광사, 1994), §202, §199. (위 논문 346쪽에서 재인용.)

¹²⁹⁾ 네그리·하트, 같은 책, 185~188쪽.

행위와 말은 함께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 과정은 결국 새로 오는 자의 유일무이한 삶의 이야기로 나타나며,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고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미 존재하고 상충하는 수많은 의지와 의도를 가진 이 인간관계의 그물망 때문에 행위는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제작이 구체적인 사물을 생산하는 만큼 당연히 행위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이야기를 '산출하는' 것도 행위만을 실재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 매개체 때문이다. 이이야기들은 문서나 작품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사용물건이나 예술작품으로 가시화되기도 하고, 새롭게 이야기되거나 만들어져 모든 종류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이야기 자체는 생생한 현실성을 가지므로 물화된 사물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130)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강조는 논자)

"인간사의 영역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인간 관계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말'을 통해 '인격(Persönlichkeit)'이 현시되고, '행위'를 통해 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말과 행위는 인간이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양식"이라고 강조한다.[31] 인간적 삶을 "노동·작업·행위"의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는 '활동적 삶(vita activa)'이라정의하는 아렌트는 언제나 '다수의 타자'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조건 속에서 개인적 정체성과 공동체의 질서를 수립하는 활동으로서의 '행위'는 사멸이 아닌 '탄생'을 향하는 가장 핵심적인 범주로 본다.

특히 그는 "인간의 활동 중에 행위만큼 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고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인간세계에서 자신의 고유한 인격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132) 그런 점에서 말과 행위는 인간의 삶에서 '주체'를 드러낼 수 있는 고유한 활동이자, 말과 행위 또한 주체로서의 인간의 삶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이야기'는 "탄생과 죽음 사이의 모든 개별적 삶"에 관한 말하기로서, "시작도 끝도 없는 커다란 이야기인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전정치적

¹³⁰⁾ 한나 아렌트,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파주: 한길사, 2020), 283쪽.

¹³¹⁾ 같은 책, 283쪽, 274쪽.

¹³²⁾ 같은 책, 83~88쪽, 277쪽.

(pre-political)이고 전역사적(pre-histrorical)인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며, '행위로서의 말'이 인간이 영위하는 '활동적 삶'의 산물임을 뜻한다.133) 이러한이야기는 이러한 말로 이루어진 행위의 산물이며, '예술작품'으로서 '문학'은특히 이러한 이야기를 문자로 가시화한 말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은 '노동'이나 '작업'과 구별되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하나의 질서를 수립하는 '참여적 행위'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는 문학이 단지 현실 세계에 참여하는 이야기의 형식만이 아니라, 그러한 참여를 통해 현재를 바꾸고 나아가 인간 전체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창조적 반응"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을 뜻한다.¹³⁴⁾ 즉, '행위로서의 말'에 기원하는 문학은 삶과 역사를 고정된 것이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창조적 반응들의 체계로 만들어가는 매개인 동시에 그러한 반응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학은 이러한 창조적 반응속에서 존속되어 온 인간세계와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삶의 '생생한 현실'이자 인간세계 속에서 산출된 '살아있는 창조적 반응'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때, 문학이 생생한 창조적 반응의 결정체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말의형식'으로서의 문학에서 '의미'라는 문학적 가치 역시 "협동적 창조 (collaborative creation)"를 통해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황정아, 2018).135) 예컨대 한 편의 문학작품이 생생한 현실성을 가진 이야기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것이 문자화된 '이야기'이어서가 아니라, 개개인이 그러한 문자화된 이야기와 만나는 경험을 통해 '의미'가 재창조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렌트가 말했던 바의 '이야기'가 행위로서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아가 그러한 말에 기원한 문학 또한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듯 '협동적 창조'를 통해 고유한 '의미'가 도출될 수 있기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¹³³⁾ 같은 책, 284쪽.

¹³⁴⁾ 황정아, 「문학성과 커먼즈」, 『창작과비평』 (2018년 여름호), 20~21쪽. 황정아에 따르면, 비평가 리비스(F.R.Leavis)는 "언어를 포함하는 인간적 세계"는 "협동적 창조(collaborative creation)"에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 때 '인간적 세계'란 "현재를 바꾸기 위한 살아있는 창조적 반응에서만 살아있는" 세계를 뜻한다. (F.R. Leavis, 『Nor Shall My Sword: Discourses on Pluralism, Compassion, and Social Hope』(1972) p.61. 황정아의 같은 글 각주 11)에서 재인용.) 135) 같은 글, 22쪽.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삶형태'로서의 언어를 통해 우리 삶에서 모든 종류의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어를 우리의 삶 자체를 재구성할 수있는 필수적인 커먼즈라고 할 때, 문학은 이러한 언어 자체가 지닌 참여적이고 대화적인 본성을 더욱 생기있고 다양한 목소리들로 표현하며 언어의고유한 특성을 되살려낼 수 있는 '사회문화적 커먼즈로서의 언어'에 대한 커머닝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즉, 문학작품과 이를 둘러싼 제반의 문학적 행위들을 포함하는 '문학'은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언어적 형태로 담아냄으로써 언어 자체가 지닌 대화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그것을 보존해가는 커머닝적 실천인 것이다. 따라서 문학으로부터 산출되는 고유한 가치로서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대화적인 속성을 띠며, 특히 커머닝으로서의 문학은 언어를 통해 의미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더 질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언어적 공간'을 설립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학이 이렇듯 언어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현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즉, 문학은 작품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현실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한다. 이는 문학적 행위를 통해 기존의 공동체가 재의미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주체'와 이들의 '공동체'역시 재발견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커머닝으로서의 문학'은 일차적으로 기존의 가치 질서에 의해 전유된 언어 커먼즈를 재발굴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언어의 재전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되는 문학적 가치로서의 '의미'는 이 행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삶을 갱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조'와도 직결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때 '창조된 가치'는 추상적 가치의 반복이 아니라, 참여한 행위 주체 모두의 협업을 통해 매 순간마다 고유하게 생성되는 '협동적 창조'의 산물로 보아야한다. 그러므로 문학은 단지 언어에 대한 커머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자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하고 새로운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 영역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커먼즈라고 볼 수 있다.

언어는 그 자체로 이중적이다. 언어적 배치들을 통해 언어는 그 자체가 완전히 주관적인 충동들로 동화된다: 하나는 언어가 그러한 (주관적인) 충동들을 생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는 개념들의 매개로, 보 편적인 것과 사회를 향해 피할 수 없는 관계를 설립하며 존재한다.

For language is itself something double. Through its configurations it assimilates itself completely into subjective impulses; one would almost think it had produced them. But at the same time language remains the medium of concepts, remains that which establishes an inescapable relationship to the universal and to society. (Theodor Adorno, On Lyric Poetry and Society.)

이렇듯 사회문화적 커먼즈로서 문학이 생산하는 새로운 가치란 커먼즈 일반이 그러하듯 기존의 가치, 특히 '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표준화되고 동일화된 가치와 경합할 수 있는 '인간성의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학을 통해 생산되는 '의미' 또한 인간성이라는 최후의 가치를 지향하며, 커머닝으로서의 문학은 이를 더욱 심화하기 위한 언어적 행위를 뜻한다고도볼 수 있다.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을 강조했던 아도르노는 이러한 "의미의영역(the sphere of meaning)"을 "서정(the lyric)"이라 부른 바 있다.137) 그는 「서정시와 사회(On Lyric Poetry and Society)」에서 "서정시는 사회와반하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것(lyric poetry as something opposed to society, something wholly individual)"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 안에는 사회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개인들의 여러 모습이 그대로 각인된, "본성적으로 사회적(social in nature)"인 것이라 본다.138)

그러나 이 각인은 그러한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재구성하는 것으로서의 시적 형상화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수록 더 완고하게 시의 내적 법칙에 따라 고유한 자신의 영역을 설립하는 '시적 저항'의 형태로 나타난다. 약간은 기이하게 보이기도 하는 완고한 '서정 정신'에 의한시의 '저항'은 물화된 세계의 우위와 인간성마저도 하나의 상품으로 지배하려는 총체적이고 기만적인 사회에 대하여 인간성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는 절박한 행위라 볼 수 있다.139) 그런 점에서 아도르노는 이러한 '의미

¹³⁶⁾ Theodor Adorno, Edited and Translated by Rolf Tiedemann·Shierry Weber Nicholson, 「On Lyric Poetry and Society」, 『Notes to Literature (Volume On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p.43

¹³⁷⁾ Ibid., p.40

¹³⁸⁾ Ibid., p.39

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서정시'는 그러한 대표적인 의미의 영역이라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의미의 영역으로서 '서정'과 '서정시'가 기존 질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시의 질료인 '언어'가 이미 충동으로서의 '주관성'과 개념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서의 '객관성'을 동시에 매개하는 '이중성'을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커먼즈로서의 언어가 가진 잠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서정시를 읽고 쓰는 행위로서의 문학적 커머닝은 이러한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함으로써 세상에서 도치된 둘 사이의 질서를 바로잡는 실천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내 주장은 서정적 작품은 항상 사회적 적의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정시를 생산하는 객관적 세계가 이미 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서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언어적 객관성을 통해 표현되는 주관성만은 아니다. 서정적 주체는 (주관성과 객관성) 모두를 더 설득력 있게 체현할 뿐만 아니라, (서정적 주체) 그 자체를 더 많이 표현한다; 게다가 시적 주관성은 이미 특권을 가지고 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의 압력은 오직 소수의 인간에게만 자기에로의 집중을 통한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허용하거나, 그들 자신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율적 주체들로 성장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고립된 채 견디고 있거나 시적 주체를 당혹스레 마주하는 역사의 객체들로 평가절하된 다른 많은 이들은, 그러나, 고통과 꿈이 함께 녹아있는 소리들을 더듬을 수 있는 같은 권리, 혹은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양도불가능한 권리는 그러나 불순하고, 훼손되고, 파편화되고, 간헐적인 양식들 속에서 -그러한 부담을 견뎌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능한 유일한 형식들로- 거듭 거듭주장되어 왔다. (강조는 논자)

My thesis is that the lyric work is always the subjective expression of a social antagonism. But since the objective world that produces the lyric is an inherently antagonistic world, the concept of the lyric

¹³⁹⁾ Ibid., p.40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lyric spirit's idiosyncratic opposition to the superior power of material things is a form of reaction to the reification of the world, to the domination of human beings by commodities that has develop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modern era,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became the dominant force in life."

is not simply that of the expression of a subjectivity to which language grants objectivity. Not only does the lyric subject embody the whole all the more cogently, the more it expresses itself; in addition, poetic subjectivity is itself indebted to privilege: the pressures of the struggle for survival allow only a few human beings to grasp the universal through immersion in the self or to develop as autonomous subjects capable of freely expressing themselves. The others, however, those who not only stand alienated, as though they were objects, facing the disconcerted poetic subject but who have also literally been degraded to objects of history, have the same right, or a greater right, to grope for the sounds in which sufferings and dreams are welded. This inalienable right has asserted itself again and again, in forms however impure, mutilated, fragmently, and intermittent - the only forms possible for those who have bear the burden. 140)

이처럼 '서정시'는 주관적인 만큼 더 객관적인 목소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언어라 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앞서 보았듯, 언어 자체가 주관성과 객관성, 즉 개인과 사회를 동시에 매개하는 덕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수많은 언어 형식 중 유독 서정시가 그러한 것은 "서정적인 것은 (주관과객관의) 변증법적으로 철학적인 명제에 대한 미적 시험(The lyric is the aesthetic test of that dialectical philosophical proposition)"이기 때문이다.141)

아도르노에 따르면, 사실상 주관과 객관은 원래 구분된 영역이 아니라 변증법적 사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각이 구분되고, 변화로 이어지며 점차더 심화되는 무한한 과정 속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정시에서의주체, 즉 '서정적 주체'는 언어를 통해 사회에 대하여 하나의 단자(單子)처럼저항하기도 하고 그를 통해 사회를 사회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고볼 수 있다.142) 이때, '서정시는' 주체의 고유한 목소리로 발화함으로써 사회

¹⁴⁰⁾ Ibid., p.45

¹⁴¹⁾ Ibid., p.44

¹⁴²⁾ Ibid., p.44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the lyric poem the subject, through its identification with language, negates both its opposition to society as

와 소통한다는 점에서, 또한 사회는 이러한 주체의 목소리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언어를 통한 실제적인 관계로서의 '만남'이 이뤄지는 하 나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관계가 실현되는 언어적 장(場)으로서의 서정시는 비단 뛰어난 예술적 이성을 가진 자들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획일화된 사회적 질서에 종속되거나 그 질서에서 밀려난 자 모두에게 '더 많이'열려있는 '유일한' 말의 형식이라는 점이다. 이는 "더 이상 선물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물을 필요로 한다"고 아도르노가 말했던 바와 같이,143) '의미'라는인간적 가치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 있으며 함께 구축해나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서정시를 비롯한 문학이 '의미의 영역'으로서의 '공통성(commonality)'이 성립될 수 있는 영역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라할 수 있다. 특히, 서정시를 쓰는 시인과 교양있는 감상자, 즉 '뛰어난 예술적 이성'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서정시를 읽고 쓰는 행위 전반에 참여하는이들 모두 '객체이자 주체'로 '서정의 영역'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먼즈적 주체'의 한 모습으로 '서정적 주체'를 그려볼 수도 있다.

이처럼 아도르노가 '서정'과 '서정시'를 강조했던 것은 총체적 질서로 포섭된, 야만적으로만 보이는 현대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선물'을 주고받듯이, 서정시가 쓰이고 읽힐 수 있는 인간적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서정시가 쓰이고 읽히는 만큼우리 모두의 삶과 이 사회가 "자기식의 행복"이 아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144) 따라서 지극히

something merely monadological and its mere functioning within a wholly socialized society."

¹⁴³⁾ 테오도르 아도르노, 『미니마 모랄리아』, 65쪽. 「21. 물물교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물이 넘쳐흐름 속에서 넘쳐버린 것, 즉 너무나 풍요로워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이 되었을지라도 (중략) 더 이상 선물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물을 필요로 한다." (본고 Ⅲ.1. 참조)

¹⁴⁴⁾ 아도르노는 「139. 수취인 불명」에서 "오늘날 선사하는 행위의 붕괴는 '받아들임'의 경직과 짝을 이룬다"고 「21. 물물교환은 허용되지 않는다」에서의 '선사하는 행위'만큼 '받아들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때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행복'이라고 말한다: "'준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누군가가 타인을 위해 무엇인가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도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중략) 오늘날 선사하는 행위의 붕괴는 '받아들임'의 경직과 짝을 이룬다. 이러한 경직성은 행복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나아가며 진정한 행복이 부정됨으로써 사람들은 자기 식의 행복에 집착하

주관적인 마음의 객관적 표현으로서의 '서정'을 핵심으로 '의미적 영역'을 구축하는 문학은 단순히 언어적 활동으로서의 커머닝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가장 주관적인 곳에서 가장 객관적인 것이 맞닿을 수 있는 공통적 가치가실현되는 '언어적 장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커먼즈로서의 문학은 '진정성'이라는 가치가 이 세상의 질서에 틈을 낼 수 있는 '창조적 역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실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커먼즈의 잠재적 가능성을 이미 실현하고 있는 커먼즈이며, '서정적 주체'라는 커먼즈적 주체의 한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지식 경제(knowledge economy)' 혹은 '창조 경제(creative economy)'라는 말이 '부드러운 자본주의'의 모습으로 일상 속에 파고든 지금, "언어는 표준화된 수단의 체계를 통한 객관적 주요 도구가 되는 운명을 겪었"다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지적처럼 언어의 도구화는 언어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또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145) 언어를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문학'이 대표적인 '문화 상품'으로 기능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문학적 가치를 시장이 낚아채려 한 만큼 사실 그 가치가 깊고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문학이라는 '서정의 영역'을 지키고가꾸어가는 행위, 즉 커먼즈로서의 문학에 대한 커머닝적 실천은 보다 더 '삶다운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첫 노력이 될 수 있다.

게 된다. (중략) 행복 안에서 힘을 탕진하는 것-이것은 행복의 비밀인데-을 그들은 견딜 수 없다. (중략) 행복은 시대에 뒤진 것, 비경제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의 이념인 암수가 하나가 되는 것은 풀어진 상태와는 반대되는 것, 즉 축복받은 긴장이기-굴레를 짊어진 모든 노동이 저주인 것처럼- 때문이다."(같은 책, 285~286쪽, 강조는 논자); 또한 서동진(2021) 역시 아도르노의 같은 글에 대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인일이라고 음울하게 되뇌는 아도르노가 아니라 서정시를 쓰고 읽어야 한다는 또다른 아도르노를 만난다. (중략) 그것은 사회를 직접적으로 들먹이는 메시지로서의 언어도, 어떤 주장을 던지며 의사소통하는 언어도 아닌 독백에 가까운 서정시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 언어는 경험이 어떻게 매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부호이다"라고 해석한다. (참조: 서동진, 「"서정시와 사회", 어게인」, 『동시대 이후:시간-경험-이미지』 (서울: 현실문화연구, 2021), 205~207쪽.)

¹⁴⁵⁾ 프레드릭 제임슨, 신현욱 역, 『문화적 맑스주의와 제임슨: 세계 지성 16인과의 대화』 (파주: 창비, 2014), 249쪽.

Ⅳ. 문학의 정치성과 공통성

Ⅳ.1. 자크 랑시에르의 '문학의 정치'

커먼즈론이 "세계의 자본주의"에 대한 "삶의 비자본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기존의 공동체적 질서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수행적 비판 담론이라 한다 면,146) "공동체를 경영하는 기술인 치안(police)"에 맞서 "전제로서의 평등을 현실화하는 것인 정치(la politique)"를 강조하는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정치철학 또한 기존 공동체의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랑시에르 역시 현 시대를 "지배 의 세계(the world of domination)"이라 정의하며, "공통적인 것의 평등의 형식을 지금-여기(*hic et nunc*)에서 구성"하기 위한 저항이 필요하다고 본 다.147) 물론 이때 '지배'의 주체는 모든 가치를 상품으로 치환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며, 특히 전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하에 서는 '합의'의 질서가 더 도드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그는 '치 안'에 기반한 합의적 체제(consensus)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으로 '정치'를 통 한 불일치적 체제(dissensus)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다만 랑시에르가 주장하는 바의 불일치적 체제 구축은 "공통의 삶(la vie en commun)" 혹은 "공통-되게-있음(l'être-en-commun)"이라는 이념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된다 고 본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148)

정치는 흔히 권력의 실행 또는 집합적인 의지와 이익의 실현 그리고 집합적인 아이디어들의 입법으로 보여진다. 지금, 그러한 제정 또는 실현은

¹⁴⁶⁾ 맛시모 데 안젤리스, 『역사의 시작』, 81쪽.

¹⁴⁷⁾ Jacques Rancière, Translated by Steven Corcoran, 『What Times Are We Living In?: A Conversation with Eric Hazan』 (Cambridge: Polity Press, 2021), pp.54~65.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agree on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 *hic et nunc* of egalitarian forms of the common cannot be dissociated from struggling against forms that structure the world of domination."

¹⁴⁸⁾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서울: 도서출판 길, 2016), 14~17쪽.

당신의 환상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법률 조항 등으로) 진술됨으로써 당신이 공통 세계를 공유하는 주체로서 계산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정치 의 이름이 정말로 마땅히 다뤄야 할 것은 이 공통 세계를 형성하는 감각들과 실천들이다. (강조는 논자)

Politics is commonly viewed as the practice of power or the embodiment of collective wills and interests and the enactment of collective ideas. Now, such enactments or embodiments imply that you are taken into account as subjects sharing in a common world, making statements and not in your own fantasy. What really deserves the name of politics is the cluster of perceptions and practices that shape this common world. Sacques Rancière, Disseneus: On Politics and Aesthetics.

"통치 활동, 집단생활을 규제하는 법 조항들 그리고 투쟁 중인 소규모 집단들의 행위"가 사실은 '공통의 삶'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이념의 소관"으로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랑시에르는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은 다수의 평등을 실현하는 '불일치적 민주주의'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예속과 지배등을 다루는 '신학-정치적 비극'이거나 공동체적 습속으로 회귀하는 '사회학적 희극'일 뿐이라 비판한다.150) 대신 그가 강조하는 바의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은 "경험의 구체적인 영역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볼 수 있는 것을 나누고 또한 그럴 수 있는 주체들을 지정하는 "감지 가능한 것의 구분(분배)(partition(distribution) of the sensible)"이다.151) 즉,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말과 소음을 구분하는 시·공간의 경계를 획정함으로써 결국 "경험의 형식"을 정하는 방식이 "정치"라는 것이다.152)

이처럼 랑시에르가 정치를 단순히 공동체적 질서를 수립하는 행위로서가

¹⁴⁹⁾ Jacques Rancière, Editied and Translated by Steven Corcoran, 「The Politics of Literature」, 『Dissensus: On Politics and Aesthetics』 (London: Continuum, 2011), p.152

¹⁵⁰⁾ 자크 랑시에르, 같은 책, 같은 곳.

¹⁵¹⁾ Jacques Rancière(2011), Ibid., p.152

¹⁵²⁾ Jacques Rancière, Translated by Gabriel Rockhill,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Politics and Aesthetics」, 『The Politics of Aesthetics: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London·New York: Continuum, 2004), p.13

아니라, 개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향유하는 경험의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그의 정치 개념이 '감각적 지각의 방식(mode of sensible perception)'으로서의 "아이스테시스(aisthēsis)"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153) 그의 '미학-정치'론이 기원한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판단력비판』(1790) 등을 통해 계몽된 자율적 주체의 감각적 지각 및 체험은 단지 '공동체적 질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간 및 공간 등의 '선험적지각 형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랑시에르가 주장하는 바의 주체의 역량을 긍정하고 해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 역시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험의 선험적 형식'을 재설정하는 "미학적 실천(aesthetic practice)"이어야 하며, 이러한 '미학-정치적 실천'을 통해 공동체의 질서 또한 재배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154) 즉, 랑시에르는 시·공간의 선험적지각 형식을 공유하는 한 모든 주체는 자율적인 감각 경험을 할 수 있고,이러한 경험의 '평등성'을 긍정하고 해방하는 '미학-정치'를 통해 공동체적질서 또한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예술'을 '감지 가능한 것의 배분'이 이뤄지는 미학-정치적 실천의 장(場)으로 간주하며, 이를 중심으로 공동체적 질서가 변화되어온 패턴을 "예술의 체제(regime of the art)"로 정리한다. 주지하다시피, 이체제는 플라톤의 『공화국(Republic)』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연원한 "이미지의 윤리적 체제(the ethical regime of image)",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Poetics)』에서 드러나는 "예술의 재현적 체제(the representative(poetic) regime of the art)", 그리고 앞서 보았듯 랑시에르 본인이 강조하는 바의미학-정치를 실현하는 "예술의 미학적 체제(the aesthetic regime of the art)"로 요약될 수 있다.155)

조화로운 공동체적 질서를 강조하는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시인을 추방하는데, 왜냐하면 시인과 시인이 만들어내는 가상으로서의 '이미지'는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대중의 감각과 정서를 자극하는 시인을 공화국에서 추방하고, 공동체의 습

¹⁵³⁾ Claire Bishop,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London/New York: Verso, 2012), p.27

¹⁵⁴⁾ Jacques Rancière(2004), Ibid., p.13

¹⁵⁵⁾ 자크 랑시에르, 오윤성 역, 『감성의 분할』 (서울: 도서출판 b, 2008), 25~40쪽; Jacques Rancière(2004), Ibid., pp.20~30

속(ethos)에 부합하는 시만을 허용했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을 통해 탁월한 시적 모방에 의한 시는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시에서 제시되는 행동을 모방하도록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적 질서를 강화할 수 있는 예술적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의 재현적 체제'는 시학(mimesis)의 자율성이 확보된 첫 예술적체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 체제에서 확보된 시학의 자율성은 공동체의위계적 질서 속에서 획득된 수동적 자율성이라는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플라톤의 '윤리적체제'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재현적체제'의 두 체제 모두공동체 질서로의 '일치'를 추구하는 예술적체제라 할 수 있다.

칸트를 경유하여 수립된 예술의 미학적 체제는 단순히 예술작품에 관련된 사유의 체계로서의 미학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의 지각 형식 자체에 개입하는 의미에서의 미학이 작동하는 체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에서는 어떠한 예술작품, 주제, 장르의 '위계'나 특수한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운, 감각적 지각을 현시하는 하나의 '점유(occupation)'로서 예술의 역량그 자체를 긍정한다. 이때의 '점유'란 곧 공동체 안에 그러한 몫의 장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예술은 또한 '불일치'를 지시하며, 랑시에르가 정치를 "점유들과 공간들의 속성의 짜임"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미학적 예술 체제는 곧 '감지 가능한 것의 분배'의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미학-정치'의 토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156)

이는 단순히 예술의 자율성과 이를 통한 공동체적 질서의 변화, 즉 이전의 두 체제가 전제했던 바의 예술과 삶이 일치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미학적 체제의 예술은 예술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만큼 예술에 속한다. 예술의 타율성을 수집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만큼 자율적이다"157)라고 랑시에르가 직접 말하고 있는 바처럼, 예술과 삶 사이의 불일치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예술을 통한 공동체적 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학적 체제는 모든 종류의 '구분'을 폐기하는 '평등적체제'라고도 볼 수 있다.

문학을 의미를 구현하는 미문(美文)의 양식이 아니라 "글쓰기의 기교(the art of writing)"라 정의하는 랑시에르의 '문학의 정치(the politics of

¹⁵⁶⁾ 자크 랑시에르, 진태원 역, 『불화』 (서울: 도서출판 길, 2016), 63쪽.

¹⁵⁷⁾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해방된 관객』 (서울: 현실문화, 2020), 198쪽.

literature)' 역시 이러한 미학적 체제의 산물이다.158) '감지 가능한 것의 배분'으로서의 '정치'가 감각적 지각 경험의 영역을 재구성하는 행위라고 할때, '문학의 정치'는 이러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등의 감각 경험의 영역에 "문학으로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159) 이때의 '문학적 개입'은 곧 '말의 자리'를 설립함으로써 말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진 역량을 통해 기존에 구획된 치안적 질서에 틈을 낸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학은 '화석화된 말(petrification)'이라 할 수 있는 문자의 출현을 통해 그 너머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일종의 "이중화된 현실"이기도 하다.160)

랑시에르에 따르면, 플라톤이 『파이드로스』에서 문자를 추방한 것은 그것이 진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진실하기(too faithful)" 때문에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자들의집합인 문학 텍스트는 '육화된 로고스'의 극장이며, 이곳에서 문자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사람들의 사유와 영혼을 자극하고 나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말(parole)'을 행하도록 한다. 또한 문자들은 텍스트라는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유희(play)하며 서로를 넘나드는 관계를 동시에 산출하기도 한다.161)즉, 문학은 "확정되지 않은 물체"로서의 문자가 그들 사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그런 소란이 "전시되는 환경"인 것이다.162) 그런 점에서 문학은 일차적으로 문자들, 나아가 언어 고유의 유희적 운동이 발생하는 '문자들의 자족적인 체계'라 할 수 있으며, 이 체계에서는 단일한 '불화적 의미'가 아니라, 문자들 사이를 넘나드는 '불화 자체'로서의 '의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자 간의 불화가 발생하는 현장으로서의 '문학'은 "문자의

¹⁵⁸⁾ Jacques Rancière, "Disseneus: On Politics and Aesthetics,", p.153

¹⁵⁹⁾ 자크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11쪽.

¹⁶⁰⁾ 자크 랑시에르, 『불화』, 166쪽. "완전한 가시성의 세계는 출현(외양)이 더 이상 도래하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의 이중화 및 분할 효과들을 산출하지 않는 어떤 현실(공통적인 것)을 설치한다. 사실 출현(외양), 특히 정치적 출현(외양)은 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중화하는 것이며, 현실 속에 계쟁 대상들을 도입하는 것이다." (강조는 논자)

¹⁶¹⁾ Jacques Rancière, Translated by Charlotte Mandell, 『The Flesh of Words: The Politics of Writing』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3~5. "It(Literature) is rather a logic of perseverance in its(language's) being. Literature lives only by the separation of words in relation to any body that might incarnate their power. It lives only by evading the incarnation that it incessantly puts into play." (강조는 논자)

¹⁶²⁾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172쪽.

급진적 민주주의(the radical democracy of the letter)"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도 볼 수 있다.163)

문학의 민주주의는 누구든 취할 수 있는 삶의 제도이다. 영웅들이 이끄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거나 영웅들을 작가들로 투영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 스스로를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논의로 끼워넣기 위해서이다. 이는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 영향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지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분배의 문제이자 말하는 행위와 그것이 설정하는 세상과 사람들의 능력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문제이다.

The democracy of literature is the regime of the word-at large that anyone can grab hold of, either to appropriate the life led by the heroes or heroines of novels for themselves, or to turn themselves into writers, or to insert themselves into the discussion of common affairs. It is not a matter of some irresistible social influence; it is a matter of a new distribution of the perceptible, of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f speech, the world that it configures and the capacities of those who people that world. Sacques Rancière,

"The Politics of Literature."

이처럼 랑시에르가 문학을 '문자의 급진적 민주주의'라고 정의했을 때, 문학은 단지 문자들의 평등한 나열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문자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학의 민주주의'는 우선 그 문자를 접하는 '누구나'로 하여금글을 직접 쓰거나 씌어진 작품 속 문자를 통해 어떤 의미를 전유하는 등 문자를 가로챌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자의 급진적 민주주의를 통해 감지 가능한 것의 질서가 재분배되며, 이는 새로운 말의 창안과 동시에 인민(people)의 역량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성도 띤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문학에서는 문자가 어떤 주제나 형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¹⁶³⁾ 황정아, 「자끄 랑시에르와 '문학의 정치」, 『개념비평의 인문학』 (파주: 창비, 2015), 265쪽.

¹⁶⁴⁾ Jacques Rancière, Translated by Julie Rose, "The Politics of Literature"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4), p.13

점에서 '평등'의 전제가 이미 작동하고 있지만, 이 평등은 독자들의 '전유 역량(the capacity for appropriation of any reader)'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학적 체제 하의 '문학성(literacy)'은 민주주의의 성격(democratic literarity)을 띤다고 볼 수 있다. 165) 요컨대 랑시에르의 '문학의정치'는 문학 내적으로 작동하는 '문학의' 정치와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세계에 대한 감지 가능성까지 재분배하는 '문학을 통한' 정치의 이중적 층위가 동시에 작동하며, 이것이 '정치'인 한 '민주주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첫번째로, 어떤 삶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체의 평등성과 어떤 단어나 구문의 효용성, 두번째로, 비극적 주인공이나 연설가들 보다 뛰어난 언변을 갖추는 무언의 것들에 대한 민주주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목적이 없는 상태의 분자적 민주주의가 있는데, 이는 연설가 집단이 형성한 거대한 소음과 그것에 대해 서면화된 판독 신호와 연관된 해석학적 잡음모두를 반박하는 것이다.

Firstly, the equality of subjects and the availablity of any word and any phrase to build the fabric of any life whatever. (...) Next, there is the democracy of mute things that talk better than any prince of tragedy but also than any orator of the people. And lastly, there is the molecular democracy of the states of things with no rhyme or reason, which refutes both the great racket made by the club orators and the great heremeneutic chatter involved in the deciphering of signs written on things. (The Politics of Literature)

위에서 볼 수 있듯. '문학적 민주주의'167)는 세 가지 형태의 평등을 제시하

¹⁶⁵⁾ Ibid., p.13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equality between subjects and forms of expression that defines the new literature happens to be linked to the capacity for appropriation of any reader whatsoever."

¹⁶⁶⁾ Ibid., p.26

¹⁶⁷⁾ 황정아(2015)는 문학적 평등의 세 가지 민주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 번째는 '누구나 무엇이든 어떻게든'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른바 '저잣거리 소음으로서의 민주주의'다. 두 번째는 세계의 사물들에서 징후적으로 진실을 읽어낼 수 있는, 이른바 '무언의 사물들의 민주주의'이며, 마지막은 전개체적 단위를 가시적인 것으로 만드는 '분자적 민주주의'로 지칭된다." (참조: 황정아, 같은

며 문학의 정치를 실행한다. 첫 번째 평등은 어떤 말이나 구절도 문학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문학적 고유어와 일상어 간의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랑시에르 고유의 '문학성'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평등은 말없이 존재하는 문자들이 더 많이 말할 수 있다는, '말의 해방'에 관한 것이다. 이 역시 랑시에르가 수립한 바의 세 가지 예술 체제, 윤리적체제, 재현적 체제, 미학적 체제 중 앞의 두 체제에서 '억압'되거나 '이용'된 말의 역량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랑시에르의 미학적 체제 하의 문학의 정치론에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평등이라 할 수 있다. 즉, 문자 자체들에 대한 어떠한 담론적 개입이나 해석학적 수다와도 무관하게, 다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물적 개체들을 일종의 '분자들'로 드러냄으로써 감지 가능한 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말이 지닌 역량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의 문학의 정치는 통시적으로 진행된 일종의 문학의 정치성에 관한 역사가 아니라, 미학적 체제 속에서 윤리적 체제와 재현적 체제의 긴장적 관계 또한 지속되듯,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의 평등이 문학 안에서 서로 충돌하며 문학 고유의 정치를 함께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 적이다.

문학과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부분들의 셈 위에 그리고 합의하고 동의하는 신체들의 완결성 위에 이중인화됨으로써 어떤 신체와도 일치하지 않는, 교환 가능한 사물들의 특성들도 아니고 교환 관계들의 협약들도 아닌 단어들(mots)로 이루어진 존재들, 신체 없는 존재들의 존재를 창시한다. (중략) 이 평등은 언제나 은밀하게 공동체를 가로질렀다. 왜냐하면 평등은 공동체 내 신체들의 어떤 분배에서도 정당화된 자리를 갖지 않으며, 언제나 일시적으로만, 언제나 국지적으로만 신체들을 그들의 장소 바깥에, 그들의 고유함 바깥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168)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 (강조는 논자)

문학이 정치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어들'이라는 문학 고유의 비-신체를 현

책, 268쪽)

¹⁶⁸⁾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184쪽.

실 속에 가시화하며, 이를 통해 현실 이면의 현실을 감지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신체 질서를 재구성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문학을 통한 '감지 가능한 것의 (재)분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에 의한 정치'가 '평등'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모든 이들과 사물들을 문학의 무대 위로 등장시켜서가 아니라, 문학 고유의 문자와 단어들을 통해 기존의 합의된 세계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다수성"을 '동등하게' 환기하고, 나아가 현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랑시에르는 문학이 제 자신을 통해 구사하는 '평등'은 어떤 공동체적 가치나 합의된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가로질러 "다수성의 경험, 불일치의 경험, 낯섦의 경험, 어떤 망명의 경험"을 공동체 속에나란히 전시하는 것으로서의 '감각적 평등'이라 할 수 있다.169)

그는 이러한 문학적 글쓰기를 평범한 것을 낯설게 변모시키는 "글쓰기의 탈고유화(désappropriation)"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자기와 자기의 관계 속에 염려스러운 '그'를 기입"함으써 글쓰기는 일치적 경험이 가정하는 '고유성'을 해체하는 불화의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은 '그'라고 불리우는 "유령"을 자기 안에, 자기와 그들 사이에 "하나-더(un-en-plus)" 기입함으로써, '계산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불화적 공통영역이라 할 수 있다.170) 이처럼 랑시에르는 '하나-더'를 셈할 수 있는 역량이 문학에 내재해 있다고 보며, 바로 이것이 문학이 행할 수 있는 정치라고주장하다.

Ⅳ.2. 문학의 '불화적' 정치성과 '화해적' 공통성

문학적 불일치는 새로운 공동체들의 낱말들과 함께 형성되는 정치의 주체화 작업과 차별화된다. 정치적 불화는 익명인들-"우리"-공동체의 선언을 정치적 대상들과 행위자들의 영역을 재구성하는 선언과 동일시하는 주체화 과정의 형태 아래에서 작동된다. (중략) 문학은 익명적 삶의 지각과 감각의 조직 안에서 언표 주체들을 해체한다. (중략) 문학적 오해는 정치적 불화에 말 없는 말의 이중적 무대를 대별시킨다.171) <자

¹⁶⁹⁾ 같은 책, 185~186쪽.

¹⁷⁰⁾ 같은 책, 187~189쪽.

크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강조는 논자)

기존의 공동체 질서와의 '불화'를 정치의 핵심적 요소로 보는 랑시에르는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문학의 정치' 역시 '문자들의 자족적 체계'로서 문학 의 '정치'와 이러한 문학을 통해 실현되는 세 종류의 '문학적 민주주의'로서 의 문학의 '메타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실행된다고 본다. 이때의 교차 또한 '불화적'으로 발생하는데, 정치와 문학의 관계에 대하여 랑시에르는 "정 치는 전체(the whole)에 작용하고, 문학은 단위(the unit)에 작용"한다고 말 한다.172) 요컨대 '정치에서의 불화'가 기존의 치안적 질서를 재구성하여 이전 주체와의 차이를 생성하는 탈정체화로서의 주체화의 의미를 가지며 그 결과 '프롤레타리아'라는 '불안정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면, '문학의 불화'는 그러한 정치와도 무관한 '자족적인 문자체계'로 존재하며, 불 안정한 그 공동체와도 불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학의 불화는 정치의 불화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정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73) 그는 이에 대해 다만 "문학적 오해는 정치적 불화를 위한 봉사에서 비켜서는 경향을 갖는다. 문학적 오해에는 자신의 정치, 오히려 자신에 고유 한 메타정치가 있다"고 말하며, 그러한 메타정치의 핵심은 문학이 기존의 "의미작용들로부터 신체들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기꺼이 맡는다고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그에게 정치와 문학은 모두 '발명된 허구들'로서, 감각 경험의 영역을 구획하는 치안 질서 속에 '유령적 타자'를 기입하며 '계산착오'의 셈 법을 구사하는, '불화'로서의 '정치적인 것'의 실현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로서의 불화가 문학과 정치 모두에서 핵심적 기제가 되는 것은 '불일치'가 "동일한 것의 차이(a difference within the same)"와 "대립 된 것의 동일성(a sameness of the opposite)"을 동시에 의미하는, 차이의

¹⁷¹⁾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69~70쪽.

¹⁷²⁾ 황정아, 같은 책, 270쪽.

¹⁷³⁾ 같은 책, 271~272쪽. 황정아(2015)는 정치적 불화와 문학적 불화의 충돌에 대하여 1) (랑시에르의) '정치'가 갖는 불화의 의미가 퇴색하고 자체 내에 자기배반의 의혹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아름다운 총체'를 향하는 정치가 될 수 있다는 위험) 2) 정치가 행한 불화를 무력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합의 체제의 지속을 방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시를 통해 기존의 동일적 질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불일치적 공통 감각'의 영역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174) 일체의 공동체적 조화와 통일성으로서의 '공통적 세계(common world)'를 하나의 '습속(ethos)'에 기반한 질서일 뿐이라 비판하는 랑시에르는 말과 문학처럼 장소의 '점유'를 통해 '불화적인 공통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이 곧 '감지 가능한 것의 분배'라고 말하기도 한다.175) 즉, '몫 없는 자들의 몫'을 현시하는 공간으로서 '불화적 공통영역'을 공동체적 질서에 기입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에 의해 잠식된 영역을 드러내는 정치적 실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세계'의 공통성을 다시 짜는 주체적 실천이자 "다른 공통-속-세계(a different world-in-common)"를 구축하는 행위라고 본다는 점에서 랑시에르의 '불화'는 커먼즈론에서 강조하는 바의 '자본과 다른 것이 되기'로서의 가치 실천과 통하는 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176)

그러나 '허구적 발명'이라는 용법을 구사하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듯, 랑시에르의 불화는 역설적으로 '치안적 질서'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 가능한 '반(反)-질서'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즉, 랑시에르가 말하는 바의 '정치'는 치안과 정치로 "이분화된 구도"가 전제되어야 '주체적 역량의 긍정과 해방'으로서의 정치의 의미 자체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77) "모든 주체화는 탈정체화이고, 어떤 장소의 자연성에서의 일탈이며, 아무나 자기 자신을 셈할 수 있는 주체의 공간의 개방"으로서의 정치는 '자연적인' 정체성으로 배분된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치안

¹⁷⁴⁾ 김기수, 「랑시에르의 비판적 예술에 관하여: 예술의 전략의 문제를 중심으로」, 『철학논총(83)』 (2016년 1월), 12쪽.

¹⁷⁵⁾ Jacques Rancière(2004), Ibid., p.42 "A 'common' world is never simply an ethos, a shared adobe, that results from the sedimentation of a certain number of interwined acts. It is always a polemical distribution of modes of being and 'occupations' in a space of possibilities."

¹⁷⁶⁾ Jacques Rancière(2011), Ibid., p.92 「Biopolitics or Politics?」 "There are two constrating structurations of the common world: one that know only of bios (from transmission through bloodiness to the regulation of population flows); and one that empowers artifices of equality, that is forms enacted by political subjects which re-figure the common of a 'given world'. Such subjects do not affirm another type of life but configure a different world-in-common." (강조는 논자)

¹⁷⁷⁾ 백낙청, 「D.H. 로런스의 민주주의론」, 『창작과비평』 (2011년 겨울호), 403~408쪽

의 질서를 부정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탈정체화 작업으로서의 정치적 행위는 '치안의 부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178)

물론 랑시에르의 이러한 불화적 정치론은 감지 가능한 것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주체들을 드러내면서 현실적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활력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듯 치안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불화적 정치는 다시 치안적 질서의 (재)구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과정적이고일시적인 행위'라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랑시에르의 이러한 반(反)치안적 질서의 구축으로서의 정치는 현실에서 실제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 치안적 질서의 효용마저도 부정할 수 있다.179) 그런 점에서 불화적 정치를 통해 어떤 종류의 '공통영역'을 우리 사회 속에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이러한 불화적 정치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랑시에르 고유의 '미학적체제'로서의 정치적 기획 하에서 "감각 경험의 '해방'"이 결국 미학-정치의지향이라는 점과도 연결지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그가 강조하는 바의 '미학-정치'의 핵심 동인으로서의 '자율적 감각 경험'을 할 수 있는 역량이과연 현실적 질서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감각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질서를 변형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러의) 15번째 편지의 마지막에서 그는 그 자신과 독자들을 '자유로운 외양(appearance)'의 견본, 주노 루도비시(Juno Ludovisi)라고 알려진 그리스 조각상 앞에 위치시킨다. 이 조각상은 신성의 특징, 곧 온갖 근심이나 의무로부터, 온갖 목적이나 의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그녀의 '평온함'에 걸맞게 '자족적'이며,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있다.' 여신이 이처럼 평온함을 보이는 것은 그녀가 아무런 의지나 목적의 흔적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그리하여 조각상은 역설적이게도

¹⁷⁸⁾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73쪽.

¹⁷⁹⁾ 황정아, 「팬데믹 시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모델'」, 『창작과비평』 (2020년 가을호), 22~24쪽. 황정아는 이 글에서 팬데믹 시대의 '비판적 담론'이 실제 현실의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치의 모습을 구상하는 것마저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런 비판으로 정치성을 대체하면서 실제로 어떤 통치가 작동되어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가 하는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점이 더 심각하다."

결코 만들어지지 않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었던 적이 없는 것을 형상화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조각상은 예술작품이 아닌 것의 성질을 구현한다. (중략) 이와 상응하여 '자유로운 외양' 앞에서 미감의 자유로운 유희를 경험하는 관객은 매우 특별한 자율성을 영위하게 된다. 이는 감각의 무정부 상태를 억누르는 자유로운 이성의 자율성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종류의 자율성의 중단이다. 그것은 힘의 철회와 엄밀하게 연결되어있는 자율성이다. 주체는, 그가 어떤 식으로든 소유할 수 없는 이러한 형상에 의해 새로운 세계를 소유하도록 약속받는다. 여신과 관객, 자유로운 유희와 자유로운 외양은 능동과 수동, 의지와 저항의 대립을 무화함으로써 특수한 감각기관 속에 함께 포획된다. '예술의 자율성'과 '정치의 약속'은 대치되지 않는다. 180) (강조는 논자)

이처럼 '미학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감각은 예술작품을 통한 '자유 유희 (free play)'에서 비롯된다. 주로 이러한 '감각적 자율성'이 실현되는 장소는 '책, 극장, 미술관'과 같은 '중성적 장소'들인데, 기존의 '치안적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이러한 장소들에서 비로소 기존 질서의 구획을 일별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에 나타나듯, 조각상의 자족적이고 자유로운 외양은 관객으로 하여금 그 조각상의 내용에 대한 감상을 넘어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도록 한다. 즉, 관객은 조각상을 통해 구획된 감각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감각의 영역에 진입하는데, 이것이 랑시에르가 강조하는 바의 관객이 행하는 '자유로운 외양'의 조각상과의 '자유로운 유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 유희로인해 관객은 '감지 가능한 것의 배분'을 실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필연적으로 '미학-정치'와 만나게 된다. 이처럼 '자족적이고 자유로운 외양'은 그리스 조각상뿐만 아니라, 문자들의 무대인 문학 텍스트에서도 발견되는 예술 자체의 고유한 정치성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예술과 정치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랑시에르가 말하고 있는 바의 예술작품의 '자유로운 외양'이 아니라, 예술작품 앞에 선 관객들의 '자 유로운 유희'라는 점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는 문학을 포함한

¹⁸⁰⁾ 자크 랑시에르, 이택광 역, 「미학 혁명과 그 결과」, 『뉴레프트 리뷰』 (서울: 도서출판 길, 2009), 470~471쪽.

예술을 통한 정치, 곧 미학-정치는 예술작품의 자족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주체의 자유롭게 유희할 수 있는 역량, 즉 '전유역량'이 있어야 비로소 비롯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 유희로서의 '전 유 역량'을 예술작품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면, 이러한 '관계 맺기'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미학-정치의 기획도 현실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181)

그런 점에서 랑시에르가 강조하는 바의 '감각 경험의 자율성'과 이것의 실현으로서의 '불화'가 현실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경험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조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이를 통해 그 조건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경험의 반(半)자율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긍정'으로, 미학적 체제 자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필요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랑시에르가 비판하는 바의 "무능력한 자들의 능력"을 "폭로"하거나 "온정 넘치는 염려"를 남발하는 "식견 있는 이성의 무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능력을 사회적 현실 속에서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실적 인식이며, 이 능력을 '병든 사회'와 '함께 해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이성적인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182)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기반한 '수행적 실천'으로서의 커먼즈론은 랑시에르가 강조하는 바의 '불화'를 넘어서는, 불화를 거쳐 궁극적으로 '화해'를 향하는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해'로서의 커먼 즈론은 단순히 '반(反) 질서'로서의 정치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통해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불화 역시하나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포함할 수 있는, 근본적 '해방'을 꾀하는 기획이

¹⁸¹⁾ 윤영광, 「탈정체화의 정치: 랑시에르 정치철학에서 주체(화) 문제」, 『문화/과학』 (2014년 3월호), 301쪽. 윤영광 또한 "감각적인 것의 나눔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몫, 자격,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로 우리를 보고 들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존재가 달라지지 않으면 감각적인 것의 나눔은 변하지 않는다."고 실제 사회적 현실 속에서의 관계의 재구성의 필요를 강조한다.

¹⁸²⁾ 자크 랑시에르, 『해방된 관객』, 58쪽~69쪽; 서동진, 「반Anti-비In-미학 Aesthetics: 랑시에르의 미학주의적 기획의 한계」, 『동시대 이후: 시간-경험-이미지』 (서울: 현실문화연구, 2021), 162~186쪽. 서동진 역시 이 글에서 랑시에르 가 '경험적 자율성'을 통한 비판 담론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특히 '식견 있는 이성의 무능력'과 관련하여 서동진(2021) 172~177쪽 참조.)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온전한 '해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어떻게 '화해'를 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때, 화해는 단순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Ⅲ장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기꺼이 대상을 향하는 "객체 우위적 관계"로서의 "미메시스적 관계"를 통해 나와 타자 모두의 재구성을 꾀한다는 것을 뜻한다.183) 이렇듯 '진정한 관계'를 통한 '주체의 재구성'은 경험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경험 속에 "나와 나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이전의 삶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역량이 이미 내재해 있음을 긍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화해'는 불화적 상태를 거쳐 세계를 비롯한 타자와의 잠재적 공통성(potential commonality)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부정의 변증법'적인 운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집승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물 위에 누워 평화롭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더 어떤 규정할 것이나 실현할 것도 없이......' 이런 상태가 과정이나 행위나 실현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고 본래의 원천으로 돌아간다는 변증법적 논리의 약속을 진실로 이행하게 될지 모른다. 추상 개념 가운데 '영원한 평화'라는 개념 만큼 실현된 유토피아에 가까운 것은 없다. 진보라는 경마장의 울타리 너머 구경꾼인 모파상이나 슈테른하임은 이러한 의도에 표현을 빌려준다. 그러한 의도가 갖는 부서지기 쉬운 연약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줍게......¹⁸⁴⁾ <테오도르 아도르노, 『미니마 모랄리아』 > (강조는 논자)

랑시에르가 궁전에서 휴식을 취하는 '어느 노동자의 무심한 시선'을 두고이러한 행위가 감각 경험의 자율성이 실현되는 모습이라 했을 때, 위에서볼 수 있듯, 아도르노 역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서의 경험의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가 개념화한 바의 '부정의 변증법'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불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화를 통해궁극적으로 '화해불가능성과의 화해'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한다고 할

¹⁸³⁾ 정석현, 「아도르노 미메시스 개념의 의미」, 425~432쪽.

¹⁸⁴⁾ 테오도르 아도르노, 『미니마 모랄리아』, 210쪽. 「100. 물 위에 누워」

때, 화해는 하나의 '유토피아적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유토피아는 '부서지기 쉬운 연약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불확실하고, 베일에 싸여있는 '부정적 유토피아'에 가깝다. 그러므로 아도르노의 '부정'은 총체화된 사회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것'의 의미도 있지만, 현실에 대한 철저한 자각에 기반한 '비판적 인식'으로서의 긍정적인 의미도 있음을 고려하면,185) 위의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모습'으로 기술된 '부정적 유토피아'는 사실상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만 비롯될 수 있다고 할 수있다. 그렇기에 불화를 통해 화해로 나아가는, 즉 '부정적 유토피아'를 향할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경험의 자율성'은 단지 현실에 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적이지 못한 만큼 더 현실에 '관심'을 기울일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랑시에르의 미학-정치론이 근거하고 있는 칸트의 『판단력비판』에서는 어떠한 이해 관심도(Interesse)도 결합되지 않은, 중립적이고 중성적인 '무관심성(Interesselosigkeit)'으로부터 발현될 수 있는 미적 인식능력으로서의 '미감적 공통감(aesthetic common sense)'은 '사회 속에서' 완성될 수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⁸⁶⁾ 이를 통해 볼 때, 랑시에르가 강조하는 바의 무관심한 상태에서 기존 질서를 일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감각적 질서를 기입

¹⁸⁵⁾ 정진범, 「현대적 조건 하에서 좋은 삶의 가능성에 대한 아도르노의 대답」, 79 쪽. 각주3) 참조.

¹⁸⁶⁾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판단력비판』 (서울: 아카넷, 2020), 194쪽; 323쪽. 취미 판단의 '무관심성'에 대해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바는, 대상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내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증명하기 위해 관건이 되는 것은, 내가 이 표상을 가지고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그것에서 내가 대상의 실존에 의존해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관심이 섞여 있는, 미에 대한 판단은 매우 당파적이고 순수한 취 미판단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취미의 사안에 있어 심판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사상(事象)의 실존에 마음이 이끌려서 는 안 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관)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강조는 필자) 또한 '사회 속의 관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경**험적으로는** 미적인 것은 오직 사회에서만 관심거리이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사회로의 추동을 인간에게 자연본성적인 것이라고, 또 사회에 대한 유능함과 성벽을, 다시 말해 사교성을 사회를 이루도록 규정된 피조물인 인간의 요건에, 그러므로 인간 성에 속하는 속성이라고 시인한다면, 사람들이 또한 취미를 자기의 감정마저 다 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을 파정하는 능력으로. 그러 니까 모든 사람의 자연적 경향성이 요구하는 것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아 야 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강조는 논자)

하는 행위로서의 '감지 가능한 것의 배분'은 단지 중립적이고 중성적인 장소에서의 철저한 '무관심'속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속에서의 '관심들'과 다시 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도르노 역시 진정한 미학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무관심'은 오히려 현실에 대한 철저한 자각, 즉 '극도의 관심'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이해관계를 떠나서 관찰된 것이 만족스러운 이유는 그러한 대상이 극도의 관심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라 관찰(계몽된 자기 단련의 승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인 것이다.187) 이때의 '관심'은 단지 예술작품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현실을 비롯한 모든 세계 속 존재와 '진정한 관계 맺기'까지 포함한다고 본다면, '경험의 자율성'은 단지 개별 주체만의 것이 아니라 관계적주체로서의 '자율적 경험 가능성'까지 의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공통 감각으로서의 이성적 사유 능력을 신뢰하는 '화해'의 행위, 즉 끝없이 뒤로 물러나는 '부정의 관계맺기'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해방'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서정'이라는 '의미적 영역'으로서의 문학은 이러한 관계 맺기로서의 '화해' 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언어적 장소'라 할 수 있다. 즉, 문학의 '공통성 (commonality)'이란 이러한 화해적 관계 속에서 '공통 감각'으로서의 이성을, 문학을 통해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학의 화해적 공통성은 화해가 이미 불화를 포함하고 있듯이, 문학은 기존 질서에 대하여 문학 고유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정치적 잠재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관적 목소리들'을 온전히 담아내는 '객관적 목소리'로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서정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비롯될 수 있다.

"새로운 예술은 논증적 언어를 미메시스적 언어로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하는 아도르노는, 진정한 예술작품은 '주체 자신의 표현'이라고 강조하기 도 했다.188) 이는 예술이 단지 자연에 대한 모사품이나 주체의 복제품으로서 가 아니라, 주체는 주체 안에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역사'를 작품을 통해 표 현하는 '표현자'이자 그러한 역사를 포함하는 주관성 자체를 표현하는 작품 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작품은 이러한 주체를 향해 열려있는, '미메

¹⁸⁷⁾ 테오도르 아도르노, 같은 책, 294쪽. 「144. 마술 피리」

¹⁸⁸⁾ 테오도르 아도르노, 홍승용 역, 『미학 이론』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0), 182~183쪽.

시스적 관계'가 발생하는 장(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화해'로서의 문학의 '공통성'은 우리 각자의 고유한 감각 경험들과 삶의 현실들을 하나의 의미 체계로 포섭하거나 '감각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반(反)질서를 시도하는 것을 넘어선다고 할 수있다. 즉, 화해가 "비스듬한 것, 불투명한 것, 붙잡히지 않는 것" 즉 '비동일적인 것에 대한 지극한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공통적'인 문학은 바로이러한 "폐기물들"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각자의 고유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진정성의 장소'일 수 있는 것이다.189) 이러한 문학은 현실의 질서 속에서 '이상하고, 괴상하고, 시시해보이는' 것으로 내팽개쳐지는 각자의 고유한 목소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단지 '몫 없는 자들의 몫'을 현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삶다운 삶'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서정적 주체'라고도 할 수 있다.

Ⅳ.3. '함께-쓰기'로서의 문학적 커머닝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vre)는 '예술 (art)'에는 현대 자본주의가 전유(appropriation)한 '도시(city)'에서의 경험적 시·공간을 재전유(reappropriation)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예술은 도시에서의 삶의 방법을 예술작품처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규모에서

¹⁸⁹⁾ 같은 책, 214~216쪽. 아도르노는 예술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미메시스적 화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술 작품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에 시선을 돌리게 되고 그로써 특수화를 이룰 수 있다.(중략) 화해는 비동일적인 것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를 비동일적인 것과 동일시한다. 예술은 자체와의 동일성을 추구함으로써 비동일적인 것과 동일해진다. 이것이 예술이 지니는 미메시스적 본질의 현 단계이다"(강조는 필자); 또한 비동일적인 것으로서의 '폐기물'에 대한 관심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인식은 일련의 승리와 패배로 점철된 역사의 불행한 직선적 성격을 재현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런 역동적 관계에서 빠져나간 것, 길가에 제쳐둔 것, 다시 말해 변증법에서 빠져나간 눈먼 지점들이나 폐기물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무기력하고 부적절하고 괴상하고 시시해 보이는 것이 바로 패배자의 본질이다. 지배적인 사회를 넘어서는 것은 단지 그것이 발전시킨 잠재력 뿐만 아니라 역사의 운동 법칙에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모든 것이다. 이론은 비스듬한 것, 불투명한 것, 붙잡히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니마 모랄리아』, 203쪽. 「98. 유산」, 강조는 논자)

의 실천(praxis)인 동시에 제작(poiesis)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190) 커먼즈론에서도 제기하고 있듯이, 우리의 경험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 형식이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이미 자본적 질서에 포섭된 지 오래되었다. 대다수 현대인의 생활공간인 '도시'라는 장소는 대표적으로 자본이 전유한시·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르페브르는 '예술적 실천과 제작'에 경험의 기본 형식마저 포섭해버린 자본의 힘을 재전유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예술 영역 내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예술'은 단지 미적 기량의 표현과 감상의 "사물적 대상(exhibited object)"만이 아니라, 미적 가치를 실천하고 실험하는 "특정 장소들의 배치(topology of particular places)"로 개념 자체가 확장되고 있다.191)

이렇듯 '전시되는 사물'에서 '실천의 장소'로의 예술 개념의 변화는 예술 자체에 내재한 급진적 문제의식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예술 차원의 시도라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변화는 미술 영역을 필두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술사학자이자 비평가인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은 이러한 미술 및 예술계의 변화를 예술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이라 진단하기도 한다.192) 즉, '장소로서의 예술' 개념이 확산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강화로 인한 예술 시장(art market) 내의 위기의 소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변화의 추동력으로서의 예술의 역량을 예술 자체와 사회에서 더 많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러한 '예술-장소'로의 변화는 예술작품이 단지 사물의 '전시(exhibited thing)' 차원이 아니라, 사회나 공동체 내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project)'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참여적 예술(participatory art)" 장르의 발전으로 이

¹⁹⁰⁾ Henri Lefevre, Translated and Edited by Eleonore Kofman and Elisabeth Lebas, 『Writings to the Cities』 (Oxford: Blackwell, 2000), p.173 원문은 다음과 같다: "Leaving aside representation, ornamentation and decoration, art can become *praxis* and *poiesis* on a social scale: the art of living in the city as work of art."

¹⁹¹⁾ Boris Groys, 「Multiple Authorship」, 『Art Power』 (Cambridge/London: The MIT Press, 2008), p.93 원문은 다음과 같다. "Present-day art is is not the sum of particular things but the topology of particular places."

¹⁹²⁾ Claire Bishop, 「The Social Turn: Collaboration and Its Discontents」,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London/New York: Verso, 2012), pp.11~40.

어진다고 본다.193) 비숍에 따르면, 이러한 '참여적 예술'은 예술 프로젝트가수행이 되는 과정을 통해 관객-참여자 집단의 의식(consciousness) 변화 및 사회적 상황(social situation)의 동력 및 에너지 등의 상태 변화 등 '보이지 않는 것(invisible)'을 예술을 통해 가시화하고 더욱 강조할 수 있으며, 하며, 이는 예술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예술 전반의 '사회적 전환'은 커먼즈론의 주장처럼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향유해 온 '공공 공간(common space)'의 축소가 심화되고 있는데 대한 예술 영역에서의 비판적이고 수행적인 실천이라 볼 수 있다. 이는무형의 사회문화적 커먼즈에까지 사유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현 상황 속에서, 비단 물리적 공간의 차원을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강화'를 통한 "공공적 공간들의 창조(the creation of common spaces for uncommon knowledge)"의 방식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다(Pelin Tan, 2018).194)

예컨대 참여적 공연, 같이 요리하기, 구술 채록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진행되는 '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이러한 '예술적 실천'은 예술을 통해 더응집력 있는 사회적 관계(coherent social relation)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Pelin Tan에 따르면, 이러한 예술적 실천은 '만남과 환대의 장소'를 일상의 공간 속에 마련하여 개인과 공동체 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촉진하고, 나아가 "공통적인 것 안에 존재하기(being-in-common)"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적 질서 전반에 대한 커머닝을 수행하는, 예술의 "커머닝적 실천 (the practice of commoning)"이기도 하다.195)

이러한 예술적 커머닝은 단지 동질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 연대의 강화 (bonding)"로서의 의미에 그치기보다 예술 자체가 이미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표현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서

¹⁹³⁾ Ibid., 「Introduction」, pp.4~8 특히 이 부분을 참조할 것: "By contrast, today's participatory art is often at pains to emphasise process over a definitive image, concept or object. It tends to value what is invisible: a group dynamic, a social situation, a change of energy, a raised consciouness. As a result, it is an art dependent on firsthand experience, and preferably over a long duration (days, months or even years.)

¹⁹⁴⁾ Pelin Tan, 「Practices of Commoning in Recent Contemporary Art」, 『ASAP Journal』 (May 2018) p,280

¹⁹⁵⁾ Ibid., p.279

로 간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낯선 이에 대해서도 기꺼이 환대하는 "다리 놓기(bridging)"의 작업으로 진행된다(Hanka Otte and Pascal Gielen, 2019).196) 즉, '다리 놓기'로서의 예술적 커머닝은 단순히 기존의 공동체성에 기반한 연대적 가치의 생산보다는 각자의 고유한 '차이'를 최대한 긍정하고 이를 새로운 관계 속에서 보존할 수 있는 일종의 '차이적 관계'로서의 '집합성(collectivity)'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예술의 '사회적 전환'에서 비롯한 참여적 예술, 즉예술의 커머닝적 실천은 예술이라는 '장소'를 각자의 고유한 '차이'라는 '경계'를 넘어 새로운 질적 관계로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문지방 공간 (threshold space)'으로 설립하는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다. Ⅲ장에서 살펴본 바처럼, 이러한 '문지방 공간'은 안과 밖으로 나뉜 기존의 영역 사이에서이를 넘나들며 새로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의 지배적 가치가 장악한 가치 질서의 틈을 현시할 수 있는 커먼즈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경계가 다른 것을 배척하는 분계선으로 여겨진다면, 문지방은 모든 가능한 것이 발생하는 사이 공간으로 생각된다. 경계가 분리 작업을 진행하는 반면 문지방은 가능성, 권력, 그리고 변신의 장소를 드러낸다. 그러나 경계와 문지방의 구분이 지각의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경계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넘어섬으로 초대하는 문지방으로 지각된다. (중략)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존재이기에 만약 인간이 다른 자신을 발견하려 한다면, 스스로 넘어서야 하는 문지방을 필요로 한다. 의식과 인식에 능한 생명체로서, 체현된존재로서, 인간은 스스로 지속적으로 변하고, 문지방을 반복해서 넘어섬으로써 인간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스스로를 구성할 수 있다.197) <에리카피셔-리히테, 『수행성의 미학』>

¹⁹⁶⁾ Hanka Otte and Pascal Gielen, Edited by Corina L. Apostol, Nato Thompson, 「Commoning Art in Europe - On the play between art and politics」, 『Making Another World Possible: 10 Creative Time Summits, 10 Global Issues, 100 Art Projects』 (UK: Routledge, 2020), pp.49~50 197) 에리카 피셔-리히테, 『수행성의 미학』, 452~453쪽.

예술의 한 영역이기도 한 '문학' 또한 이러한 '문지방 공간'의 성격을 가진다. 언어를 통해 가장 내밀한 주관적 정서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서정적영역'으로서의 문학은 우리가 이러한 문학적 공간을 '반복해서 넘어섬으로써' 조금 더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서정의 문지방 공간'이라 할수 있다. 이때, '의미'라는 문학적 가치는 이 문지방을 넘어서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더 단단하게 구축된다. 또한 이 가치는 말과 문자라는 언어적 커먼즈와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인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협동 창조'되는 '협력적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적 커머닝은 기본적으로 수행적인 특징을 가지며, 이때 '수행적 실천'으로서의 문학적 커머닝은 이러한 '문지방 공간'으로서의 '서정의 영역'을 (재)구축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즉, 문지방 공간으로서의 문학하는 공간이며, 이는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문학적 실천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경계가 또다른 경계로 우리를 이어주는, 즉 하나의 '문지방'으로 변화하며 현실을 재구성하기도 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학적 커머닝은 언제나 '함께-쓰기'의 방식으로 이뤄진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경계를 넘어서는 쓰기'로서의 '함께-쓰기'는 나의 경계를 넘고, 기존에 의미화된 경계를 넘고, 나아가 자본적 질서에 도취된 가치의경계를 넘어 '다를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수행적 실천으로서의 문학적커머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문학에서의 '의미'는 언제나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생성되는 것이지만, '함께-쓰기'로서의 문학은 이러한 의미의 협동 창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각각 자신의 고유한 경계를 넘어선다는 점에 특히 그 중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서정적 주체'로 거듭날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지닌다. 그러므로 '함께-쓰기'는 이러한 '의미들이 만나는 장소'로서의 '문학'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또한 이를 통해 기존의 의미를 갱신하여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학은 이러한 '함께-쓰기'를 통해 '공통적 장소(common place)'로 거듭나는 '사건(event)'을만들어내는 커머닝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2010년대 이후 한국에서 각종 낭독회, 공동체 기반 창작 활동 등의 '참여적 문학(participatory literature)'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은 이러한 '함께-쓰기'가 조금 더 본격적인 문학 창작 형식으로 새롭게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개발에 의해 폐허가 된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칼국수 가게 <두리

반>에서 열린 '불킨 낭독회'(2010~2011)와 경북 칠곡군 일대 마을의 성인문해반 '칠곡 할매들'의 시 창작이 그러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두사례는 공통적으로 '낭독을 통한 시적 경험'의 공유와 '수용자의 시 창작'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문학 개념, 즉 작가에 의한 문학작품의 창작과 독자의수용이라는 문학적 경계를 넘어 문학 행위의 '참여'의 폭을 확장하는 새로운실험적 시도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참여의 과정을 통해 '쓰기'의 범위또한 '읽기(낭독)'와 '듣기'를 포괄하는 '문학적 감각 경험의 변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러한 감각 경험의 변화라는 일종의 '심미적 체험'을 통해 '일상감각의 변화'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학적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이라 할수 있다.

'불킨 낭독회'는 2010년 '6·9 작가선언'을 통해 만나게 된 시인, 소설가, 평 론가, 가수, 북디자이너 등이 결성한 '잡소한 사춘기 문화집단 1월11일(1월11 일 동인)'이 주축이 되어 강제 철거로 인해 단전(斷電)된 홍대 칼국수 가게 <두리반>에서 개최한 낭독회로, '불을 켠'이라는 의미에서 '불킨 낭독회'로 명명되었다. 사태가 해결되어 '드디어 불킨 낭독회'(2011.6.)를 개최할 때까지 8개월간 매달 진행되었고, 진행되는 동안 낭독회에서는 다양한 경향을 지닌 작가들이 각자 자유롭게 골라온 작품을 낭송하고, 시민 낭독자도 이에 참여 하였다. 낭독회는 무료로 진행되었지만,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을 두리반 투쟁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198) '1월11일' 동인으로 이 낭독회를 기획하 고 참여한 시인 진은영은 그의 책 『문학의 아토포스』를 통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이 낭독회는) 행복, 천사들의 도시, 집, 태양, 밥, 노래 등 이데 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낭만적이고 일견 감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주제들 이 선정되었고, 그 주제들에 관련된 시나 소설의 구절들, 사적이고 다정한 대화들, 그리고 전투적이고 민중적인 뉘앙스를 느끼기에는 지나치게 잔잔하 거나 사이키델릭한 노래들로 낭독회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고, "사회참여에 대한 강렬한 윤리의식이 아니라 철거 공간에서의 시 읽기를 거북살스러워하 지 않을 정도의 느슨한 문학적 엄숙주의가 있었다."199)

이처럼 '불킨 낭독회'는 '낭독회'를 통해 철거 위기에 놓인 공간을 새로운

¹⁹⁸⁾ 진은영, 「문학의 아토포스: 문학, 정치, 장소」, 『문학의 아토포스』 (서울: 그린비, 2015) 172~173쪽. 각주16), 17) 요약 정리함. 199) 같은 책, 172쪽~173쪽.

문화예술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공간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수행한 동시에, '쓰기와 읽기'로 이루어졌던 종전의 문학 행위를 '낭독하기와 듣기'로 확장하는 '문학과 새로운 관계 맺기'도 함께 실험했다. 특히 이를 통해 이 낭독회에 참여한 행위자 모두가 '쓰는 자/읽는 자'에서 '낭독하는 자/듣는 자'로 변화하는 문학적 감각 체험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학적 경험'의 확장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감각 경험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일상성을 획득하게하는 '주체의 탄생'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철거 공간'을 시와 음악을 함께 나누는 일종의 '문지방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적 연대감을 재확인하는, 여러 차원의 '경계 넘기'를 동시에 감행한 '사건'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불킨 낭독회'가 도시 공간에서 문학을 통한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실험한 사례라 한다면, '칠곡 할매들'은 농촌 지역에서 노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사업에 참여하여 한글 배우기에서 시작하여 시를 쓰고 시집을 출판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상적 삶의 감각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200)

아 살아도 제미가 없고
세상에 힘도 없고 외로었지만
요새는 집에 도마도도 심어노코
물 주며 생각하니
모르는 글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버스 타고 연극 하로도 가고
정말로 제미 있는 세월을 보내며
먼 산에 꽃이 피듲
내 인생도 정말 기쁘다
살 힘이 난다

²⁰⁰⁾ 강금연 외 88명, 『시가 뭐고? -칠곡 할매들, 시를 쓰다』 (서울: 삶창, 2021). 이들의 시 쓰기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 <칠곡가시나들> (김재환, 2019) 도 제작되었다; 또한 이들의 손글씨는 '칠곡할매글꼴'로 무료 배포되기도 했다. (참조: 박명규, <'삐뚤빼뚤' 칠곡할매 손글씨로 만든 글꼴 일냈다>, (2021-03-23, 경북도민일보))

<정순임, 「제미있는 인생」 전문>201)

'칠곡 할때들'에게 시는 "시가 뭐고/ 나는 시금치씨/ 배추씨만 아는데"2020처럼 매우 낯선 것이지만, 글씨를 배우고 시를 쓰는 '비일상적'인 경험은 오히려 일상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이러한 '시적 경험'은 세월호 사건과 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학부모님에게/ 어떻게 위로의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시로 응답하는, 공동체로의 참여로도이어지는 매개가 되었다.203) 이들의 변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칠곡 가시나들》(2019)에서는 글씨를 배워 아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쓰고 처음으로 우체국에 가서 이 편지를 부치는 한 '할매'의 '첫 경험'과, 시를 쓰고 난후 산책길에서 "시가 천지 삐까리네"라고 감탄하는 또다른 '할매'의 '시적 경험'이 제시되기도 한다. 글씨와 시 쓰는 법을 새로 배우는 행위 자체가 이미기존의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듯 '문지방'을 넘는 사건을 통해 기존의 일상적 활동 범위가 확장되고 심미적 경험의 강도 또한 높아지는 등의 '일상성의 강화와 재구성'이 함께 일어난다는 점에서 '삶의 갱신'으로서의 사건도 발생한다는 점이라 할 수있다.

실제 위 다큐멘터리에서 글씨와 시는 한 노인으로 하여금 아들과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체국'이라는 공적(public) 영역에 처음으로 진 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되었다. 또한 노인들이 마을회관에서 함께 글 씨와 시를 배우는 경험을 통해 이들의 공동체성은 기존의 공동체성과 다소 다른, 일상 속에서 보다 심미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의 소통도 나누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는 이들로 하여금 그동안에도 똑같이 나물을 캐던 곳에서 '온통 시들로 가득한 풍경'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즉 삶에서 심미적 체험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삶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글씨를 배우고

²⁰¹⁾ 정순임, 「제미있는 인생」, 『시가 뭐고?』, 61쪽.

²⁰²⁾ 소화자, 「시가 뭐고」, 같은 책, 55쪽.

²⁰³⁾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한 일/온 국민의 마음이 괴로워요./아픈 것은 학부모님보다 덜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차란, <세월호>), 『시가 뭐고? -칠곡 할매들, 시를쓰다』 (서울: 삶창, 2021), 74쪽.

시를 쓰는 경험은 '이전의 일상'과 '이후의 일상'이 물리적으로도 심미적으로 도 갱신되는 '사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맞춤법조차 틀린 '느슨한 시'는 독자로 하여금 시 자체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감각이 달라지고, 오히려 이러한 틀린 맞춤법이라는 틈새로 '칠곡 할매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생생함을 역설적으로 감각하게 되는 '낯선 시'의 경험을 하도록 한다. 이는 '시적인 것'이 사실은 '시들' 안에만 분리된 채 있지 않으며, 나아가 그러한 틈새를 통해 '서정의 영역'을 체감하게 되는 '감각적인 것의 나눔'도 실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칠곡 할매들'의 사례는 독자들에게도 그들의 삶 자체를 하나의 '시적 풍경'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시와 새로운 관계 맺기로서의 '시적 사건'을 경험하게 한다.

이처럼 '함께-쓰기'로서의 커머닝적 문학은 문학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감상이나 창작의 영역만이 아니라, 함께 의미를 구축해가는 '협동적 창조'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과정을 통해 각 주체의 고유한 차이들을 함께 넘어서며 새로운 의미로 나아가는 '문지방 공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정적 영역'으로서의 문학은 보다 더 삶다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며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를 펼치는 "마주침의 공간"으로사회 속에서 기능하며, 획일화된 가치 질서를 돌파할 수 있는 커먼즈적 주체로서의 '서정적 주체'의 도래를 예감하게 한다.204)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문학'은 단지 텍스트에만 있지 않으며, 문학적 행위와 수행되는 모든 과정과 그 속에서 삶의 갱신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문학적 순간 모두를 포함하는 "제3의 영역(the third realm)"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205) 이미 실현된 유토피아로서의 '문학이라는 커먼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커머닝하는만큼 더욱 열릴 것이고, 우리의 삶 또한 '커먼즈로서의 문학'이 커머닝되는만큼 더욱 풍성하게 구축될 것이다.

²⁰⁴⁾ 앤디 메리필드, 김병화 역, 『마주침의 정치』 (서울: 이후, 2015), 173~174쪽.

²⁰⁵⁾ 황정아, 「문학성과 커먼즈」, 22쪽.

V. 결론: '문학'이라는 커먼즈의 도래

자본주의적 가치 질서가 유일한 가치 체계로 군립하고 있는 현재, 보다 더 삶다운 삶에 대한 필요성 역시 그만큼 더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공동으로 누리고 있는 일상 속 자원들을 보존하고 나아가 이러한 일상적 가치의소중함을 함께 누리기 위한 실천 행위 전반으로서의 커먼즈론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삶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확보하기 위한 비판적이고 수행적인 대안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세계가 자본의 재생산만이 아닌사회적 가치의 재생산도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의 실천이자, 현실을 부정하며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만이 아닌 현실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사유를 통해이 현실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유토피스틱스적 실천이다. 그런 점에서 커먼즈론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깨어있는 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이성에 의해 세계 또한 달라져 갈 수 있다는 긍정의 한 사례라할 수 있다.

문학을 비롯한 예술 전반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은 자본주의적 질서의 심화 속에서 예술 또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에는 이러한 질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한 예술적 실천이라 볼 수 있다. 그런점에서 이러한 전환은 예술이 먼저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온 폐쇄적 경계를 넘어, 먼저 예술 자신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통적 장소(common place)'로 개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중 '서정적 영역'으로서의 문학은 가장 내밀한 주관적인 목소리가 사실은 가장 객관적일 수 있음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우리 각각은 모두 고유한 경험을 가진 주체들이며, 그러한 경험은 또한 '함께-쓰기'로서의 '협동적 창조'의 과정을 통해 더깊은 의미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실현하고 있는 '이미 도래한 커먼즈'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학이라는 커먼즈는 커먼즈를 추동하는 핵심적 커먼즈이며, 그보다 앞서 우리의 삶 자체를 추동하는 본질적 커먼즈이기도 하다. 자본주 의가 심화되면서 문학은 우리 일상의 도처에 있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문학 이 지워져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문학과 나아가 우리의 삶을 위해 문학에 대한 더욱 더 절실한 커머닝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은 원래부터 '함께-쓰기'의 커머닝적 실천을 통해서 존재해왔지만, 지금의 현실 은 더욱 더 문학적인 것을 향해 문학과 우리가 함께 써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문학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미학적인 영역에 두루 걸쳐 있는 속에서 문학적 고유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는 현실적 조건을 고 려하여. '커먼즈론'을 방법론으로 하여 그러한 현실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자 본의 독점적 질서에 경합할 수 있는 다른 가치 질서를 구축하려는 담론으로 요약할 수 있는 커먼즈론을 통해 볼 때, 문학은 그러한 가치의 구축을 직접 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관계 맺기'를 핵심으로 하는 커먼즈론 을 추동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커먼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문학이 놓인 객관적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문학 영역의 바깥에서 문학적 가치의 잠재적 가능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출발한 커 먼즈론은 문학과 미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영역에서는 아직 그 논의가 활발 하지 않아 연구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예술 영역 내에서도 미술 분야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아직 커먼즈론의 관점에서의 연구 및 예술적 시도 들이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유럽을 비롯한 영미권에서는 커먼즈론을 접목한 예술적 시도들이 연구되기 시작했으나. 한국에서는 맹아 단계에 있 었다. 특히 한국문학 내에서의 커먼즈적 관점에 기반한 문학적 실천들은 많 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모든 말들이 모이는 자리'로서의 문학은 자본의 질서로 포섭된 우리 삶의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탐색 가능성이 무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문학의 커머닝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가이 스탠딩, 『공유지의 약탈』, 안효상 역, 파주: 창비, 2021.
- 데이비드 볼리어,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역, 서울: 갈무리, 2018.
-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이영철 역, 『철학적 탐구』, 서울: 서광사, 1994. 마르셀 모스, 『증여론』, 이상률 역, 파주: 한길사, 2009.
- 맛시모 데 안젤리스, 『역사의 시작: 가치 투쟁과 전 지구적 자본』, 권 범철 역, 서울: 갈무리, 2019.
- 미하일 바흐친, 『말의 미학』, 김희숙·박종소 역, 서울: 도서출판 길, 2007.
- 발터 벤야민, 「생산자로서의 작가」,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 완 역, 서울: 민음사, 2006.
- ______,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발터 벤야민 선집 2』, 최성만 역, 서울: 도서출판 길, 2009.
- 실비아 페데리치, 『혁명의 영점』, 황성원 역, 서울: 갈무리, 2020.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공통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정 남영·윤영광 역, 서울: 사월의책, 2020.
- 안젤름 야페, 『파국이 온다: 낭떠러지 끝에 선 자본주의』, 강수돌 역, 용인: 천년의상상, 2021.
- 앤디 메리필드, 『마주침의 정치』, 김병화 역, 서울: 이후, 2015.
- 에리카 피셔-리히테, 『수행성의 미학』, 김정숙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9.
- 에르네스트 만델, 『마르크스 캐피탈 리딩 인트로』, 류현 역, 서울: 이매 진, 2019.
-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윤홍근·안도경 역,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20.
- 요차이 벤클러, 『펭귄과 리바이어던』, 이현주 역, 서울: 반비, 2018.
- 월러스틴·백낙청, 「21세기의 시련과 역사적 선택」, 『유토피스틱스』,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9.
- 임마누엘 칸트, 『판단력비판』, 백종현 역, 서울: 아카넷, 2020.
- 사이토 고헤이,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 김 영현 역, 고양: 다다서재, 2021.
-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역, 서울: 도서출판 길, 2016.
- ______, 『불화』, 진태원 역, 서울: 도서출판 길, 2016. _____, 『해방된 관객』, 양창렬 역, 서울: 현실문화, 2020.

-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서울: 문학동네, 2008.
-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선언』, 이진우 역, 서울: 책세상. 2020.
-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홍기빈 역, 서울: 도서출판 길, 2018.
- 크리스토프 멘케, 『미학적 힘: 미학적 인간학의 근본개념』, 김동규 역, 서울: 그린비, 2013.
- 테리 이글턴, 『문학이론입문』, 김명환·정남영·장남수 공역, 파주: 창비, 2010.
- 테오도르 아도르노, 『미니마 모랄리아: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 김유동 역, 서울: 도서출판 길, 2019.
- _________, 『미학이론』, 홍승용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0. 프레드릭 제임슨, 『문화적 맑스주의와 제임슨』, 신현욱 역, 파주: 창비, 2014.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파주: 한길사, 2020.
- 강금연 외 88명, 『시가 뭐고? -칠곡 할매들, 시를 쓰다』,서울: 삶창, 2021.
- 박배균·이승원·김상철·정기황 편, 『커먼즈의 도전; 경의선공유지운동의 탄생,전환,상상』, 서울: 빨간소금, 2021.
- 서동진, 「"서정시와 사회", 어게인」, 『동시대 이후: 시간-경험-이미지』, 서울: 현실문화연구, 2021.
- _____, 「반Anti-비In-미학Aesthtics: 랑시에르의 미학주의적 기획의 한 계」
- 진은영, 「문학의 아토포스: 문학, 정치, 장소」, 『문학의 아토포스』, 서울: 그린비, 2015.
- 황정아, 「자끄 랑시에르와 '문학의 정치'」, 『개념비평의 인문학』, 파주: 창비, 2015.
- Boris Groys, "Art Power", Cambridge/London: The MIT Press, 2008.
- Claire Bishop,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 Spectatorship, London/New York: Verso, 2012.
- Hanka Otte and Pascal Gielen, Edited by Corina L. Apostol, Nato Thompson, 「Commoning Art in Europe On the play between art and politics」, 『Making Another World Possible: 10 Creative Time Summits, 10 Global Issues, 100 Art Projects』, UK: Routledge, 2020.
- Henri Lefevre, Translated and Edited by Eleonore Kofman and Elisabeth Lebas, "Writings to the Cities,", Oxford: Blackwell, 2000.
- Immanuel Wallerstein, "Utopistics: Or Historical Choic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The New Press, 1998.
- Jacques Rancière, Translated by Steven Corcoran, "What Times Are We Living In?: A Conversation with Eric Hazan, Cambridge: Polity Press, 2021.
- _______, Editied and Translated by Steven Corcoran,
 Disseneus: On Politics and Aesthetics, London: Continuum,
 2011.
- ______, Translated by Gabriel Rockhill, "The Politics of Aesthtics: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London New York: Continuum, 2004.
- _______, Translated by Charlotte Mandell, The Flesh of Words: The Politics of Writing,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_____, Translated by Julie Rose, "The Politics of Literature",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4.
- Max Weber, Translated by Keith Tribe, "Economy and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 Theodor Adorno, 「Spätkapitalismus oder Industriegesellschaft?」, Soziologische Schriften I, 『Gesammelte Schriften Bd. 8』, Frankfurt: Suhrkamp, 1977.
- R.Williams,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 Press, 1977.

<커먼즈 관련 논문>

- 권범철,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101)』 (2020년 3월)
- 데이비드 하비, 「커먼즈의 미래: 사유재산권을 다시 생각한다(The Future of the Commons)」, 『창작과비평』, 한서린 역 (2017년 가을 호)
- 백영경, 「복지와 커먼즈 -돌봄의 위기와 공공성의 재구성」, 『창작과비평』 (2017년 가을호)
- 손철성, 「유토피아와 유토피스틱스: 만하임과 월러스틴의 유토피아론 비교」, 『철학(67)』 (2001년 5월)
- _____, 「마르크스의 유토피아론에 대한 비판: 월러스틴의 '유토피스틱 스'관점에서」, 제13회 한국철학자연합대회 분과학문 발표회 발표논 문
- 심소미, 「'더힐'을 흠모하는 세계에서: 아트 커먼즈와 도시 커먼즈」, 『문화/과학(101)』 (2020년 3월)
- 안새롬,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대기 커먼즈를 위한 시론」, 『환경 사회학연구 ECO 24(1)』 (2020년 6월)
- 윤여일, 「강정, 마을에 대한 세 가지 시선: 커먼즈에서 커머닝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1(1)』 (2017년 6월)
- 이광석, 「커먼즈, 다른 삶의 직조를 위하여: '피지털'로부터 읽기」, 『문화/과학(101)』 (2020년 3월)
- 이원재, 「'문화 커먼즈'와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실험」, 『문화/과학(10 1)』 (2020년 3월)
- 이재숭, 「비트겐슈타인과 소쉬르: 랑그 언어학의 한계와 실천적 언어게임」, 『철학논총(제44집)』 (2006년 4월)
- 정영신,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23(4)』 (2020년 11월)
- 황정아, 「문학성과 커먼즈」, 『창작과비평』 (2018년 여름호) _____, 「팬데믹 시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모델'」, 『창작과비평』 (2020년 가을호)
- Massimo De Angelis Stavros Stavrides, <On the Commons: A Public Interview with Massimo De Angelis and Stavros Stavrides> 《An Architektur》 (June, 2010)
- https://www.e-flux.com/journal/17/67351/on-the-commons-a-public-interview-with-massimo-de-angelis-and-stavros-stavrides/
- Stavros Stavrides, 「Common Space as Threshold Space: Urban Commoning in Struggles to Re-appropriate Public Space」, 「Footprint』 (Spring, 2015)
- Pelin Tan, 「Practices of Commoning in Recent Contemporary Art」,

"ASAP Journal" (May 2018)

<랑시에르 관련 논문 및 평론>

- 강계숙, 「시의 정치성을 말할 때 물어야 할 것들」, 『문학과사회』(2009년 가을호)
- 강동호, 「존재론적 비명으로서의 시적인 것 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에 대한 단상」『창작과비평』(2009년 가을호)
- 김기수, 「랑시에르의 비판적 예술에 관하여: 예술의 전략의 문제를 중심으로」, 『철학논총(83)』 (2016년 1월)
- 김행숙·서동욱·심보선·신형철, 「감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에서 오늘날의 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문학동네』 (2009년 봄호)
- 김형중, 「문학과 정치 2009 윤리에 대한 단상들」, 『문학과사회』 (2009년 가을호)
- 김춘식·서동욱·조강석·진은영, 「우리 문학의 이전과 이후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우리 시」, 『문장 웹진』(2010년 1월호)
- 박 준, 「용산, 두리반 그리고 희망 버스 이후 작가들 시인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실천문학』(2013년 봄호)
- 백낙청, 「현대시와 근대성, 그리고 대중의 삶」, 『창작과비평』 (2009 년 겨울호)
- ______, 「D.H. 로런스의 민주주의론」, 『창작과비평』 (2011년 겨울호) 서동욱, 「시와 비진리 - 이미지의 논리」, 『세계의문학』 (2009년 여름 호)
- 신형철, 「가능한 불가능 -최근 시와 정치 논의에 부쳐」, 『창작과비 평』 (2010년 봄호)
- 심보선, 「예술 동호회의 정치: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주체화의 무대」, 『東方學志(164)』(2013년 12월)
- ____, 「천사-되기에서 무식한 시인-되기로 -평론가, 시인, 문맹자의 문학적 정치들」,『창작과비평』(2011년 여름호)
- 윤영광, 「탈정체화의 정치: 랑시에르 정치철학에서 주체(화) 문제」, 『문화/과학(77)』 (2014년 3월)
- 이성혁, 「'정치적인 것'과 아방가르드 랑시에르의 예술론에 대한 아방 가르드의 입장에서의 비판」, 『시와사람』 (2009년 여름호)
- 이장욱, 「시, 정치 그리고 성애학」, 『창작과비평』 (2009년 봄호)
- 조연정, 「무심코 그린 얼굴 시와 정치에 대한 단상」, 『문학수첩』 (2009년 가을호)
- 진은영, 「감각적인 것의 분배 2000년대 시에 대하여」, 『창작과비평』 (2008년 겨울호)

함돈균, 「잉여와 초과로 도래하는 시들 - 주체 과정으로서의 시 그리고 정치」,『창작과비평』(2009년 겨울호)

<아도르노 관련 논문>

- 노성숙, 「일상의 미학과 아도르노」, 『철학(72)』 (2002년 8월)
- 이병탁, 「자유의 조건으로서 정치경제 비판 충동의 구제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2020년 5월)
- 정석현, 「아도르노 미메시스 개념의 의미」, 『철학논총(70)』 (2012년 10월)
- 정진범, 「현대적 조건 하에서 좋은 삶의 가능성에 대한 아도르노의 대답」, 『철학(126)』 (2016년 2월)

<언론 및 영상자료>

- 한소범, 「게임회사, 유통회사는 왜 '소설'에 꽂혔을까?」, 『한국일보』 (2021-07-15)
- 임지영, 「돌아오지 못한 304명의 이름을 부르다」,『시사IN(448)』 (2016-04-15)
- 박명규, 「'삐뚤빼뚤' 칠곡할매 손글씨로 만든 글꼴 일냈다」, 『경북도민 일보』 (2021-03-23)
- 6·9 작가선언, 《이것은 사람의 말》(한국작가회의 누리집) 《칠곡 가시나들》 (김재환, 2019)

Abstract

Literature as Commoning : On the Politics and Commonality of Literature

Minju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mparative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reexamines the political and social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literature with the commons theory perspective. For this, this thesis aims to confirm that literature is a not only linguistic commoning process to revitalize language as human commons but also a core commons that performs a socio-cultural commoning that awakes a unique sense of life by building a 'a sphere of the lyric'. This is an area of non-capitalistic values which are subsumption by the capitalistic world.

Globally, a crisis of daily life has been heightened as the neoliberal capitalist system is enforced. The commons theory gets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heory that can reorganize capital-focused orders since it focuses on social reproduction which competes with the reproduction of capital. The commons is also a concept that everyone can share such as public land or public resources. Furthermore, it means autonomous management set up a system by community

members for sustainable use of common-pool resources and these activities can redefine characteristics of a community and common resources. This is а systematic paradigm where 'common resources-community-commoning' are combined. Most of all, commoning which is a social action to maintain the commons is not a passive action that shares given resources but an active action that community members participate and reproduce resources. Through process of commoning, community order can reestablished and this is a core or commons. Likewise, the commons based on commoning go beyond private and public area and affects economic and social orders. It can be a political new alternative common area since it motivates the creation of community as the main agent of commoning process.

The commons theory is a theory on the possibility of this commons, and this thesis analysis that this theory is the practice of utopistics with critical and performative theory as it is a performative practice based on criticism of reality. Most of all, language as a socio-cultural commons and literature are a typical common area that goes beyond the private and public areas. These are core commons that can build objective value order that criticizes overall social orders with the most subjective language. According to Theodor Adorno, lyric poetry communicates with a society with subjects' unique voices, and the society accepts these subjective voices as objective facts. Therefore, this can be a place where 'genuine communication' based on human values, not a 'useful communication' based on commercialized values, performed. Genuine communication is not an instrumental relationship based on formal rationality, but a relationship based on substantive rationality. This is the essence of life since it will bring

a better life. In this regard, literature that builds up 'a sphere of meaning' called 'the lyric' is a linguistic commoning itself as well as commons, and the last bastion of value that is essential for genuine life.

In Chapter 1, the thesis will look into changes in Korean literature after 2010 when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is deteriorated due to the enforcement of neo-liberal orders. With 'soft capitalism', commercialization of literature has been accelerated, but also at the same time, discussion on 'politicized literature' and 'participatory literature' has performed its role as a pivot to reorganize common areas with people.

In Chapter 2, the thesis will examine the necessity of commons by looking into the main concepts and background of commons theory and provide literature reviews. Most of all, the thesis emphasizes that commons theory is not a heading towards negative utopia but a practice of utopistics based on performative practice that aims at changing capitalistic orders with criticism on the reality.

In Chapter 3, the thesis will examine intangible commons such as language, idea, image, and affect as well as socio-cultural commons that include various social memories are core commons of commons theory that focuses on building a new relationship with previous orders. Among these, language and literature are important since it builds up a relationship of socio-cultural commons as 'a sphere of meaning' called 'the lyric' and reinforce its quality.

In Chapter 4, the thesis will review the politics and commonality that is indwelled in the literature as commons, and look into whether literature commoning as 'co-writing' can rebuild our society.

In Chapter 5, the thesis will conceptualize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socio-economical, and aesthetic change of the society through

literature as commons into a social turn. It will also focus on the importance of literature as 'a sphere of meaning' that builds values. Through this, it will emphasize that we can all live a better life.

Keywords: commons, commoning, literature, the politics, commonality, the lyric, performativity, co-writing, social turn, utopistics

Student Number: 2010-20068